#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6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373호



신개발품 전자칼라연등 - 한건상 · 강백상 · 한화상 - 석가, 관음, 지장, 보살, 연꽃 등 佛心院 서울조계사 入口 상춘종실 1층 ☎ 02)725-2050 (代)


법석 초대 **우 빤디따 스님** 빤디따라마행 원장



"항상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는 것은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번뇌를 제거,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나는 말법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불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있는 한 불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 "반환경적 佛事 동참 안해" 92%
# 종단차원 '불사심의기구' 필요

## 조계종 스님 · 재가자 776명 대상 설문

불자들은 사찰이 반환경적 불사를 시행할 경우 동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단차원의 '불사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표했다.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1월부터 조계종 소속 사찰 스님과 재가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 7일 발표한 '불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인 687명이 '불사심의위원회' 구성에 공감했다. 응답자들은 종단차원의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영향성 검토와 불사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이나 신행을 20년 이상 해온 재가자의 경우 65.5%인 다수가 '불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 문제가,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계의 환경현안인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계획 철회주장도, 친환경적 불사를 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해석이다.

응답자의 또 94%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78%는 사찰이 현재 반환경적인 불사를 추진한다고 지적했으며 92.6%는 사찰이 반환경적인 불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불자들의 환경의식 고조에 따른 교육 및 실천방안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6%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 16%만이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불자들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신행은 △자기 쓰레기 가지고 가기 △일주문 밖 주차장 이용 △음식물 쓰레기 안만들기 등이었고, 사찰 진입로를 비포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84%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과정에서,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해 환경문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련기사 3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佛心 모아 파이팅… '코리아 16강'** 4일 전국민의 관심은 2002 한 · 일 월드컵 한국팀의 경기가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모아졌다. 한국팀은 이을용, 홍명보, 설기현, 김남일 등 불자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2:0으로 이겨 16강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한국팀이 골을 성공하자 김포 중앙승가대 정진관에 모인 학인스님들이 환호하는 모습. 사진= 고영배 기자

##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법적 제한

### 서울시, 보존 악영향 판단땐 인허가 반려

문화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 인허가가 합법적으로 반려된다. 서울시가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따르면 각 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100m, 시지정 문화재는 50m안에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문화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높이는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최고 높이가 9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 보존지구 △보존지구 △사적건축물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할 때 문화재위원회에 근대건축물 심의분과(10명)을 두어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 미륵대불에 금옷 법주사 개금불사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사진)이 130년만에 '금옷'을 다시 입었다. 법주사는 7일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호국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 및 10만등 점등법요식을 봉행했다. ☞관련기사 3면

법주사= 고영배 기자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불자도 기초가 튼튼해야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 불교대학이 오는 29일 33기 졸업식 가지면서 10만명 졸업생 배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1986년 47명으로 문을 연 이래 16년 만에 이룬 결과로, 한 해 평균 6,300여명이 불교대학을 졸업한 셈이다. 특히 4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이 몇 년 전부터는 한 기수당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 영남불교대학도 단시일 내에 급속도로 성장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1992년 문을 연 '영남불교대학'은 지난 3월 가진 졸업식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모두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9년부터 매년 3천여 명이 거쳐 갔고, 현재 2년제 과정과 4년제 과정을 합쳐 4천여 명의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




이 두 불교대학은 교육의 질에서도 결코 다른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능인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을 마친 불자들이 심도 깊은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의 '경전연구반'과 '능인불교대학 법사반', 2년 과정의 '능인불교법사대학원'을 설치해 놓고 있고, 영남불교대학은 재학생들 모두가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함으로써 실천하는 불자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두 대학을 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붐고 있는 '히딩크 배우기' 열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히딩크의 성공전략 가운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기와 체력 등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요사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히딩크식 펀더멘털을 '벤치마킹(Bench Making' 하겠다고 법석을 떠는 것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벤치마킹이란 기업들이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를 선정, 상품이나 기술, 경영방식을 배워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응용하는 것이다.

불교대학이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전법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불교대학은 불교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기초가 허약한 불교의 현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두 불교대학과 같은 경쟁력있는 교육기관이 계속 나와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수행

1. 참선, 기도, 염불, 경전읽기 등 수행을 위해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쓰십니까?
①30분 이하 ②1시간 이하 ③2시간 이하 ④2시간 이상

2.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입니까?
①새벽 ②사시(오전 10시) ③저녁 ④형편대로

설문 참여: 6월 1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4호 9면에 실습니다.

# 북한산 파괴 규탄 불교도대회

## 24일 조계사 정부 '4 · 18' 약속사항 불이행 판단

북한산 국립공원과 사찰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불교도대회가 열린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가 24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강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북한산국립공원 파괴 정부규탄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대위는 5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4월 18일 임인택 건교부장관이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약속한 △북한산 관통도로 국립공원 구역 6월 말까지 공사 중지 △철거단행가처분소 취하 △우회노선을 마련키 위한 협의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자연환경을 수호하는 불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불교도대회를 갖기로 했다.

강유신 기자

### 6 · 15선언 2돌 남북공동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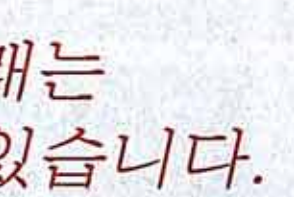
6 · 15남북공동선언 2돌을 기념하는 남북공동법회가 14일 오전11시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종단협이 주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는 정대스님 법어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인사말, 남북공동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불자는 부다피아 외환카드**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암 · 한방 병원 진료비 5~20%할인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따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 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페이션 등)
- 국 · 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롯데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02)725-1132



Appl▼Ware

Application Ware Infor Com Co., Ltd.

**불교**의 미래는
정보화(IT)에 달려 있습니다.

전산 정보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면, 저희 Appl▼Ware (주)애플웨어정보통신을 활용 하십시오.
Appl▼Ware (주)애플웨어정보통신은 전산 정보화의 축적된 Know-how를 갖고 있습니다.

- 전산화 컨설팅 및 교육
- 하드웨어(PC, 통신장비, 선로)공급 및 구축
- 소프트웨어(홈페이지제작,DB구축)등 다양한 솔루션제공

저희 Appl▼Ware (주)애플웨어정보통신은
불교정보화를 위한 전문기업 입니다.




문의: Tel. 02)582-0101 / Fax 02)582-440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64-10 미성빌딩4층

## 사 설

### "아-대한민국"…온 국민이 하나

한동안 빛을 잃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던 '대한민국'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 전 눈물겨운 감동과 열정의 불꽃을 피워 올리며 엄청난 힘의 이미지로 승화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다. 월드컵 축구 예선 첫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이긴 그 순간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외쳤던 소리, 그것은 아직도 '아, 대 - 한민국'이라는 여운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정과 부패, 분열과 반목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어둡게 해 왔다. 그 어둠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릴 듯한 그 날의 함성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해 온 선수들, 최선을 다해 승패를 겨루어 당당히 이긴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찾으려 한다.

지난 48년 동안 월드컵 경기에 참가, 한번의 승리도 경험 해 보지 못했던 한국 팀을 원칙대로 조련시킨 히딩크 감독에 대한 찬사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한국 사회 고질인 모든 연고를 무시, 공정하게 선수 선발을 했으며 스타플레이어 대신 팀워크를 살려냈다. 그동안 분열과 패거리주의 등 한국사회의 천박화에 절망감을 가졌을 국민들에게 축구팀의 긍정적 변모는 청신함과 함께 화합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 뿐인가. 거리마다 모여 들었던 엄청난 응원인파의 자발적 질서의식까지 합해 이번 화합 한마당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으며 무엇을 배워야 할 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대로 밀어 16강에 아니 8강, 4강에 오르길 기대한다.

### '불사심의 기구' 만들자

환경 문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예민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과거, 개발이 약속한 보랏빛 미래가 결국은 잿빛 하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삶의 질'을 따지는 개인의 각성이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개발/반개발이 대립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천성산 경부고속철 관통, 새만금 방조제 공사 등 굵직한 현안만 해도 여럿이다.

최근 들어 불자들의 환경 의식이 경이적으로 향상되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환경연대가 1월부터 조계종 소속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92%의 불자가 반환경적인 불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과거 불교계가 사회적 문제에 둔감한 집단으로 비춰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불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환경적 불사'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명백한 '형용 모순'이다. 불사가 어찌 반환경적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불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저없이 진리라고 믿는 까닭은 어떤 경우에도 옳기 때문이다. 거기에 불법의 위대함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거나 사회의 요구가 비뚤어진 것이다.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혹 불사 행위에 '반'환경적인 구석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건 반불교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수행 환경' 보장의 목소리마저도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종단 차원의 '불사심의기구'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조계종무원 업무능력 높인다

## 승가대에 제1회 종무행정강좌 개설
## 수료자 대상 '인력 풀' 시스템 구축

우수한 신규 종무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종무원들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종무행정 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에서 제1회 종무행정 강좌를 개설한다. 조계종이 처음으로 마련한 종무행정 강좌는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의 종무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종단은 물론 각 관공서와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종무행정 마인드를 제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종무행정 강좌를 이수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발행의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종무인력 풀을 형성하여 중앙종무기관과 사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1회 종무행정 강좌는 △종단 및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 △사찰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우선 종무행정과 관련한 강의로는 동국대 심익섭 교수의 '종무행정 개론',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의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 김응철 교수의 '세계불교의 현황' 등이 마련되며, 조계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과 김광식 박사의 '조계종 근현대사' 종회의원 현응스님의 '종헌종법'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사찰의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으로는 기획실장 현고스님의 '불교관련 국가법령의 이해', 이점수 법무사의 '부동산 관리 실무 및 관련세무' 등이, 사찰의 대내외 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의 '신도관리', 무진법장사 주지 퇴휴스님의 '법회운영 및 지원' 등의 강의가 열린다.

조계종은 스님 수료자는 본말사 주지연수와 초임주지연수교육 이수를 인정해주고, 재가자는 종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종무행정 강좌 접수마감일은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문의 02) 735~586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불국사 주지에 종상스님 선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5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에 종상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상스님은 65년 법주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73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불국사 재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중앙종회 의원,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의왕 청계사 주지, 경주 석굴암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불국사는 7월 19일 종상 스님 주지 진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보훈의 달…사찰서 호국영령 천도재 잇달아



◇서울 도선사는 지난 2일 경내에서 2백여 장병을 초청,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천태종 관문사(주지 춘광)는 2일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하고, 서초구와 강남구내 전몰군경 및 순국선열, 서울경찰청 소속 순직 경찰관 3천여명 영가의 위패를 봉안했다.

서울 도선사도 같은날 2백여 장병을 초청, 순국선열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광주불교사암연합회도 이날 완도 장보고 축제 특설무대에서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법회'를 열었다.

양산 통도사와 순천 송광사는 6일 현충일을 맞아 6·25와 월남전에서 순국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리는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강원불교연합회는 8일 강원도 화천읍 붕어섬에서 방생대법회와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어 수원 용주사는 14일 효행교육원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령제'를 열며, 국방부 호국원 광사도 호국영령 및 군복부 중 사망한 모든 영령을 추모하는 천도법회를 이달 중순경 봉행할 계획이다.

한명우·강유신 기자

## 태고종 특별전형 법계고시
## 20·21일 총무원 설법전서

지난해 내분 관계로 법계고시를 실시하지 못했던 태고종이 20~21일 양일간 제8차 특별전형 법계고시를 총무원 설법전에서 실시한다.

특별전형 법계고시는 5급 대선에서부터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 1급 종사에 이르기까지 5개 법계로 나누어서, 대선, 중덕, 대덕, 종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종사는 총무원장 추천으로 실시된다.

각 법계별 응시자격은 대선은 연령 25세 이상 법랍 5세 이상으로 종단 입적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덕은 연령 30세 이상 법랍 10세 이상 대선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 대덕은 연령 35세 이상 법랍 15세 이상으로 중덕 품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 "대·소승불교 포괄 신앙체계화 필요"

### 27일 '불교학 실사구시' 주제 전공교수 연수

'한국의 불교학은 수행 및 신행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좌표를 제시하는 불교학 풍토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7~28일 1박2일간 부안 내소사에서 '불교학의 실사구시'를 주제로 제3회 '불교학 전공 교수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서는 김성철 동국대(불교문화대) 교수는 "현대의 인문학적 불교학의 문제점은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대소승을 포괄해 불교를 신행, 또는 신앙체계로 묶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불교 신행과 유리되지 않는 불교학을 '체계불학(體系佛學, Systematic Buddhology)'이라고 명명하고, 체계불학에는 인생과 세계 전반에 대한 불교적 조망과 함께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모든 신행자를 진정한 불교인으로 만들어내는 불교신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에는 울산대 박태원 교수(철학)와 전남대 안옥선 강사가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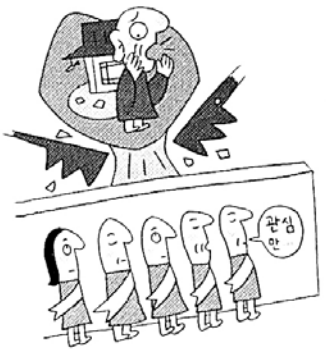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본사사령**

남동우 命 취재부 기자
박원구 命 대구주재 기자

2002년 6월 10일부

**'현대' 만평** 김 영 민




관심과 더불어 실천을…

**제보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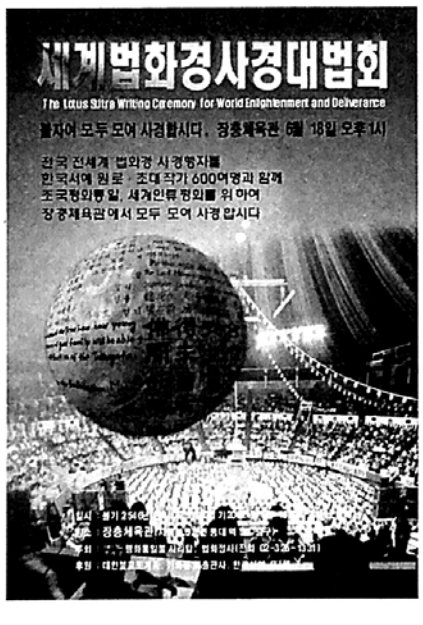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 세계법화경사경대법회

The Lotus Sutra Writing Ceremony for World Enlightenment and Deliverance




## 불자여 모두 모여 사경합시다. 장충체육관 6월 18일 오후1시

### 전국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 한국서예 원로 · 초대작가 600여명과 함께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를 위하여 장충체육관에서 모두 모여 사경합시다

전국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이 불교정법중흥,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를 위하여 장충체육관에서 6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계법화경사경대법회를 연다

이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법화정사(주지: 석도림)가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서예 5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서예 원로작가와 초대작가 600여명이 정성과 대화합으로, 전지로 한장씩 사경한 불가사의한 한글서예법화경 출간과 전세계 불자들이 한쪽씩 사경한 법화경 108권 봉헌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서예법화경은 같은 크기의 화강석으로 조각하여, 사경비림(碑林)과 탑림(塔林)을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 조성할 예정인데, 8만 대장경 불사이후 최대의 불교문화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전 8년동안 설한 경전으로 대승경전의 꽃이라 불리며, 사경본(寫經本)이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신라, 고려시대에는 국운이 어려울 때 왕이 구국을 위한 기도 원력으로 사경을 하였다고 한다.

법화경사경운동은 시대와 국경을 넘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사상을 벗어난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성취하기 이한 운동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백만명이 넘는 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석도림 스님은 "이 법회와 전세계 법화경 사경행자들의 기도원력을 통해, 조국과 세계를 위해 희망과 평화를 주고 온 세상이 화합속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주지 석 도 림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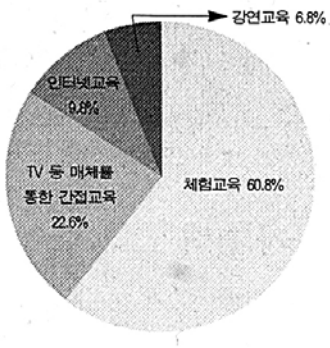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46년(단기 4335년, 서기2002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장충체육관 (지하철 3호선 동대역 5번 출구)**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법화정사 (전화 02-326-1331)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이화문화출판사, 한국서예 5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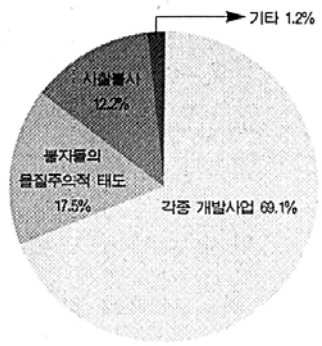
# 실천 이끌어 낼 환경교육 필요

7일 발표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의 '불자들의 환경인식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불교계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생명의 종고인 불교가 친환경적 종교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불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는 적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불자들의 의식을 실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들이 선호하는 환경교육 방식●




●사찰환경 훼손 원인●




## 조계종 환경위·불교환경연대 조사 내용

## 불자들 96%가 환경문제에 큰 관심
## 환경산업 국가 경쟁력 좌우 … 육성해야
## 생태기행 등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불교계 당면과제로 인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의 96.3%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자들의 환경의식이 대단히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들의 95.2%가 사찰수행환경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나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에 대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반대정서를 드러냈다. 또한 93.7%의 응답자가 환경문제 해결에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해 지난 3월 '자연보전과 사찰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단순히 비구니 스님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임을 말해준다.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6.2%에 이르렀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견이 불교계의 보편적 정서임을 확인하게 해 준다.

⊙친환경적 경제개발 희망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5.8%가 환경문제 개선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93.4%의 불자들은 만약에 친환경적인 상품이 나오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구매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줘 환경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친환경적 국가정책 수립을 지적하는 불자들이 총 80.5%에 이르고 있어, 불자들은 정부가 친환경적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자들 현장학습 요구 커

불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환경교육 방식은 현장 방문과 체험교육으로 60.8%가 이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비율은 16.1%에 그쳤다. 또한 불자들의 79%는 환경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환경단체 회비를 낼 의사가 있다는 불자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는 불자들이 직접 현장학습이나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에도 불자들의 환경의식에 환경교육이 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사찰과 환경단체가 현장학습 위주의 생태기행, 사찰문화답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하루 빨리 달성돼야 할 일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금동미륵대불 130년만에 복원

법주사, 7일 개금불사 회향 · 10만등 점등 법요식

## 시멘트불상 해체, 90년 청동으로 조성
## 미세구멍 메우고 옻 · 금분 · 금박 입히기

1천3백년간 미륵종찰(彌勒宗刹)의 맥을 이어온 속리산 법주사(주지 지명)가 7일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호국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법회 및 10만등 점등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식은 부처님께 금올리기 의식을 시작으로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의 인사말, 부주지 무상스님의 경과보고,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미륵십선계 설계, 월드컵 성공기원 헌등,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격려사, 법주사 조실 범행스님의 법어,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교구본사주지대표 법장스님의 치사, 금오문도손상좌회장 성타스님의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노무현 민주당대통령후보, 박근혜 한국미래연대 대표,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의 축사가 즐을 이었다.

높이 33m, 무게 160여 톤으로 세계최대규모인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개금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미세한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부터 옻칠, 금 분칠, 금박 입히기 등 8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건식전기도금공법으로 이뤄졌다.

본래 법주사 미륵대불은 서기 776년 진표율사가 7년간의 노력 끝에 금동미륵보살입상을 조성했다. 하지만 1872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축조하면서 미륵대불을 녹여 못과 화폐주조에 사용한다. 일제시대부터 다시 복원작업이 시작됐지만 6.25전쟁으로 미뤄졌다가 1963년 박정희 장군과 대원군의 손주 며느리인 이방자 여사의 시주로 복원불사가 재개되어 그 다음해 5월 시멘트로 미륵 부처님이 조성된다.

1986년 붕괴직전의 시멘트 미륵부처님이 해체되고, 1990년 4월 청동미륵보살상을 다시 조성했다. 하지만 불상의 용접 부위가 부식으로 얼룩지자 2년간의 불사 끝에 미륵대불을 금동으로 복원했다. 김원우 기자



## 정치권 인사들 '인산인해'

7일 열린 법주사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대법회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한국미래연대 대표, 정몽준 월드컵조직위원장과 충북도지사 후보인 이원종(한나라당) 구천서(자민련) 장한량(무소속)씨와 보은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

## "민족 평화 심는 미륵도량으로"

개금불사 회향 법주사 주지 지명 스님



"미륵대불 개금불사를 계기로 십선계, 자비, 서원으로 민족평화를 심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은 이번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가 "흥선 대원군에 의해 파괴된 불상을 130년만에 금동 옷을 입힌 것은 불교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의미가 있다"며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철거된 미륵대불을 원형 복원하는 데는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불자들의 발원과 원력이 하나로 모아져 불사가 이룩됐다"고 밝혔다.

"불사를 진행하며 80kg의 황금이 소요되고, 7억여원의 재원이 충당되면서 큰 불사를 안좋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원래 법주사에는 금동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조선말 정부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몰수해간 이후 시멘트, 청동으로 모셨다가 원래대로 금동을 입힌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미륵사상의 이념이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미륵불교 자료집 수 만권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태고종 원로회의 이달중 구성

## 각 교구별 20일까지 의원 선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지난 84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회를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원로회의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최근 3원장회의 및 종단간부회의, 종무원장 연석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원로회의를 이달 안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교구별로 20일까지 의원은 선출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시도교구종무원에 보냈다. 교구별 의석수는 서울 경기 각 2석,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 선암사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각 1석, 총무원장 추천 7석 등 총 27석이다.

한편 각 교구에서 선출된 의원과 총무원장이 추천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자격에 대한 심사를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한 후 25일 이후 당선자를 최종 확정한다. 원로회의는 △종정추대권 △종헌개정안 인준권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총무원장 인준권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중앙종회 해산시 중앙종회 권한 대행권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 종책 조정권 △승정 추대권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승인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랍 40년 세랍 7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 임기는 4년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불교 명절의미·행사진행 경험 등 수록

## '봉은사 법회와 행사 요람' 매뉴얼 발행

봉은사가 1년간 진행하는 법회와 행사에 대한 기획에서 실제 진행까지의 경험을 수록한 〈봉은사의 법회와 행사 요람〉(봉은사 출판부 刊)을 펴냈다.

이 책은 사찰 내 행사 전반에 대해 기획 및 준비, 진행사항 등을 소상히 기록한 일종의 '매뉴얼 북'으로, 다른 사찰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12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론, 법회행사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5대 명절, 재일, 법회, 기도, 특별행사, 부록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법회행사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편에서는 기획→준비→진행→회향 작업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준비할 것과 유의점, 작업 일정, 평가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놓았다.

'5대 명절' 편에서는 각 행사의 의미 및 프로그램, 추진방향 및 진행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특별행사' 편에서는 성지순례, 수계식, 예수재, 수련대회, 학림 및 선원 운영, 삼천배 철야정진 등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부록에서는 호마기도법, 49일 기도봉행의미, 영가천도 기도법 등을 수록했다.

봉은사는 11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법회와 행사요람〉 고불식을 봉행한 뒤 조계종 본사급 및 주요사찰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02)730-8976 한명우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임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영산작법 전통불교의식 전문교육

불교의식에는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륙재, 영산재**로 나누며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성으로 모든 스님들은 알아야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의식 행위이다. 스님으로써 필수적 기본의식 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여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행하므로 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환희심을 내어 굳건한 신심으로 기도정진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운천사**에서는 영산회 주최로 의식을 배우고져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 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운천사)
● 일 시 : 불기 2546년 음 5월 16일(양 6월 26일) 오전 10시~
음 5월 22일(양 7월 2일)까지(일주일간)
● 접수일자 : 6월 15일 ~ 6월 22일 까지
● 교육내용 : 불공의식, 다비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신중작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법, 만바라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 교 육 비 : 5만원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구, 세면도구, 기타
● 주 최 : 영산회
● 후 원 :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
● 협 찬 : 광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주간불교신문 광주지사
● 접수 및 문의전화 : 062)375-1820, 011-604-8902
062)222-4133, 016-651-6006 fax : 062)381-0944

교육 일정 시간표

| 날 짜 | 시 간 | | 교 육 내 용 | 강 사 |
|---|---|---|---|---|
| 6월 26일 | 오전 | 10시 | 입소식, 불공, 점심공양 | |
| | 오후 | 2~5시 | 전체 교육내용 강의 |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
| 6월 27일 | 오전 | 09~12시 | 시련, 신중작법, 사물 다루는 법 | 보운스님 |
| | 오후 | 2~5시 | 사물 다루는 법, 만바라 | 영산회원 스님 |
| 6월 28일 | 오전 | 09~12시 | 불공의식 | 보운스님 |
| | 오후 | 2~5시 | 사물 다루는 법, 바라구단 | 영산회원 스님 |
| 6월 29일 | 오전 | 09~12시 | 대령관욕 | 보운스님 |
| | 오후 | 2~5시 | 천수구단, 바라 | 영산회원 스님 |
| 6월 30일 | 오전 | 09~12시 | 시 식(관음시식, 영반) | 보운스님 |
| | 오후 | 2~5시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영산회원 스님 |
| 7월 1일 | 오전 | 09~12시 | 다비의식 | 보운스님 |
| | 오후 | 2~5시 | 전과정 점검 | 영산회원 스님 |
| 7월 2일 | 오전 | 09~12시 | 전과정 예·복습 및 점검 | |
| | 오후 | 2~5시 | 회 향(수료증 수이) | |

## 일주문



### 진각종 창교절 기념불사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14일 오전 10시 통리원을 비롯한 전국 각 심인당에서 창교절 기념불사를 봉행한다.



### '상생 위한 한마당' 행사

도후 불교방송 이사장은 7일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 야외무대에서 '상생을 위한 화합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실천 불교…' 출판기념회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은 2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 포교기금 마련 1일찻집

혜총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은 12일 오전 10시 부산불교회관 2층 보송찻집에서 '포교기금 마련 1일 찻집'을 연다.



### 발룡당 묵초스님 49재

원혜 서울 봉은사 주지는 11일 오후 1시 법왕루에서 지난 4월 24일 입적한 발룡당 묵초스님 49재를 봉행했다.



### 만일염불도량 2돌 법회

보광 청계산 정토사 주지(동국대 불교대학장)는 6일 만일염불결사도량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 감호자 위문법회 봉행

만오 법인종 총무원장은 5일 청송제1감호소에서 장애인경복지회장 허원대씨 등과 감호자 위문법회를 가졌다.



### 동국사학 37집 봉정받아

조영록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17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정년기념식을 갖고 〈동국사학〉37집을 봉정받는다.



### '호국불교와…' 주제 강연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교 교수는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호국불교와 폭력의 문화를 넘어서' 주제로 강연한다.

---

**부음** 한국불교 법륜종 초대 원로 원장을 역임한 환묵당 성오스님이 5일 충남 부여 청룡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7세. 영결식은 8일 오전 청룡사에서 법륜종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 "환자에 만족·감동주는 병원으로"

### 일산종합불교병원 하권익 초대원장



12월 개원 예정인 동국대 의대 부속 불교병원 초대 원장에 하권익 전 삼성서울병원장(성균관대 의과대 교수)이 내정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하 교수를 오는 9월 1일자로 임기 3년의 일산 불교종합병원장에 발령키로 결정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하 교수는 "불교의 동체대비 정신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의사로서 마지막 열정 다할것

국립경찰병원 진료부장과 삼성서울병원장 등을 역임한 하 교수는 국내 스포츠 의학 분야의 대가. 특히 4년간 삼성서울병원장을 맡으면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새로운 병원 문화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자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사람이 중요하고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다"는 하 교수는 "먼저 병원은 치료만 해 주는 곳이라는 권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유대감을 쌓아 가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3년 정도 남은 정년을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여러 번 고사했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불교병원장을 맡게 됐다"며 "한국불교 최초의 불교종합병원인 이 곳에서 의사로서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고 달했다.

동국대 일산 불교종합병원은 1천 개의 병상을 갖춘 강북지역 최대병원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주신 재물 다시 부처님께"

### 전재산 불교기탁 불심홍법원 하도명화 이사장



### 신창농원 성지화 … 인재불사 진력

"일평생 부처님 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덕으로 자연히 이루어진 재물이니 이제 부처님께 돌려 드리려 합니다."

6일 신창농원에서 열린 제 12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하도명화(80) 불심홍법원 이사장은 전재산을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원력과 신심의 대명사로 통하는 하도명화 이사장의 전재산 기탁 법회는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 이사장은 회향법회를 통해 신창농원을 비롯 총 4~5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불교에 회향하게 된다. 이미 1만5천여평의 신창농원을 불교 성지로 가꾸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하 이사장은 "신창농원에다 법당과 요사채, 재가 불자들을 위한 복지관, 예식장, 장례예식장, 고아원, 양로원 등 다목적 건물을 건립해 보다 많은 불제자를 키우는 싶다"고 밝혔다. 빠르면 허가 절차가 끝나는 올 가을경 법당 불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에게 홍법대상과 격려금, 청소년 장학금 등을 전달한 하 이사장이 그동안 교계의 크고 작은 불사와 인재불사 기탁해온 성금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 1989년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을 설립하고 92년 시가 40억원의 땅을 재단에 기탁해 청소년 야회 법당 개설을 시작으로' 홍법대상자 5천3백만원 포상, 장학금 4천여만원, 청소년지도자 지원금 8천여만원, 청소년단체 발전기금 1억1천여만원, 동국대 발전기금 5천여만원 등 총 5억 3십만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

"후세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토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회향"이라고 하 이사장은 말을 보탰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내가 종단 주인' 의식 갖고 일해

### 33년 봉직 조계종 총무원 떠나는 조종래 부국장



"33년간 내가 종단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인은 집을 떠날 수 없지요"

1970년 조계종 총무원 종무직원으로 들어와 33년만인 11일 오후 6시 30분 하림각에서 퇴임식을 갖는 조종래(65) 총무부국장. 조계종 종무행정의 산증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조 부국장은 "가정보다 종무일에 애착을 더 많이 가지다 보니 세월이 흘러간 것도 몰랐다"며 "힘들 때마다 부처님에 의지하여 인욕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회상했다.

조 부국장은 "총무원은 종도들의 봉사기관"이라며 "종단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종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두고 보니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인 30여년 전 총무원에 들어와 예산도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초파일 행사준비를 한 것과 불교방송 개국을 위한 기초설계를 도맡은 일, 10·27 법난 당시 끌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며 "앞으로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서예공부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수행·면학분위기 조성 주력"

### 중앙승가대 제 22대 총학생회장 대위 스님



### 홍보 강화·이미지 개선 실행 계획

"공부하고 수행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5월27일 열린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임시총회에서 제22대 학생회장에 선출된 대위스님(불교학과 3년)은 1년의 소임 기간동안 수행풍토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부하고 수행하는 풍토도 중요하지만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신입생 미달사태가 빚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해 실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제21대 총학생회장이 학인 내부문제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이후 5개월여 동안 공백상태였던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학인들 간의 단합과 화합을 유도해내는 것도 총학생회장의 임무가 아니겠느냐"면서 "많은 학인스님들과 자주 대화하다보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강원룡 ◇강만길 ◇신경림 ◇박찬수

### 제6회 만해상 수상자 4명 선정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스님)는 3일 제6회 만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 前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평화상 수상자로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헌신해온 강원룡목사(평화포럼 이사장)를, 학술 부문에는 강만길(역사학자, 상지대 총장)씨, 시문학 부문에 신경림(동국대 석좌교수) 시인, 예술 부문에 박찬수(목아박물관장) 씨를 각각 선정했다.



### 진천 도솔암 개원 3주년 법회

진천 도솔암(회주 회정)은 6일 개원 3주년을 맞아 혜정스님(법주사 회주)를 초청, 수자영가 100일 천도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리선행 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혜정스님은 "중생계가 중중무진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며 불교 인연관을 강조하고 이 법회를 통해 수자영가들이 연민과 원한의 인과가 말끔이 녹아날 것을 축원했다.




### 원주 구룡사 심검당 상량법회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5월 29일 심검당 이전 신축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건평 약 1백평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지는 심검당은 신도와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올 10월 완공된다. 이날 행사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 강원도내 기관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 광주불교사암련 선상 방생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벽상)는 2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장보고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 동참한 3천여 대중은 국산 광어 치어 10만마리를 방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방생에 앞서 장보고축제 특설무대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 「본마음 · 참나」
# 2002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본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행사일정**

| | 기 간 | 정 원 | 대 상 |
|---|---|---|---|
| 1차 | 7월 29일(월) ~ 8월 1일(목) | 70 | 일반인 |
| 2차 | 8월 3일(토) ~ 8월 6일(화) | 70 | 일반인 |

●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 (3박 4일) : 일반인(대학생 포함)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7월 15일(월)까지이며, 7월 20일(토)개별 통지함.
◇ 동참금 : 일반인 7만원(교재포함)
접수된 참가비는 일체 반환치 않음.

입금통장번호 : 농협 833011-51-000948
(예금주 : 쌍계사)
◇ 준비물 : 고무신,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는 쌍계사 홈페이지
(www.ssanggyesa.or.kr)참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
EMail(info@ssanggyesa.or.kr ,
ssanggyesa@hanmail.net)로 신청가능
① 이름(한문, 한글), 성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⑥ 전화번호(직장, 자택, E.mail) ⑦ 종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꼭 전화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전화 055)883-1901~2(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팩스 055)883-6084
◇ 접수처 :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담당자 앞
(우) 667-824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홈페이지(www.ssanggye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우담 합장**



선(禪) = 생활명상 = 생활명상건강

도리천궁 육지장사
# 여름 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도리천궁 육지장사 여름수련법회에 초대합니다.
산사 수려한 양주땅 이름도 고운 맥석-좌우 쌍경을 이문 호수가 둘씩이나 좌우에 있어 풍광이 아름다운 명당이며 모유정 감로수가 있는 21세기 전법도량 육지장사에서는 기존의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수련회를 벗어나 실생활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생활선, 생활명상, 생활명상건강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인들이 맞는 주거 환경 속(5인1실기준, 샤워시설완비)에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수행공간입니다.
불자 또는 무종교인등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내외전화 TV방송 신문 서적일체엄금 묵언)

◎ **수련회 일정표**

| 순번 | 구 분 | 기 간 | 인 원 | 동참금 | 비 고 |
|---|---|---|---|---|---|
| 1 | 일반인(20세~60세) | 7월18일~21일 (3박4일) | 100명 | 5만원 | 교재비 기념사진 T샤스포함 |
| 2 |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민족문화체험수련 | 7월 22일~30일 (8박9일) | | | |
| 3 | 어린이여름불교학교 | 7월26일~28일 (2박3일) | 100명 | 3만원 | |
| 4 | 일반인(20세~60세) | 8월 1일~4일 (3박4일) | 100명 | 5만원 | " |
| 5 | 청소년 중고등부 | 8월 5일~7일 (2박3일) | 100명 | 3만원 | " |
| 6 | 특별정진 철야 삼천배철야기도 | 7월20일~21일 | 100명 | 2만원 | " |
| 7 | 특별정진 철야 삼천배철야기도 | 8월17일~18일 (1박2일) | 100명 | 2만원 | " |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 **주 관** : 21세기 전법도량 육지장사 한국국제수련원
◎ **장 소**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육지장사 한국국제수련원(도착 2시까지)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고무신) 손전등

◎ **수련비납부** : 계좌번호 하나은행 110-082213-00105 (예금주 : 삼보사)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연락 바람.
불참시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요망.
◎ **접 수**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 수련생으로 확정되면 개인통보.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호
☎ 02)352-6406/6407, 031)871-0101
FAX : 02-389-3262

**신 청 서**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우편 팩스로 전송하시고 전화 확인 요망.
삼보사 홈페이지 : www.sambosa.or.kr 신청바람.

| | | | | |
|---|---|---|---|---|
| 이 름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 한 문 | | | |
| 주 소 | | | 종 교 | |
| 직 업 | | | | |
| 전화번호 | 자 택 | | | |
| | 휴대폰 | | | |
| 수련경력 | | | |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주지 지원 합장**

### 거창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

거창군 공무원불자회(회장 강창남)는 5월 30일 거창포교당 심우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3월 18일 창립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법희에는 회원 40여명을 비롯해 함양, 합천, 의령 등 경남지역 공무원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거창사암연합회장 심우스님은 "지역불교 발전과 포교 활성화에 공무원 불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환경법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운학)는 4일 홍천 수타사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매년 열어온 방생법회를 대신해 열린 이날 법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108배 참회와 환경발원문 낭독, 수타사 주변 환경정화 등으로 열렸다. 한편 법우회는 18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초발심자경문 강득법회를 봉행한다.




### 석불선양회 용암사지 석불친견

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2일 전남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을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고행, 땀 그리고 기쁨'을 주제로 열린 이번 법회는 도갑사 새벽예불과 108참회, 용암사지 환경정화도 함께 진행됐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월드컵 8강 진출과 이산가족 상봉, 선거에서의 선량한 일꾼 선출 등을 발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 불자회 결성·연합활동 개시

## 시청·5구청·도청·정부 3청사 연합법회 봉행
## 공무원불자련 가입·충남교육청불자회 곧 창립

최근 직장단위 불자회의 직장내 신행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이 불자회 결성은 물론 연합활동을 강화해 주목된다.

그동안 대전지역은 불교의 불모지라 불릴 만큼 교세가 미약했으나, 공직단체를 중심으로 직장불교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덕구청 불자회와 3년전 중구청불자회가 창립된데 이어 4월 19일 서구청, 5월 4일 대전광역시청, 5월 16일 동구청, 5월 23일 유성구청 불자회가 연이어 창립됨으로써 대전지역 공무원 불자회가 모두 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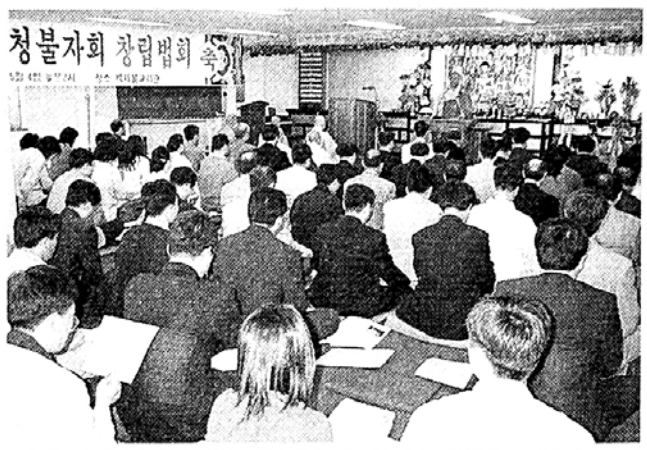
대전시청 불자회와 5개 구청 불자회는 5월부터 매월 한차례 정부 제3청사 반야회, 충남도청 불자회와 연합법회를 열어 연합활동을 시작했고, 공무원불자연합회에 가입하는 등 전체 공무원 불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있다. 대전시청 불자회를 중심으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불자회가 창립을 앞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미 회원 모집에 들어갔으며, 연내 창립을 목표로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대전지역 직장불교 활성화 바람은 지난해 백제불교회관 개원에 힘입은 바 크다. 3월에는 충남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가 결성되며 공무원 불자들의 결속을 가속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스님(공주 갑사 주지)은 대전지역 직장불교회와 신행단체가 신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관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광역시청과 구청의 불자들을 결집해 불자회 창립을 지원해 왔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등 백제불교회관에 입주한 단체협의회도 이를 적극 도와왔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김경범 단장은 "다른 직장직능 단체의 법회 활성화 모색과 각 직장불교회 결성을 병행해 대전지역 불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 등 결속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은 5월4일 열린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창립법회.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철마는 자비를 싣고' 회향 성금 5백만원 이웃돕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비정신의 실천을 위해 벌여온 '철마는 자비를 싣고' 운동을 회향한다.

4월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회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온 철불협은 모금된 5백여만원의 성금을 철도잡지 〈레일로드〉의 이웃돕기 모임인 '사랑의 화원'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일부는 북한동포 지원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전달식은 29~30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리는 철불협 수련회에서 갖기로 했다.

정찬연 사무국장은 "철도불자와 가족들의 정성이 "소년소녀 가장과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8월1~17일에는 중국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연비 를 받고있는 노옥섭 회장.

## 공무원불자련 중국성지순례

### 8월1~17일, 장수 죽림정사서 합동수계 법회도

공무원불자들이 직장불자회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례는 원광석굴, 대동 화엄사, 현공사, 오대산 성지, 서안 법문사, 북경 등을 참배하며, 각 회마다 35명씩 150명의 공무원 불자들이 여름휴가를 활용해 순례길에 오른다.

한편 공불련은 2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제3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도문스님(죽림정사 조실)이 계사로 나선 이날 수계법회에서 노옥섭 회장 등 전국 공무원 불자 5백여명은 계를 수지하며 참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 후에는 진안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를 참배했다.

## 직장직능단체 지도자 수련회

### 7월6~7일 동화사서, 협의체 구성 논의

전국 직장직능단체 임원과 지도자들이 7월 6~7일 대구 동화사에 모여 수련회를 갖는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200여 직장직능단체 지도자들이 참여해 동일 직종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직능단체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신앙심 고취, 단체간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다. 또 직장법회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법회를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체험-1박 2일간의 출가'라는 주제로 발우공양, 새벽예불, 참선 실수 등 수행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독경, 108참회문, 3보 1배, 발원문 작성 및 봉안 등 신심고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재가불자의 신행생활, 채워야할 나와 버려야할 나, 종교와 직장 등에 대한 외부 강사의 강의와 토론도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400여 직장직능단체와 연합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역별 차량 배정, 참가자 접수 등 구체적인 수련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양희 주임은 "지도자 자질을 함양하고 불교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대병원·서인천 화력 파업…불자회 창립 지연

직장의 파업으로 인해 충남대학병원과 서인천화력의 불자회 창립이 지연되고 있다.

5월 28일 창립 예정이던 충남대병원 불자회는 의료보건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불자회 창립이 연기됐다. 충남대병원 불자회는 파업 장기화로 후유증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인천화력 법우회도 불자회 창립을 위해 회원 모집에 돌입, 20여명의 불자들이 가입했으나, 파업의 후유증으로 창립총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서인천화력 조창주 불자는 "빠른 시일내 직장이 안정돼 직장에서 신행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관음사 참배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사당역 인근 관음사를 순례한다. 이날 순례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재 관람과 사찰예절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법우회는 매월 회원과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하철역 인근의 사찰을 순례하는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 경산조폐창 금강회 수지침 강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2일 오후 5시20분 사내 금강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마련한다. 이날 강좌는 수지침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강연성 불자가 특별 강사로 나서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수지침 상식을 강의한다.

### 대우기계·KAI불교회 축구대회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불교법우회(회장 곽차식)는 18일 창원 외동초등학교에서 축구대회를 갖는다. 불교법우회는 하절기를 맞아 회원 친목과 체력 단련을 위해 마련한 것. 25일에는 원광스님을 초빙, 성주사 설법전에서 금강경 강의를 듣는다.


# 제 15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불교는 이천년에 접어들어 의료복지 포교에 깊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고 의료복지에 있어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에는 교육, 관리에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 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불교 의료복지에 기여하고자 정토마을에서는 제 15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각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 육 안 내

◆ 일 정 : 2002년 6월 30일 ~ 2002년 7월 7일 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스님 및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재가법사, 포교사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여 25명 ◆ 연 령 : 35세 ~ 65세 ◆ 교육수강료 : 19만원
◆ 지참물 : 공통 - 반명함판 컬러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개인 세면도구, 108염주
스님 - 가사장삼, 목탁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 원서마감 : 2002년 6월 25일
◆ 교육 후 활동 - 수료증 발급
- 한국불교 아미타 호스피스 협회에 등록되며 전국 각 병원, 가정, 기타 의료기관에서 협회의 관리를 받으며 불교전문 호스피스로서 활동

◆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 한국 불교 아미타호스피스 협회의 호스피스 교육은 국내 유명 강사진과 함께 의료복지 포교 및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 정토마을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픈 각계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단 아미타호스피스회**
**정 토 마 을 원 장 능 행 합장**



# 제2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세계로 가는 기차"

본 협회에서는 월드컵의 해를 맞아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익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이번 강습회에 함께 하시어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2546년 6월 22일(土) 오후 2시 ~ 23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교통편 안내】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하차(6번출구) 도보5분
3. 교육내용
민요와 가요가 만날때...
쿨한 찬불동요로 여름을 시원하게...
올 여름불교학교의 밤은 포크댄스로 우아하게...
월드컵송과 함께 신나는 레크댄스의 세계로...
21C 버전 세계의 명랑 운동회
내손으로 지구촌을 만들어 볼까요?
4. 참 가 비 : 40,000원 (회원은 30,000원, 군종병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본회 사무국)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 카페)

**대한불교조계종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6월-지계(持戒)의 달
- 재가불자와 계율
-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
-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 일상 속에서의 지계

## 지계없는 수행의 위험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계율(戒律)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조계사 불교대학의 계율 강좌.

4일 오후 7시 30분 조계사 교육관 2강의실. 조계사 총무 원종 스님의 강의를 한 마디로 빼놓지 않겠다는 듯, 대부분 직장인들인 80여 명의 수강생들의 받아쓰는 손놀림이 바빠졌다. 계율(戒律)이라고 하면 출가 수행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기 쉬운 풍토를 없애기 위해 조계사 불교대학이 6주 과정으로 개설한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다.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오계를 설명하면서 원종 스님은 "수계를 하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불성(佛性)의 종자를 심는 것과 같다"며 "깨달음의 씨앗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고 강조했다.

한 수강생이 "어떤 사람은 계를 안 받고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나 염불 등 수행도 열심히 한다"고 질문하자 원종 스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계 없이는 수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종 스님은 "예를 들어 미국에 가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회가 닿으면 간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간다"며 "계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계에 지계(持戒)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를 마련했고, 부산 감로사는 계율과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감로사불교대학(학장 혜총)을 개강했다. 조계사 재가수행기관인 간경원은 30여 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3개월간 〈범망경〉을 교재로 지계 실천을 교육한다.

삼귀의계 수계를 정례화하고 오계 수계에 앞서 정진 기간을 갖도록 제도화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정토법당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계를 주지 않는다. 불교대학을 1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간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비로소 오계 수계의 자격이 주어진다. 초발심 단계에서부터 수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계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쌍문동 금강사 역시 일년에 한 번, 그것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2박3일간의 정진 기간에 동참한 불자들에게만 수계의 자격을 주고 있다.

원종 스님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보고 듣는 게 모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계율이란 나를 속박시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참다운 수행으로 볼수없어

## 신행 캘린더

**6월 12일 (수)**

■한국불자연예인협의회 '1일 찻집' =대전지역 불자 연예인들이 오전 10시 대전 사모니호텔 크리스탈룸에서 '교도소 방문과 독거노인 돕기를 위한 1일 찻집' 행사를 마련했다.

불자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다양한 장기 자랑도 즐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시행을 실천해 보자.(011)659-0776

**6월 13일 (목)**

■두레생태기행 '문화답사' =두레생태기행은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모여, 인사동에서 열리는 '박천수 목조각전'과 '우승보 도예전'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의 향기를 맡아 보는 문화답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법영 화백이 동참해 목조각과 도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줄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 3천원.(02)712-5812

**6월 15일 (토)**

■천불사 '대법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명예교수 인환스님 초청법회가 오전 10시 30분 천안 천불사에서 봉행된다.

'참선수행이든 염불수행이든 깨달음을 얻겠다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불교수행의 바른 방법을 찾아보자.(041)557-3223

■육지장사 '삼천배 철야기도회' =경기도 양평 육지장사는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밤 9시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 기도회에는 서울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이 지장관법, 호흡법 등 불교수행법을 직접 지도해줄 예정이다. 삼천배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호신 만다라패가 증정된다.(02)362-6406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 상영'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 토요일 오후 3시마다 무료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다

6월달에는 15일 '알리', 29일 '로스트 메모리즈' 등 흥미진진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051)868-0750

**6월 16일 (일)**

■터사랑 '성지순례'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를 보지 않고 전라북도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꽃 문양 창살로 유명한 내소사, 선운사 동백꽃, 채석강은 전라도의 자랑. 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에 모여 성지순례를 떠난다. 참가비는 3만 8천원.(02)725-1284



◇지난달열린 길상사 '알뜰시장'.

■길상사 '법회와 알뜰시장' =서울 길상사는 오전 10시 길상사 극락전에서 회주 법정스님의 법회를 봉행하고 불우이웃 후원을 위한 '알뜰시장' 행사를 갖는다.

평소 안 쓰는 물건을 내다 팔아 불우이웃을 돕고 법정스님의 법문도 들을수 있다.(02)741-4696

**6월 19일 (수)**

■마야문화원 '절 강좌' = '절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자 1백만 불자 108배 1만일 결사를 이끌고 있는 법왕정사 주지 청견스님.

마야문화원은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본원에서 청견스님의 강좌를 마련했다. 절 호흡법과 바른 절의 자세를 비롯, 절의 의미 등 일상생활 속의 불교수행법을 배워보자. 참가비는 3만원(02)722-1050

# "신도회 어른들 모시는 일 중요"

## 우리 절 우리 신도

### 인천 보명사 하예자 신도회장



◇문수행 신도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처럼 솔선해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양간에서 음식을 만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 봉사단 '십선회' 조직 청소·공양준비
### 소방·경찰서·복지시설 위문도 앞장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는 신도회 내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찰과 가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신도간 관계 정립이 잘 이뤄져야 신도회의 위상도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건영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는 통도사 인천분원인 보명사(주지 성민) 신도회장 하문수행(59·본명 예자) 보살은 신도들간에도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간에도 대화가 드문 요즘, 사찰에서 만나는 신도들 마저 남같이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도회를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싶은 것이 문수행 보살의 바람이기도 하다.

문수행 보살의 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다른 데가 있다. 길거리에서도 외로워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면 손을 덥석 잡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그래서 사찰에 찾아오는 노보살들은 한결같이 문수행보살을 칭찬한다. 나이든 보살들에게 문수행 보살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자비행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회장님'이다.

회장 자리에 있음에도 불기를 닦고, 설거지에도 솔선하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문수행 보살의 모습에서 신도들은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다.

문수행 보살은 공양시간 만큼은 반드시 후원에서 신도들과 함께 일을 한다. 음식을 만들면서 신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신도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문수행 보살은 말한다. 문수행보살은 "신도 한사람 한사람이 언니 같고 동생 같이 느껴져 절에 오면 너무 즐겁다"며 신도들에 대한 애정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심이 깊고 사찰활동이 활발한 신도들을 모아 신도회 내에 '십선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했다. 이와함께 어머니합창단도 결성했다. 법당 청소, 공양 준비 등 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십선회는 외부 봉사활동보다는 사중 살림 봉사활동을 주로 한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먼저 사찰에 나와 법회 준비를 하는 일도 그들의 일이다.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느끼게 하겠다는 각오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3월 성민스님이 새롭게 주지로 부임한 이후 신도회는 구치소와 복지시설 위문을 시작했다. 성민스님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지만, 신도회가 10여년의 역사를 통해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신도회가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더라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 한다.

지난 부처님 오신날에는 인천 연수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떡과 과일 등을 직접 갖다 주고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이후에도 포교 활성화와 신도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문수행 회장은 신도회 차원의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수행 보살은 개인적으로도 남몰래 고아원 아이를 후원해 왔다. 남편인 김재광 거사와 함께 3년째 중학생인 한 소년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김재광 거사도 보명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부부가 같이 보명사 불교대학 1기 졸업생이기도 하다. 93년 보명사 개원 이후 김재광 거사는 새벽기도 시간이면 문수행 보살을 집에서 보명사까지 매일 데려다 줬다. 그 인연으로 김거사도 절과 인연 맺어 지금은 누구에게 지지않는 불심을 자랑한다. 문수행 보살 부부는 집에서도 매일 108배와 천수경·금강경 독경을 하며 모범적인 불자로 생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성민스님** 보명사 주지



제가 보명사 주지로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중 살림을 대부분 파악하고, 인천 신도시인 송도지역의 포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 문수행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 회장은 보명사가 개원한 93년부터 사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주 독실한 불자입니다. 보명사불교대학 1기 부부졸업생이기도 하지요. 하 회장이 소임을 맡기 전에는 남편이 보명사 신도회장을 맡을 정도로 부부가 불심이 깊습니다.

하 회장은 사찰 일이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공양간에서 또는 법당에서 솔선하여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지요. 새롭게 시작한 법당 개수불사에도 적극 동참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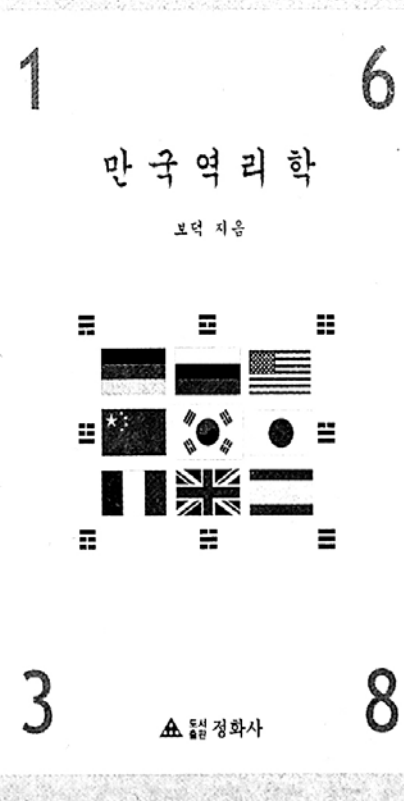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도서출판 정화사 도서안내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 칼럼집



마음의 창 (7,200원)
길따라 마음따라 (4,500원)
IMF의 고난을 창조적 지혜로 헤쳐나가도록 현실을 바로보고 미래의 진실을 일깨워 주는 21세기 자성인의 교양서

● 명상시집





해탈 (5,000원)
정화의 빛 (4,500원)
달마를 보라 (5,400원)
고향의 숨결 (4,500원)
사랑과 비움의 시 (4,500원)
순수한 구도의 열정으로 심산을 닦아 찬란한 깨달음을 이루고 진공묘유의 작용으로 중생교화를 위해 세상에 내놓은 구도와 깨달음의 명상시

도서출판 정화사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 불교대학을 찾아서

## ① 조계사 불교대학


◇초여름 날씨에도 아랑곳않고 조계사 불교대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다.

### 89년 설립…졸업생 800·포교사 300명 배출
### 교훈 성심·지혜·度生…92년부터 2년제로
### 교육표준화… '기본교리' 마쳐야 입학자격

'섭심(攝心)' '지혜(知慧)' '도생(度生)'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조계사불교대학'. 1989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800여명의 졸업생과 30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9년 조계사불교대학의 초창기는 1년제 '여성불교교양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2차례 특강을 여는 정도였다. 92년 교과과정을 현재의 2년 과정 체제로 바꾸면서 '조계사불교대학'이라고 개칭했다.

'조계사불교대학'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엄격하게 표준화된 신도교육 프로그램에 있다. 3개월마다 수강생을 엄선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불교사상까지 체계적으로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처음 개설 당시에는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본교육과정'을 1년에 2기수씩 주·야간반으로 나누어 불교의 기본교육을 시켰으나 99년부터는 불교공부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열의를 반영해 3개월마다 70명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다.

주간반, 야간반, 토요반으로 구성된 불교기본교육과정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한 〈불교입문〉을 기본교재로 불자예절, 불교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발우공양법, 불교 수행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문자를 통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의 장도 마련돼 있다. 교과과정 중 1박 2일 삼보사찰 수련회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삼보사찰 수련회는 1천 6백년 한국불교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불법을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남을 위한 보시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불교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교육 과정인 조계사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전문교육과정에는 무진장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스님, 동국대 강사 묘주스님을 비롯해, 박경준, 정병삼, 김상영 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을 초빙돼 불교개론, 근본불교, 불교사, 경전입문, 불교사회복지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올 3월부터 조계사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찰에서 활동할 불교지도자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조계사 포교계장 금은수(31)씨는 "종단 내 명실상부한 최고 불교대학을 지향하는 조계사불교대학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불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성우전자 정몽훈회장 불교대 재학
### 일주문 불사참여…부인도 함께 수학

조계사불교대학에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친조카인 성우전자 정몽훈(43·사진)회장이 다니고 있다. 정 회장은 2001년 3월 직접 조계사를 찾아와 불교 기본교육과정에 등록을 하면서 일주문 불사 참여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부인 박 씨에게 불교공부를 권유해 함께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다. 유명인사의 가족이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소박한 성격 때문에 주위 도반들도 정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

조계사 이세용 교무계장은 "회사를 경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만들어 불교공부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 전국 불교교양대학 총 260곳

### 해외교포·직장인 수강 증가추세
### 장례·비교종교학 등 학과 다양화
### 교리위주 탈피 사회교육으로 영역확대

현재 전국의 불교교양대학은 총 260여개. 1973년 대한불교대원회가 처음으로 대원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로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 그리고 사찰별로 신도교육을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해외교포와 직장인들의 수강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학과도 장례문화학, 불교한문학, 비교종교학, 사회복지학 등을 신설하여 기존의 교리위주 교과과정을 탈피, 전문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불교교양대학들의 교과과정 특성화로 집약할 수 있다. 일반 대학들도 학교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로 특성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졸업생들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기회 제공과 신행생활의 심화 등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무불선원대학원, 달마불교대 등은 '인터넷 불교대학' 분야로 특성화시키는가 하면, 서울 정토불교대학의 경우, '자원봉사' 분야로, 서울 불교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양성에, 서울 삼화불교대학은 중국남경중의약대와 연계한 '중국유학준비과' 등으로 특성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조계종포교원은 전국 42곳의 불교대학을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신도교육 강화에 종단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불교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조계사불교대학 등 3곳, 인천·경기에 봉선사불교대학 등 3곳, 강원에 원주불교대학 등 4곳, 충북에 광명불교대학 등 2곳, 대전·충남에 백제불교문화대학 등 3곳, 부산에 부산불교교육대학 등 3곳, 경남에 경남불교대학 등 6곳, 대구·경북에 대구불교대학 등 6곳, 전북에 화엄불교대학 등 3곳, 전남·광주에 광주불교대학 등 6곳, 제주에 제주불교대학, 등 2곳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주요 종단별로는 태고종의 동방불교대학, 천태종의 서울·부산 금강불교대학, 진각종의 밀교문화대학 등이 있다. 또한 거사불교 및 지역불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으로는 서울의 동산불교대학, 능인선원불교대학 등을 손꼽을 수 있고, 경남에는 통도사박물관대학, 전북에는 전북불교대학, 대구에는 영남불교대학, 법왕사불교대학 등이, 대전에는 보현불교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김철우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 '후원합시다'

### 수술비 마련못해 애태우는 유쌍자 할머니

## "병원선 하루가 급하다는데…"

### 팔 혈관 염증 당장 수술 안하면 위험
### 보조금 월12만원…박스 주워 생계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무슨 재주로 그 돈을 구하겠어?"

유쌍자(66) 할머니는 벌써 6개월째 아픈 팔을 파스와 약으로 다스리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른쪽 팔이 끊어질 듯 아프면서 팔을 들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좀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특수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돈 걱정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할머니는 수술마저도 완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한시가 급하다는 병원의 말에도 할머니는 벌써 6개월째 꼬박 꼬박 약을 타러 가고 있을 뿐이다. 병원에서는 갈 때마다 수술을 안하면 팔 혈관에 생긴 염증으로 위험하다고 겁나는 얘기만 되풀이한다.

5년 전 미끄러져 다친 허리를 2년 동안 약으로 버티다 결국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적이 있는 할머니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결국 물렁뼈 대신 쇠를 허리에 박아 넣는 수술을 하고서야 겨우 거동을 하게 된 할머니로서는 팔 수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임에도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허리 수술 때도 50만원이라 했던 당초 치료비가 합병증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200만원이나 나온 적이 있고 보니 걱정이 더 앞선다.

유 할머니는 수술에 앞서 당뇨조절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10년 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갑상선 진단을 받으면서 당뇨, 천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때 얻는 병으로 지금까지 할머니는 약 떨어질 날이 없다. 주섬주섬 챙기는 약 종류만도 갑상선, 골다공증, 천식, 고혈압, 당뇨 등 셀 수 조차 없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사는 셈이다. 가뜩이나 좁은 방을 다 차지할 듯 펼쳐진 약을 보며 할머니는 다시 심란해진다.

1종 생활보호대상자인 유 할머니의 정부보조금은 월 12만원. 그 돈으로 월세 6만원을 내고 전기세, 물세 등을 내고 나면 반찬 마련조차 어렵다. 호적이 잘못되어 나이가 실제보다 어려 보조금도 작은데다 대중교통비도 모두 내야 한다. 그래서 차비나 벌어보자고 1년 전부터 시작했던 박스 모으는 일이 할머니에게는 무리가 되었나 보다. '쌍자'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할머니는 쌍둥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 함께 태어났던 쌍둥이가 아들이어서 더욱 그랬단다. 초등학생 키만큼 작은 키의 할머니가 박스를 모으고 가져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으리라. 여기 저기 다니며 박스를 모아 봤자 겨우 몇 천원 벌이.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된 요즘, 유 할머니는 이러다 팔까지 못쓰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


◇약봉지를 펼쳐놓고 있는 유쌍자 할머니를 언니 유쳐자 할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다.

언니 유쳐자(72) 할머니는 스스로도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젊어서부터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팔 수술을 못해서 잘못될까 걱정"이라며 동생을 바로 보는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전화번호:051-628-7076 후원계좌번호:부산은행 083-02-034710-2

부산=천미희기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측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 부처님 말씀·깨침의 소리
#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 요 차 례

| | | |
|---|---|---|
| ⊙ 제 1 부 경전의 말씀 | 제 8 장 포 교 품 | 천수경·예불문·반야심경 |
| 제 1 장 서 품 | 제 9 장 구 경 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 제 2 장 교리강령품 | ⊙ 제 2 부 간추린불교 | 원각경보안보살장 |
| 제 3 장 불 타 품 | 제 1 편 부 처 님 | 화엄경보현행원품 |
| 제 4 장 신 앙 품 | 제 2 편 가 르 침 | 부모은중경 |
| 제 5 장 업 연 품 | 제 3 편 수 도 | 법성게·무상계 |
| 제 6 장 자 치 품 | 제 4 편 교 단 | 기도발원문 |
| 제 7 장 대 치 품 | ⊙ 제 3 부 독송경·발원문 | 천도법어·찬불가 |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와 과학'이란 주제로 연재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공계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과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였다. 관련자료를 보며 한동안 숙고한 결과, 이미 많은 분들이 불교와 과학 사이의 놀랄만한 유사성을 논증하며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종교다'라는 주장을 자주 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종교와 종파를 떠나 '21세기 첨단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불자들의 '과학과 불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철저한 수행자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물리학자인 동시에 간화선(看話禪) 수행자이기도 한 필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박영재 박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선도회 지도법사

1955년 11월11일 출생 / 1978년 2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1987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뉴욕 주립대(스토니부룩) 이론물리연구소 연구원 / 1989년 9월부터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저서:1994년 <죽음을 초월하는 마음의 과학>(전파과학사) 번역 / 1996년 <두문을 동시에 투과한다>(불광출판부) 지음

박영재 교수의

# 첨단 과학과 불교 ①

## 학부때 佛書섭렵…정신적 방황 끝내

## 수행참선하며 삶·학문의 목적 정립

### 물리학도와 禪의 만남

필자는 의사였던 아버지와 이웃과 정을 나누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던 어머니 슬하에서 2대 독자로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 그후 막연히 과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설립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서강대학교를 입학한 후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성적에만 집착해 화교 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와 경쟁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한 대만식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시스템의 대학 풍토에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암기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던 나로서는 매우 힘겹게 이 친구를 쫓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학부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나니, 학문과 삶에 관한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모든 일에 강한 회의가 밀려 왔다.

그 후 1년 간 혼돈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며 지내던 나는 학부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숫타니파타〉라는 경전을 읽고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독화살의 비유' 등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서적들을 섭렵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석가모니'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는 방학이 끝나자마자 불교학생회 선배를 따라 1975년 10월 18일 일반인을 위한 참선모임으로 1965년 설립된 '선도회(禪道會)'의 지도법사이셨던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노사(老師)를 만나게 되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참선으로 하루를 열고,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참선으로 하루를 닫는 일상사(日常事)에 전념하며 나의 방황기는 막을 내리고 삶의 참뜻을 바르게 새김과 동시에 학문에 관한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갔다.

이렇게 참선 수행을 통해 삶의 참뜻과 학문을 하는 뚜렷한 목적을 바르게 세운 뒤 1978년 2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1980년 2월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워낙 눈이 나빠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나는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던 가운데 학위 과정에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입자와 이들 입자간의 기본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입자물리학(粒子物理學)에 관한 연구를 하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이것을 화두 삼아 깨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씨름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문제가 풀리기도 하였는데 그 기쁨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싣곤 하여 모두 6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983년 2월 무난히 박사학위(서강대 물리학과 박사 1호)를 취득하였다. 학위를 받자마자 1983년 3월 공채를 통해 바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공 계통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내외든 어디에서 박사 학위를 했느냐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렇게 연줄이 없어도 연구 업적만 조금 좋으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이 당시 아직 종달 노사 문하(門下)에서 남송(南宋) 시대의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가 편찬한 선종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에 있는 화두들을 점검받으며 참선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부처님 뜻이라 생각된다. 또한 매주 서울에 종달 노사께 입실(入室)지도를 받으러 왔다가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론물리 세미나에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어서 최신 연구의 흐름도 계속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은 후에도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었다

## 생태파괴 2032년엔 회복불능

**2002 지구환경 보고서**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내놓은 〈2002 지구환경전망 보고서〉는 지구가 무분별한 개발 등 생태계 파괴로 날로 망가지고 있으며, 긴급 대책이 없는 한 2032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90년대에 전체 산림의 2.4%인 9400ha가 사라졌으며, 전세계 포유류의 24%인 1130종과 조류의 12%인 1183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2032년에는 전세계 땅의 3%가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생명체 70%가 심각한 파괴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지구와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해 개발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양 인식되어 자연의 파괴는 등한시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은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경>

▨"여러 생명을 잡아매어 죽이거나 괴롭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산 목숨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그 죄가 크다."
<정법념처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⑬

## 조작하지 말라

여러분! 평상(平常)하기를 바란다면 모양을 짓지 말라. 어떤 종류의 좋고 나쁨도 구별 못하는 머리 깎은 자는, 신령을 보고 귀신을 보며,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구분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빚을 갚아야 하니,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도 이런 종류의 들여우 도깨비 같은 자들에게 홀려서 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놈들은 밥값을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무엇보다도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아 얻어야,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저런 종류의 도깨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일 없는 것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니, 단지 조작(造作)하지만 않으면 바로 평상이다. 그대가 바깥의 남에게서 구하려 하고 발판을 찾아서 다닌다면 잘못된 것이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는 이름이요 말일 뿐이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서 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해야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말하고 듣는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불법과 세간법이 모두 나오고, 부처와 중생이 모두 나오며, 망상과 진실이 모두 나온다. 이와 같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인연 따라 출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인연 따라 출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도 출몰한 적이 없다.

우리는 모양과 이름을 갖춘 것들을 실재라고 여기고 그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며, 모양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모양과 이름을 갖춘 것들은 무상하게 생멸하는 것으로서 도무지 확고부동한 무엇이 없다. 믿고 의지할 만한 무엇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모양도 이름도 없는 '그것'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모양도 이름도 없지만, 오히려 모양과 이름을 모두 만들어내고 거두어들인다.

〈반야심경〉에서는 모양과 이름을 가진 것들을 오온이라 하고 모양도 이름도 없는 '그것'을 공(空)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온이 바로 공임을 밝힌다. 오온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며 많고 적은 것이며 더럽고 깨끗한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 오온을 실재라고 여기고 오온에 의지한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공이 바로 확고부동한 것으로서 의지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 보다는 공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오온이 바로 공임을 알아버리면, 오온에 의지하더라도 더 이상 허망한 망상에 속는 일은 없다.

그러면 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있다. 말로 되어 나오면 오온이고,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것은 공이다. 즉 공은 늘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모양이 있는 오온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이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파악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물론 말로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공으로 들어가서 공을 체험해버려야 한다. 성패는 간절한 마음에 있다.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 다른 어떤 방법도 유효하지가 않다. 방법은 조작이므로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할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신중재일 The day for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지장재일 The day for Bodhisattva of Suffering

The day for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first day of every lunar month): Buddhist praying for good fortune and offering rice to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신중재일(매달 음력 초하루): 불자들은 신중재일에 신중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모신다.

The day for Bodhisattva of Suffering(every 18th day of the lunar month): Bodhisattva of Suffering who made a great vow to postpone his own enlightenment until every sentient being in hell was saved. So when someone dies, the bereaved family pray to Bodhisattva of Suffering to help guide the consciousness of the dead person to a better rebirth.

지장재일(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할 때 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연기할 것을 서원한 보살이다. 때문에 유족들은 지장보살에게 영가가 더 나은 세상에서 환생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10년 노하우의 공든탑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연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합장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쪽 광장
우측 첫번째 골목으로 20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약속

■ 大후, 초 · 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연구실 : 032)346-5422
휴대폰 : 011) 288-29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순면(무늬 있는 역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 · 몸배 셔츠




7.조끼, 몸배 ₩50,000 7.셔츠 ₩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1개월분 ₩150,000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 목어 모두가 승자 됐으면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가 과연 몇강까지 올라갈 것인가? 16강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되어가고 있다. 8강, 4강도 공상이 아닌 느낌으로 다가온다. 온 국민의 염원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승부의 세계란 냉정하며, 의외의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또 이긴 쪽이 있다면 반드시 진 쪽이 있다. 한쪽의 환호 뒤에는 다른 한쪽의 슬픔이 있다. 혹 우리나라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어떨 것인가? 다행히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늘 그렇게 이기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기고 짐이 있는 세계, 그 속에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다. 그 속에는 언제나 애환의 부침(浮沈)이 있다. 그것을 사바세계의 괴로움이라고 할 것인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웃어 넘길 것인가?

이렇게 웃고 넘기며 가볍게 보는 태도를 초연한 자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냉소적인 태도야말로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승부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며,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진정으로 승부를 넘은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승부에 임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공자는 활쏘기의 다툼을 "그 다툼이 군자답다!"고 하였다. 져도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이겨도 겸양한 활쏘기의 자세를 찬양한 것이다.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결과를 떠나 오로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자세로 정의로운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긴 이(一切勝者)' 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우리 세상의 다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승부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넘어섬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근본 자세일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일단 그런 확고한 바탕에 선다면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당당한 승리를 위한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불자들의 싸움은 그래야 하고, 또 그렇게 다툴 때에야 승자와 패자가 없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 불자의 생각

### 휴가

여름휴가를 주제로 126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108명(85.7%)이 이번 여름 휴가 때 사찰 탐방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 "사찰탐방계획 있다" 85.7%

'그렇다'고 대답했고, 18명(14.3%)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사찰을 찾고 싶은 이유는 79명(69.3%)이 기도(수련)를 위해, 14명(12.3%)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9명(7.9%)이 경치가 좋아서, 8명(7%)이 조용할 것 같아, 4명(3.5%)이 기타라고 밝혔다. 또 사찰을 가지 않는 이유는 20명(55.6)이 기타, 9명(25%)이 숙식이 불편해서, 4명(11.1%)이 다른 곳에서 즐기고 싶어, 3명(8.3%)이 놀이 시설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 불자 세상보기



서명석
제주교육대 교수
교육학

# 법륜을 처음부터 다시 굴리자

때는 2002년 5월 31일 서울 상암 경기장. 월드컵 개막전 프랑스 대 세네갈.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축구 거함인 프랑스의 침몰을 지켜보았다. 이쿠테타의 주역은 프랑스로부터 오랜 식민통치의 질곡에서 풀려난 인구 1백만의 작은 국가 세네갈. 이번 중의 이변, 역시 축구공은 둥글다.

지금 온 지구가 뜨겁다. 작은 축구공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려있으니. 이 와중에 우리는 우리만의 일을 갖고 있다. 6·13 지방선거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선거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관심의 폭을 두가닥으로 확장시켜 보자. 하나는 월드컵으로,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로. 그런데 흥분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어느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6·13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99%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체 후보자의 9.1%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후보 55%가 세금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수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왜일까. 축구공은 둥글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어디로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경기가 종료되어야 아는 법. 이 때문에 지구인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리라. 어디로 축구공이 굴러갈 지는 공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은 혼자서 구를 수 없다. 공을 다루는 선수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도 공을 다루지만 그 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모른다. 여기에 묘미가 숨어 있다. 규칙에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를 한다. 축구는 공동의 작품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인 후보로 나서는 것은 혼자 하는 경기다. 즉 자신이 감독이며 동시에 선수가 된다는 말이다. 자기가 감독이라면 자신이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 볼 것이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출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 둥글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왜? 원만구족하니까. 공은 둥근 원(圓)이다. 원이 아니라면 공은 구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둥글면서 그 안은 텅 비어 있어야 그 속에다 무언가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법. 이것이 원만구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마음이 둥글지도 않으면서 또 그 안은 비어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 앞에 서서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자신은 모나 있으면서-마음 안에 자신의 영달과 명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입만 열면 나라 걱정, 틈만 나면 지역발전 운운하는 이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바람 빠진 공의 흉물스런 모습만을 연상하게 된다.

그들 마음의 공은 아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 공 속에다 남을 위하여 무엇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혈맥론〉에서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있다. "마음, 마음, 그리고 마음 하지만 찾을 길이 없다. 너 그러울 때는 우주 법계에 없는 곳이 없어 꽉 차 있지만 좁을 땐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도다. 나는 본시 이 마음만을 알려고 했지 바깥의 그 어떤 것도 구한 것이 아니다."

후보들이여, 자신 안의 그 마음부터 다시 찾아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자,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법륜을 여여하게 굴려 보라.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 사찰여름 수련회 이렇게

6월 25일 해인사를 시작으로 8월까지 송광사, 통도사, 대둔사 등 전국 30여 사찰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린다. 수련회 개최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별 참가자 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프로그램, 진행방식 등 수련회 활성화와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을 위해 수련회 경험자들의 제언을 모았다.

### 산사 체험기회 확대되길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 산사를 찾는 대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에게 산사는 휴식처이자 좋은 수행처가 될 것이다.

현재 수련회를 개최하는 대부분의 사찰은 사전접수를 통해 참가자를 결정하고 있다. 운이 좋으면 한번의 신청으로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3~4번의 실패를 거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이 보다 많아져 많은 이들이 불교와 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해인사와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해 보았지만, 두 사찰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쉬웠다. 사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특성을 살려 인경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에게 인상적인 수련회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지 (경남 마산시 교원동)

### 체험 일상생활에 접목해야

○…번뇌를 떨치려 수련회에 참가했지만, 더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곳에 가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어서 신행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1080배를 하고 난 후 느낀 성취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수련회에 다녀온 이후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련회에서 배운 수행과 불교를 생활 속에 접목시키지 못한 결과다.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이후 생활 속에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열린 수련회를 통해 배출된 대중들은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니다.

값진 수련회라면 산사 체험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회 참가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련회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대수(경북 구미시 도량동)

### 수련회 규율 엄격했으면

○…지난해 한 사찰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싱그러운 숲길을 걸으며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었던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너무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주제를 피해야 할 것이다.

또 수련회의 규율이 너무 느슨해서는 안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방에서 엄격한 규율 아래 정진하는 것처럼 사찰 수련회도 묵언정진을 꼭 지키게 하는 등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에서의 단기간 수행체험은 평생 자신의 수행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다. 수련회에서의 체험을 생활의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수련회가 끝난 후 수련회에서의 경험을 얼마나 자신의 생활로 만들 것인지는 참가자 개개인의 자세에 달려있지만, 사찰이 정기적으로 주말수련회 또는 겨울수련회를 열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김지원(강원 원주시 태장동)

### 어린이프로그램 개발필요

○…미황사에서 열린 '어린이 한문학당'에 아이를 보냈다. 뭐든 10분만 지나면 지루해하고 폭신한 침대와 수세식 변소에 길들여진 애를 산사에 보낸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주일을 보내고 온 후 아이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 뿌듯하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해지고, 햄버거나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만을 찾던 버릇이 많이 고쳐졌다. 다른 부모님들도 산사 수련회에 애들을 보내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앞으로 아이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불교의 교리를 쉽게 재미있는 게임 등을 통해서 배우거나, 회향식이 더욱 뜻깊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캠프파이어를 통해 치르거나 하면 아이들은 보다 재미 있으면서도 즐거운 수련회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좋은 인상이 남으면 오래 기억한다. 사찰 수련회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사찰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강명현(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 직장·가족위한 수련회도

○…수련회가 끝나고 바쁜 도시생활로 돌아간 나에게 산사수련회는 불교의 참 의미와 맛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스님들이 일일이 지도해 준 발우공양 등 친환경적 삶의 넉넉함과 여유도 느낄 수 있는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인이 그렇듯이 직장인들은 휴가를 맞춰 가야하기 때문에 수련회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매우 많다. 여기에 가족까지 딸려 있는 경우 이들을 이끌고 수련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직장인을 위해 사찰들은 주말 수련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한다. 또 산사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대도시 인근 사찰들은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남경동(경기 고양시 백석동)

### 어느때라도 참가할수 있게

○…여름수련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스스로 참가를 희망한 경우다. 산사에서의 생활과 수행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수련회는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신행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사찰수련회는 너무 제한적이다. 모두에게 열린 수련회가 되어야 함에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더 많은 수련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불자들은 연중 어느 때라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굳이 여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자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수준에 맞춘 강의가 필요하다. 참가자 중에는 불교에 문외한도 있고, 불교적 상식을 많이 갖춘 이도 있다. 강의실을 달리해 강의를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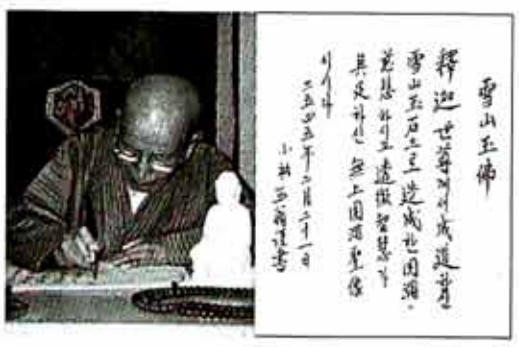
정진석(광주 서구 쌍촌동)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청년포럼'에 참석한 11개국 대표자들. 달라이 라마는 개막연설을 한후 5월 30일 저녁 에덴공원에서, 1만 5천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감동적인 대중설법을 했다.

## 세계 불교청년포럼 뉴질랜드서 열려

# 정보공유 등 3개 선언문 채택

### 제3차 대회 내년말 한국서

한국 불교계가 2004년 제7차 국제여성불교도대회를 유치한데 이어, 제3차 세계불교청년포럼(IBYF)도 개최하게 됐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와이푸나 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청년포럼에 참가하고 돌아온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WFBY KRC) 회장 선업스님은 5일, 내년 말(또는 2004년 1월) 제3차 세계불교청년포럼을 한국에서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젊은 목소리와 불자의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불교청년포럼에서는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 종서스님을 비롯한 한국대표 5명 등 일본, 대만,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 라마가 개막연설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려면 끊임없이 배움에 힘쓰고 안에서 자신을 찾는데 힘쓰라"고 설법해 청년 불자들을 고무시켰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3회 포럼의 한국 개최(WFBY KRC 주최)를 비롯,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청년 불자들은 경험, 개성,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증진에 노력한다 △세계에 다양한 불교 전통이 혼재함을 인정하고 좀더 많은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력한다 △우리는 청년 불교도의 하나됨을 위해 각기 다른 불교 전통들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해 지적 자산을 축적한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호주 불교도대회 개최 22~23일

## 고승 · 불교학자 초청, 불교정신 개발 초점


◇담마난다 스님


◇비쿠보디 스님


◇판야바로 스님

세계의 저명한 고승과 불교학자들이 설법하는 불교대회가 호주에서 열린다.

호주불교협회와 호주 불교기금(Buddhist Foundation)은 22~23일 멜버른시 캠버웰 시민센터에서 '불교-평화로운 마음을 향한 지름길'을 주제로 '호주 불교도대회'를 연다.

세계의 저명한 고승과 불교학자를 초청, 불교의 영원한 진리와 수행의 정수를 듣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정신 개발과 탁월한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설법하는 고승은 말레이시아 불교의 최고지도자이자 테라바단센터의 원장 스리 담마난다 스님, 호주 시드니 '왓 푸붓다랑시' 원장인 탐차오 쿰 마하사마이 스님, 태국의 서펜틴사원 원장 아잔 브라마빔소 스님, 스리랑카 불교출판협회 대표인 비쿠 보디 스님, 세계 최대의 불교 웹사이트인 '부다넷' 창시자인 호주의 판야바로 스님, 말레이시아 알로카 명상센터 원장 마힌다 스님, 호주 '사키야 로절 초에동' 원장인 초에다크 라마, 영국의 여수행자인 아잔 타나산티 등이다. 불교학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팔리경전협회 회장인 리처드 곰브리치 교수와 미국 치라이대학교의 불교대학장인 아난다 구루지 교수 등이다.

# 인도 쉬라바스티서 2000년전 寺址 발굴

## 부처님 설법 코살라국 유적

고고학자들이 고대 인도의 코살라국 수도였던 쉬라바스티(UP주 주도)에 소재한 2000여년전 사지에서 유물을 발굴했다고 AFP통신이 5월 30일 보도했다.

인도 고고학 발굴조사단은 "부처님은 기원정사가 있던 쉬라바스티에서 가장 중요한 설법을 했다"며 "0 번에 발굴된 사지는 부처님 재세시, 고대 인도 코살라 왕국의 수도였던 쉬라바스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베일을 벗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도자기들이 발굴됐으며, 사원의 유적들은 배수구와 벽돌로 쌓은 벽 등 뛰어난 계획 도시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불교 8대 성지중의 한 곳인 쉬라바스티에서 발견된 사지.

# 인도각지 불교개종식 잇달아

## 럭나우시 2만명 · 께랄라주 2만명 수계

## 석가족 청년불자회 3,250명에 수계증

지난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대규모 불교개종행사에 이어, 지난 5월말과 6월 초 인도 각지에서 대규모 불교 개종식이 개최됐다.

전인도 '지정카스트 · 부족연맹(헌법상 보호를 받는 최하층 카스트의 부족)'과 로드붓다클럽 측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5월 26일, 우따르 쁘라데쉬주의 주도(州都)인 럭나우(Lucknow)에서는 약 2만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수계식을 개최했다.

럭나우의 락슈만 멜라 공원에서 열린 이번 수계식의 계사는 지난 해 11월 4일 델리 수계식에도 수계법사로 참석한 바 있던 붓다 쁘리야 라훌 스님. 라훌 스님은 설법을 통해 "힌두교의 그늘에 있는 한 인도인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불교에 하루빨리 귀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델리에서 대규모 수계식을 주도한 바 있었던 우디뜨 라즈씨도 이번 럭나우의 수계식에 참석, '인도 불자의 22가지 서약'을 선창하고 새 불자들에게 연설했다.

이번 개종식을 성사시킨 주역들은 지정카스트 · 지정부족 연맹 사무총장인 자그지완 쁘라샤드(Jagjivan Prashad)씨와 로드붓다클럽 사무총장인 라훌(K. P. Rahul)씨 등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인도 남부의 께랄라 주에서도 약 2만 인파가 모인 가운데 개종식이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티루바난티뿌람에서 거행된 이 수계식 역시 지정카스트 · 지정부족 연맹이 주관한 것으로, 동 연맹의 께랄라 지부 회장인 라만꾸띠(K. Ramankutty)씨의 주도하에 계획되었다.

께랄라의 새 불자들은 랑까-께랄라 불교도 협회 회장인 밀라웨 우빠세나(Millawe Upasena)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라만꾸띠씨는 개종의 의미에 대하여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혁명임과 동시에 수백만의 달리뜨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문화적, 사회적 혁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가족 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수레쉬 짠드라 보스)도 보드가야 차크마사원 주지 프리야팔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모시고 5월 30일 이타와(Etawa), 6월 1일 메인푸리(Mainpuri)에서 각각 수계식을 열고 석가족 250명과 3천여명에게 수계증을 수여했다. 메인푸리 수계식은 조안푸르 마을의 법당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27. 구품왕생의 유래

16관법과 구품왕생(九品往生)을 설하는 〈관무량수경〉은 〈무량수경〉, 〈아미타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우며 〈무량수경〉, 〈아미타경〉과는 달리 범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관무량수관경〉은 유송(劉宋, 420-479)의 역경삼장 강량야사(Kālyaśas, 383?-442?)의 한역(漢譯)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본경의 원전은 한역(漢譯)과 위그르(Uighur)어역이 있을 뿐이다. 위글어역 〈관무량수경〉은 일본의 오타니탐험대가 트루판(高昌, 신강위그르자치구) 부근에서 발견한 단편 1장이다. 이 문건의 연구와 해독에 의하면 〈관무량수경〉 제10 관음관의 한 부분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의 당음(唐音)을 위글어로 음사한 Kuan-si-im-Pusar이라는 단어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역〈관무량수경〉의 위그루어 중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글어 〈관무량수경〉단편조차도 범본이 아닌 한역 경전을 원본삼은 번역인 것이다.

이 경의 서장은 마가다의 국왕 빈비사라의 아들 아사세가 악우 데바닷타의 유혹에 빠져 왕위를 찬탈하고자 부왕 빈비사라를 일곱겹의 감옥에 감금하는 반역으로 시작된다.

유폐된 위제희는 근심과 슬픔으로 초췌하게 되어 멀리 기사굴산에 있는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구원을 호소하자 세존은 목건련과 아난을 보내어 위제희를 기사굴산으로 데려온다.

그때 세존은 미간에서 금색광명을 발하여 시방무량세계를 두루비추고 다시 불정(佛頂)으로 거두어들여 머물게 하자 금색의 대(臺)로 변하여 수미산과 같이 되며 시방제불의 정묘국토(淨妙國土)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위제희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그러나 위제희는 "저는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계신 곳에 나기를 원하옵니다"라고 말했다. 세존은 서방극락세계에 나고자하는 자는 삼세제불의 정업정인(淨業正因)인 세가지 복업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고 일상관(日想觀),수상관(水想觀), 보지관(寶地觀), 보수관(寶樹觀), 보지관(寶池觀), 보루관(寶樓觀), 화좌관(華座觀), 상상상(像想觀),진신관(眞身觀), 관음관(觀音觀), 세지관(勢至觀), 보관(普觀), 잡상관(雜想觀)의 13정선관(定善觀)과 상배관(上輩觀), 중배관(中輩觀), 하배관(下輩觀)의 3산선관(散善觀)을 설한다. 이를 모두 합하여 〈觀無量壽經〉의 16관행, 16관법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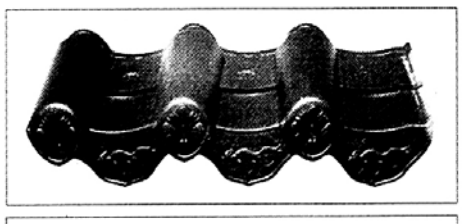
특히 산선3관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품(品, 根機)과 생(生, 往生)을 상배 중배 하배로 나누고 다시 각각 상중하 3품으로 구분하는 구품왕생(九品往生: 上品上生, 上品中生, 上品下生, 中品上生, 中品中生, 中品下生, 下品上生, 下品中生, 下品下生)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상생은 대승의 가르침을 닦는 범부로서 지성심(至誠心) 심심(深心) 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을 발하여 용맹정진하는 대승상선의 범부이다. 상품중생은 대승차선의 범부, 상품하생은 대승하선의 범부이다.

중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소승을 닦는 범부로서 3복 가운데 주로 계복(戒福)을 닦으며 중품상생과 중품하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는 불교이외의 선을 닦는 사람으로서 삼복 가운데 주로 세간적 복을 실천하며 하품하생에 해당한다.

본경에서는 이와같은 삼배구품관을 기준으로 행자의 생전인행과 왕생관법, 왕생후과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구품왕생사상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범본이 현존하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도 구품왕생의 사상을 암시하는 내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전의 연구에 공력을 쌓은 전문가들은 본경의 구품왕생은 〈漢書〉 '古今人表'에 보이는 인물의 9등급 분류(品第) 및 조위(曹魏)시대에 처음 사용된 관리등용법인 '구품관인지법(九品官人之法)'의 제도를 배경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구품왕생단이 고대중국의 관품제도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현재 유력한 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9는 서방 금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궁극의 숫자이다. 9는 3의 세곱수로서 3배확대의 원리(천지인)에 따라 완성의 원리를 표현한다. 〈주역산경(周易算經)〉에서는 九九八十一이 萬이라고하며 즉 모든 것의 끝,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생의 숫자가 되기도 한다.

▨ 경학회 회주


#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기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부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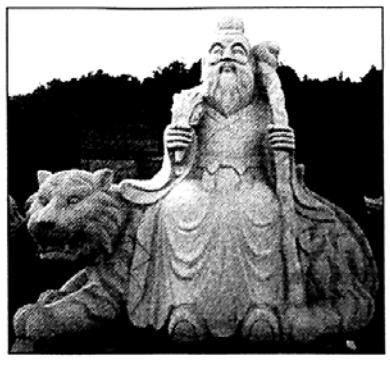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1737-0695
팩스 : 021737-0696

# 전문직 은퇴 불자들 자원봉사로 '제2 인생'

2002년 현재 65살 이상의 노령 인구는 대략 377만여 명. 전체 인구의 7.9%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셈이다. 시간은 많고 마음은 젊고 아직도 의욕이 넘치는 '노인 아닌 노인'들이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전문직 은퇴자로 결성된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이 5월 14일 서울 지역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로 봉사단 발족이 확산된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전문직 은퇴자들 중에는 불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 노인들은 고리타분할 거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단호히 'NO'.

은퇴 후 그동안 쌓아 온 경륜과 전문성을 되살려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동용화(79·외국어 자원봉사), 박상현(64·한문강의 봉사), 탁정숙(65·상담자원봉사) 씨를 만났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5월27일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서울지역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 ■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이란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교육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축적한 퇴직자가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봄자는 '제2의 인생'을 자원봉사에 매진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현재 '평생교육 자원봉사단'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00여 명의 전문직 퇴직자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집정원은 1500명.

이 번에 교육받는 전문직 퇴직자들

## 주부·장애인 대상 법률상담 등 활동

5월 27일에는 서울지역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교육이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 항공대학 비행원장을 마지막으로 47년간 봉직 생활을 마친 이종은 씨(73·성북구 상월곡동)와 교사로 정년퇴임한 권혁진 씨(71·중랑구 중곡동) 등 이 들은 각 지역 복지관 등에서 노인이나 가정주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컴퓨터교육, 무료 법률상담, 성폭력상담, 금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ncle.kedi.re.kr)에서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동용화(맨 오른쪽) 씨.

## "봉사활동으로 불심 깊어졌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외국어 봉사회 동용화 씨

미국 본토 발음을 구사하며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사례를 발표하는 동용화 씨(79·인천 부제2동). 매주 수요일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외국어봉사회'의 공부모임이 있는 날. 회원들이 동 씨 발표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 이곳 봉사회가 외부기관에 의뢰받아 번역한 서적만 영서 1권, 일서 3권, 웬만한 수준의 대학 연구소 뺨친다.

모임을 할 때마다 신선한 자극을 받아 오히려 삶의 활력소로 되돌아 온답니다."

95년 미8군 501 군사정보대 인천지구대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동 씨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동 씨는 2002한일 월드컵 자원봉사

### 조계사·동대문 등서 외국인 안내

40명의 '외국어 봉사회'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73세, 막내 회원 나이는 61세다. 이곳 봉사회에서 '젊은이' 소리를 듣는 동 씨는 사례발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영어사전을 끼고 다닌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불교 문화 서적까지 임원이 뒤지기 일쑤다.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외국어 봉사활동 자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회원들의 외국어 구사실력은 수준급입니다.

자 선발 시험에 응시, 당당히 합격해 동대문관광안내소에서 매주 화요일 5시간씩 통역봉사활동을 하고, 또 목요일에는 4시간씩 마포구청 외국인 안내소에도 나가고 있다.

'외국어 자원봉사 활동으로 불심이 깊어졌다'는 동 씨는 또 다른 원을 세웠다. 조계사 외국인 안내봉사 활동만큼은 기력이 있는 한 봉사할 각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 "가진 능력 녹슬기전 회향"

한문·서예 강의하는 박상현 씨

나이 64세, 전직 구청 재무국장, 은평구청 불자회 '불심회' 회장 3년간 역임, 〈소학필사교본〉 등 집필 저서만 총 10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당교실 4년 봉사, 서예대전 입상만 9번 등등….

박상현 씨. 그의 이력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 씨, 퇴직 후 곧바로 한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 은평노인복지관서 화요일마다 봉사

데로 뛰어들었다. 96년 재직시 구청 직원들에게 한자교양교육을 담당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계기가 됐다. 이후 박 씨는 매주 화요일 1시부터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4년째 한문강의와 서예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더 녹슬기 전에 회향해야 겠지요. 남에게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짱!" 서예 강사 박상현(왼쪽에서 두번째) 씨가 습작 시범을 보이자, 수강생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탁정숙 씨는 전직 교사출신이다.

## "말벗돼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능인복지관 상담자원봉사 탁정숙 씨

"여보세요. 능인복지관 상담실입니다. —신앙상담을 원하시고 있군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4일 강남 서초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3층 상담실. 전화벨 소리가 율리기 무섭게 수화기가 노보살의 손에 들려진다. 문틈 사이를 넘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자의 목소리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풍긴다.

래도 탁 씨는 언제나 싱글벙글이다.

"자원봉사라니요? 저는 다만 자원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태여 '봉사'라고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1958년 현 서울교대 전신인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교편을 잡아오던 탁 씨가 상담활동

### 92년부터 서울 자비의전화 상담 맡아

'말벗지기' 탁정숙 씨(65·서초구 방배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면 이곳 복지관 상담실에 출근을 한다. 6시간 동안 전화상담에 매달리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 게다가 전남, 서울 '자비의 전화'가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오후5시부터 4시간 동안 상담을 하다보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러기를 벌써 10년 째, 그

에 뛰어든 것은 지난 83년부터. 평소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던 탁 씨는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기초상담교육을 받고, 92년부터 서울 '자비의 전화' 상담을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매일 새벽 5시면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여는 박씨. 한 배 한 배 하면서 박씨는 '모든 문제는 늘 자기에게 있다'고 참회한다.

육임래정비법
六 壬 來 情 秘 法
좌정용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秘奇書! 휴대용 1,500,000원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허루체박 끼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
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가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정, 점작, 묘지, 개혼 시항 등을 빠짐 없이 실었습니다.

■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할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당일배달 : 정현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명란 도서출판 복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효사육임강의록교재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효사육임강의록」 300,000만원 출시!



##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 법화경 ⑳ 권지품 제13

#### 법화경 전법자 박해

〈법화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받는 박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경에는 미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험악한 세상에서 받을 것이라고 설해져 있으나, 현실로는 신흥의 〈법화경〉을 신봉하는 집단이 실제로 만난 수난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천태종의 6조(六祖) 묘락대사(妙樂大師) 감연(湛然)은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에 그 박해를, 박해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1. 속중증상만(俗衆增上慢)— 이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재가의 사람들로서 잘난 체 뽐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법화경〉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정법을 홍통하는 사람들에게 악구(惡口), 잡언(雜言), 중상(重傷)하고 꾸짖고 험뜯고 욕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

2. 도문증상만(道門增上慢)— 도문이란, 출가한 사람들로서 잘난 체 우쭐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삿된 지혜를 갖고 그 심근(心根)이 삐뚤어져 있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쳤다고 생각하며 우쭐대는 사람들이다.

3. 참성증상만(僭聖增上慢)— 참성이란, 실제로 성자(聖者)가 아닌데도 그 분수를 넘어 성자의 흉내를 낸다는 뜻으로서 성자인 체하며 우쭐대는 출가자를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인적 없는 조용한 곳에 살며 누더기 옷 걸쳐 입고 스스로는 진실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경멸한다.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세속의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성자인 체하며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부처님처럼 공경 받고 있다."

이상이 세 종류의 박해자인데 이들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며 위해(危害)를 가하고 승원(僧院)에서 추방시키는 것이다. 박해자들이 말하는 비난의 말은 "〈법화경〉 신봉자들은 제멋대로 경전을 만들어 세상에 넓히며 외도의 가르침과 같은 것을 설하여 세상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은 부처가 된다' 고 하는 삿된 견해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법화경〉 신봉자들에 가해지는 박해의 원인은 〈법화경〉의 내용 그 자체에 있다. 〈법화경〉이 스스로를 '비설(秘說)' 이라 부르고 있음은 아직 세상에 용납되지 않고, 더욱이 그 내용이 출가수행자뿐만 아니라 속인들도 놀랄 만큼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란 〈법화경〉이 설하는 1불승(一佛乘)의 가르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많은 가르침은 실제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가르침, 즉 방편(方便)이며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한다면 종래의 출가자는 놀라고 분노하며 〈법화경〉을 외도의 논(論)이라고 배척할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다.

〈법화경〉은 이와 같이 하여 가해지는 박해에 대해 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뿐더러 인욕의 갑옷을 입고 참고 견디며 가르침(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 법을 설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말하고 있다.

일본의 니찌렌(日蓮)스님은 〈법화경〉을 넓혔기 때문에 사도(佐渡)로 유배되는 박해를 받았고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 '권지품' 20행의 게송을 특히 중요시하여 말하기를 "지금 니찌렌은 말법(末法)에 태어나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다섯 글자(五字)를 넓히려다 박해를 받는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2천 2백여 년 동안 실로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도 일체 세간에 원망이 많고 믿기 어려운 경문을 실천하지 않았도다. 자주 몰아낸다는 명문을 봄(見)은 오직 니찌렌 나 한 사람 뿐"이라고 하며 경문을 몸으로 읽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감연대사(湛然大師)가 열거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세 종류(三類)의 강적(强敵)"이라 하고 "당세(當世)에 세 종류의 강적이 없다면 누가 불설(佛說)을 믿고 받아 간직(受持)하겠으며 니찌렌이 없으면 누가 〈법화경〉을 펴겠는가"고 하며 자신이 법화행자(法華行者) 즉 실천자(實踐者)라는 자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법화경〉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실상(實相)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설정사 조실

## 감연대사, '3종류 박해자' 열거
## 신봉자 비방·危害·승원서 추방



미얀마의 전설적인 고승 마하시 선사의 수제자인 우빤디따 스님은 1988년 한국에 위빠사나를 처음 전했다.

# "번뇌없애는 길은



## 가까이서

## 우 빤디

### (미얀마 빤디따라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다 싸(존귀한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 스님) 법당. 미얀마 대사관의 고위 무관(武官) 부부와 미얀마 근로자 300여명 등 3000여 불자가 미얀마에서 온 우 빤디따(빤디따라마 수행센터 원장) 스님의 법문을 듣기에 앞서, 삼귀의례를 올리고 있었다.

지난 달 18일 보리수선원의 초청으로 내한한 우 빤디따 스님은 현대 미얀마의 고승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마하시(1904~1982) 선사의 뒤를 이어 제 2대 마하시선원장을 역임한 고승. 스님은 올해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전법여행을 펼치고 있었다. 우 빤디따 스님은 5일까지 보리수마을의 수행처인 천안 호두마을에서 위빠사나(vipassana, 관법) 집중수행을 지도하는 일정 중에 특별히 미얀마인들과 불자들을 위해 이날 법문을 하게 됐다.

우 빤디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지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릴 것, 그리고 마음챙김(sati)을 통해 (몸과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릴 때 반드시 분명한 앎을 지닐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켜나가면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면서,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마음챙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빈틈없이, 항상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Dhamma)은 바로 불방일(不放逸, appamada) 즉,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이 불방일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른 방법을 알고 실제 수행함으로써 마음이 한 단계 높게 향상된다는 우 빤디따 스님은 "원칙대로 보고,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진다"면서, 수식관의 일종으로서 복부에 의식을 집중하고 알아채는 방법을 직접 따라해 보도록 했다.

"편한한 자세로 앉은 후 등을 90도로 펴고, 두손을 살며시 얹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마음을 배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십시오. 호흡은 평상시처럼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면서 팽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나가므로 점점 꺼짐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풍대(風大)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말로써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배가 꺼지면 '사라짐' 하고,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움직임을 보십시오.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배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치되도록 집중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에 알아차림과 노력함이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해 질 것입니다."

### 현재를 말법시대라 생각안해
### 수행자 있는한 불법은 지속돼

우 빤디따 스님은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로 들면서 마음챙김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활발하면서도 대상에 직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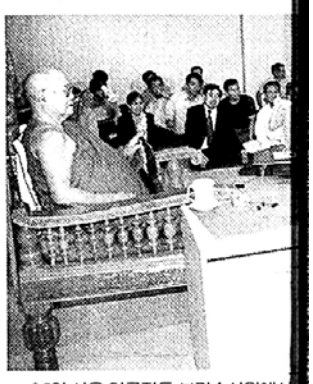
"마음챙김은 대상으로 뛰어들어 가야하며, 완전하게 대상을 뒤덮어야 하고, 대상으로 파고들어 가서 그 대상의 생겨남과 지속함과 소멸하는 과정 전부를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챙김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수행에 빠른 진전이 보장될 것이며, 수행의 완성과 더불어 열반을 보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대념처경〉에 나타나 있는 신(身, 몸의 움직임), 수(受, 감각), 심(心, 마음의 움직임), 법(法, 생각의 대상) 등 사념처(四念處)를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관(觀)' '정견(正見)' 등으로 번역되며, '밝게 비추어 본다' 또는 '꿰뚫어 본다'는 말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빠사나는 '사념처, 즉 온갖 대상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위파사나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88년 거해 스님의 안내로 우빤디따 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 스님이 체계화한 위파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하면서부터다. 우빤디따 스님의 이번 한국방문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과는 인연이 깊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을 친견해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이모저모를 여쭈었다.

◆큰스님께서는 미얀마의 고승인 마하시 스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마하시 선사가 미얀마의 500여 수행센터는 물론 전세계에 전한 '마하시 위빠사나'는 어떤 가르침입니까.

"마하시 위빠싸나의 특징은 좌선할 때 호흡에 동반되어 생겨나는 복부의 움직임을 일차적인 마음챙김(念)의 대상으로 삼는 점입니다. 즉, 〈대념처경〉과 〈청정도론〉에서 제시된 수행법 가운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하시 수행법은 또한 좌선과 행선(行禪)에 동일한 비중



◇2일 서울 압구정동 보리수선원에서 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문하고 있다.

을 둡니다. 행선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걷는 동작에 마음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여기에는 몸의 모든 동작이 포함됩니다. 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깨어 있는 시간 전체가 수행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수행자의 수행과정을 매일 지도법사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법에 의한 집중적인 수행은 결과적으로 수행자 자신의 빠른 수행의 진전


# 광고에 내신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십시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 업 체 명 | 제 품 명 | 아칸토사이드D 함량(㎍/g) |
|---|---|---|
| (주)수신오가피 | 수신토종오가피차 골드 | 153.150 |
| (주)한국자연과학 | 함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 20.597 |
| (주)한국자연과학 | 함박재 가시오가피헤피니스 | 9.414 |
| (주)바이오젠코리아 | 고려가시오가피 | 19.658 |
| 파진바이오(주) | 경희가시오가피 | 30.848 |
| 고려한백인터내셔날 | 실크오가피Q | 검출안됨 |
| 대전충남엽소농협 | 토종가시오가피 | 검출안됨 |
| 고려인삼과학 | 토종아생가시오가피 | 17.093 |

※상기함량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 업 체 명 | 제 품 명 | 아칸토사이드D 함량(1회복용분) |
|---|---|---|
| (주)수신오가피 | 수신천사토종오가피 | 6129.749 |
| 파진바이오(주) | 진생성장원 | 697.461 |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입니다.

진실은 꼭 승리한다고 믿으십니까?
저희는 이 당연한 진리를 믿고 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함박재농장 강훈구씨에게 묻습니다.
허위광고이므로 저희 광고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는 지금 광고가 사법부의 판결을 어기고 있습니까?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저희 광고에 대한 판결이 나왔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시험기관과 시험일자등 몇몇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광고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 실험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 무엇이 두려워 이를 기재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실에 근거한 저희 실험결과를 알려드릴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은 농축하고 귀사제품에는 물을 먹였다구요?
국립대학교, 국가공인기관, 제약회사에서 실험했음을 법원에서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광고에 내신 이 무책임한 발언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일반오가피라는 품종이 있습니까?
가시오가피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17종의 오가피품종의 하나일뿐입니다. 나머지 16종을 모두 묶어 일반오가피라고 지칭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언제 누가 발표한 연구에 근거한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양측의 농장을 비교하자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행히도 귀하는 천안시 수신면에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공개한 농장만이 전부라고 믿고계신 모양입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100여만평 규모의 저희 농장을 이번기회에 소비자단체, 각 일간지 기자분들, 가능하다면 방송국기자분들까지 초빙하여 공개하겠습니다. 귀하의 농장도 이분들께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연락드릴테니 그 결과를 숨김없이 소비자분들께 공개할 것을 꼭 약속해주십시요.

**온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첫승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우리의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음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6강 진출도 반드시 이뤄내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좌측에 기재한 실험결과를 보시고 소비자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제품을 전세계에서 모여든 축구강국들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태극전사들에게 제공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기재한 실험결과는 저희 (주)수신오가피에서 충북대학교에 의뢰하여 2002년 5월 29일 실험한 결과입니다. 각 제품들은 해당회사에 전화로 주문을 하여 택배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였고 이를 오가피의 지표물질인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분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공한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 제품의 생산시기, 사용한 오가피가 몇 년생이며 언제 채취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저희는 저희 실험실은 물론이고 국립대학교, 제약회사,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품질은 정직한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일을 시작한 제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수신오가피 대표,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 광 수 올림.**

**문의전화 (02) 447-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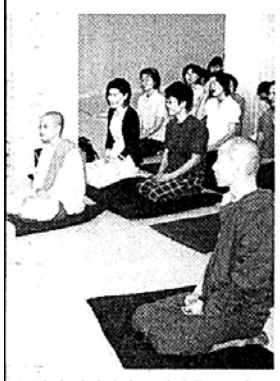
# 마음챙김' 에"

## 큰스님

## 스님

수행센터 원장)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하시 스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적에 나는 가르침은.
오늘 법문한 4념처에 대한 빈틈없
마음챙김(sati)이자, 바로 불방일(不
逸, appamaada)의 실천입니다. 스승
은 아빠마다를 솔선해서 행하셨고,
에도 권유했습니다. 아빠마다는 할
은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 않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버
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
빈틈없는 마음챙김이 유일한
입니다."
▶큰스님께서는 90년대 이후부터
구에도 불구하시고, 전 세계로 전법
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같은 원력



스님이 미얀마인 300여명등 3000여 불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마하시 큰스님이 외국 수행자들의
성에 의해 전법여행을 다녔듯이, 저
시 큰스님의 뜻을 이어 해외전법에
서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자 하는
공덕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1988년 거해스님
함께 한국을 방문해, 처음으로 국내
위빠사나를 전수한 것으로 알고 있
니다. 당시와 지금의 소감은.
오늘 법회에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빠사나

미얀마 위빠사나의 해외 전법은 마하시 스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수제자인 우 빤디따 스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미얀마 내의 500여 수행센터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지아, 네팔,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다.

1921년 7월 28일, 현재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서 태어난 스님은 7세에 처음으로 사원교육을 받기 시작해, 초급과 중급 과정의 빨리경전 구술시험을 통과했다.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 후, 여러 스승 아래에 본격적인 교리연구를 시작, 1951년에 실시된 법사(法師, Dhammacariya)시험에 합격한다. 29세가 되던 1950년, 드디어 마하시 스님의 지도하에 위빠사나 수행을 닦는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된 제 6차 상좌부 경전 결집 때에 우 빤디따 스님은 경전의 교정을 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59년, 마하시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로 건너가 새로 건립한 위빠사나 센터에서 3년 동안 위빠사나 지도를 한 후, 1962년에 귀국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마하시 수행센터' 원장…美·영·한국등서 위빠사나 지도**

1982년 8월 마하시 스님의 입적 후, 마하시 스님의 뒤를 이어 우 빤디따 스님은 마하시 수행센터의 원장에 취임했다. 그 후, 1990년 10월 마하시 센터를 떠나 마하시 센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이 세워진 수행센터 빤디따라마의 원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해 왔다.

수행자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또한 수행자들은 예전보다 진지해졌고,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방불교의 일부에서는 계율을 소홀히 하고,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남방불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수행이든 단 5분만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세요**

"나는 대승불교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위해 이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상좌부 전통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와서 수행해보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 북방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선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얀마에 오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미얀마는 위빠사나 전통이 가장 강한 불교국가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라한이 많이 출현한 것으로 압니다.

"실제 누가 아라한이었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아라한의 경지가 묘사되어 있지만,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말하지 않는한 실제로 그 경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설사 깨우쳤다 하더라도 아라한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아라한이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는 길을 묵묵히 걷는 수행자들은 많습니다."

◆북방불교, 예를 들면 선종은 사마타(samatha, 선정)를 중요시 합니다. 위빠사나(vipassana, 통찰)에서도 사마타를 중요시 하는가요.

"마음집중, 평온, 고요함을 의미하는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는 카니카 사마디(khanika-samadhi, 순간 삼매), 우빠짜라 사마디(upacara-samadhi, 근접삼매), 아빠나 사마디(appana-samadhi, 安止定) 등이 있습니다. 이중 위빠사나 수행에서 필요한 사마디는 순간적인 마음집중을 의미하는 카니카 사마디입니다. 이는 관찰 대상에 한 순간 한 순간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마음집중으로, 이런 마음집중이 생길 때 오온(五蘊)이 극복되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은 정신과 육체의 과정을 그 참된 본질에서 올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마타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마타는 마음과 몸에 대한 지속적이며, 끊어짐 없는 마음챙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간화선에선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꿀 때도, 숙면(熟眠) 때도 공부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위빠사나의 마음챙김은 꿈 속에서도 가능한가요.

"잠 잘 때는 대상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잠잘 때 알아채는 식(識)은 있지만, 알아채는 힘이 미약합니다. 위파사나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잠에 빠지기 전에 하라는 말입니다. 수행할 때 졸음을 주시해 잠이 오는 의도함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닦는 사념처관을 통해 문득,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질과 정신이 항상(恒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불변의 근본은 있습니까?.

"열반을 빼고는 모든 것이 조건이 생겼을 때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카라(sankhara, 조건지어져 있는 사물)는 원인이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나고, 원인이 소멸됐을 때 사라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통력이 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신통이 있는 고승들이 적은 것은 선정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까.

"탐진치가 많아 수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신통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지 3천여년이 다가오면서, 불법도 말법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는 말법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불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있는 한 불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불자들을 위해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법문 주제와 같은 '불방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부지런함에는 계정혜 3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불방일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꿰뚫어 보는 앎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30년전 어느 날, 담마토크 시간에 한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루 수행해 보고 질문을 하라'고 말이죠. 그 제자는 그후 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을 보고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월스님



비구의 생활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의식주에서 수도하는 일까지 어떤 것도 남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인색해지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를 경계하여 일찍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머리를 스스로 깎지 말지니 서로 부탁하여 상대방의 머리를 깎아 주도록 할 것이니라." 이것을 어기면 가벼운 죄를 짓는 것이니 참회해야 한다고 율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비구는 한 달에 두번씩 고개를 숙이고 "머리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하심하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머리를 무명초(無明草)라 한다. 무명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로 인해 허영심이 일어나고 자신을 망각하며 업장을 짓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의 풀은 미리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대중생활에서 삭발은 중요한 의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는 한 달에 두번은 삭발을 해야 한다. 겨울에는 온도를 맞추어 대야에 물을 준비해 놓은 뒤 무릎을 꿇고 '스님, 삭발 준비되었습니다' 알리면 아무리 구참 선배라도 신참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부탁합니다' 라고 해야 하며, 깎고나서는 서로 마주 보며 '잘못되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하고 합장하는 것이 예의다. 무명의 풀을 끊어주니 고맙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신도가 찾아왔다. 영명사로 절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다니던 대구의 절은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가슴이 답답했다. 절에 찾아온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업신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요, 당신은 업신여김을 당했으니 그것을 참고 더욱 하심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절에 다니면서 업장만 짓게되는 수가 있다. 시주를 조금 낮게 하였다고, 혹은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처음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 서운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절에 다니면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접받으러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절에 다니는 것 아닌가. 부처님과 스님을 대접하고 일체 중생을 따뜻이 대접하기 위해 절에 다녀야 옳다. 염불하고 절하는 등의 수행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지월스님께선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일생을 사셨지만 인욕과 하심으로 갑옷을 입으셨고, 지혜와 자비로 방패를 삼으신 분이었다. 도량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지만 비굴하지 않으시어 주인 같으셨고, 총림의 주지라는 높은 직책을 맡으셨지만 교만하지 않으시어 항상 초심행자 같으셨다. 스님은 항상 도량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하시다가도 사시마지(巳時摩旨) 때가 되면 법당에 들어가셔서 축원을 하셨다. 그 축원하시는 음성이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간절하시던지 나는 그때의 감동을 지금까지 가슴에 지니고 있다. 내가 법당에 올라 축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월스님의 축원하시던 모습을 회상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고 싶어 한다.

나는 80년대 중반에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십칠팔 년만에 귀국했다. 귀국하여 글을 쓰는 첫 인연으로 〈스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내가 만났던 훌륭하신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수행을 돌아보고 싶었다.

**인욕·佛心·지혜·자비의 일생**

**"왜 출가했나" 자기성찰 강조**

나는 한국을 떠나던 당시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 한국과 우리 승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졌다. 사찰은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불사는 대형화되었다. 절이 커지고 대형화된 불사가 많아진 것은 불교 외형의 변화일 것이다. 불교 외형의 변화만큼 우리 수도자의 내면 수행도 깊어졌는가 묻고 싶다. 수도자가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면 민중은 등을 돌리게 된다. 수도자가 자신의 안일에 빠져 있거나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 있다면 민중과는 거리가 멀다. 민중을 의식하지 않은 종교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다. 학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고려불교가 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참회, 끝없는 원력과 자비, 그리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없이는 수도자의 생활은 한낱 허식에 불과하다.

지월스님께선 대중이 모여 떠드는 곳에는 항상 소리없이 다가와 경책해 주셨다. "그만 마음을 '이뭣고'로 돌립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출가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기 손으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내가 왜 출가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다. 민중들이 '당신들은 왜 출가했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끝)

▩ 구미 영명사 주지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송월스님 특유의 필체로 쉽게 풀이하여 우리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筮)로써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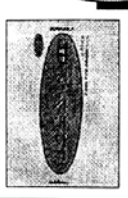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정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坪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법류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법류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설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택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삽풀이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세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옷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불교·천주교 등 7대 종교 작가 161명 참가*

# 월드컵기념 종교 미술제

**불교작품 '참 좋은 인연 … ' 등 모두 27점**

**한국화 8점 · 조각 7점 · 판화 '미황사' 등 볼만**




◇수안 스님의 선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월드컵을 기념해 종교미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7대 종단에 속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월드컵기념 대한민국 종교 미술제'란 이름으로 얼굴을 맞댄 이들은 7대 종교의 대표적 작가들이다.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열리는 종교예술제중 월드컵 기간동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종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미술제만 따로 떼어 마련한 자리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주최로 올해 제 6회째를 맞는 미술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를 대표하는 미술작가 161명이 종교성이 내재된 작품을 선보인다.

기성 유명작가 보다는 중진과 신예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전시되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화와 서양화, 문인화, 서예, 판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종교미술을 접할 수 있다.

총 27점이 전시되는 불교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수안 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를 비롯해 승오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원성 스님의 '서원의 탑' 등 한국화 8점과 영인 스님의 '은해사 계곡', 오병욱씨의 '송림' 등 서양화 4점이 벽에 걸린다. 또 이상배씨의 '관음보살좌상', 진철문씨의 '선(禪)에 든 비행기' 등 조각작품 7점도 전시된다. 이의에도 석주 스님의 서예작품인 '세계일화(世界一花)', 판화가 홍선웅씨의 '미황사',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디자인 작품 '한국의 청소년 어제, 오늘, 내일'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다.

운영위원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술과 선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서로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다르지 않다"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각 종교의 신앙과 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을 각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2시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판화가 홍선웅씨의 '미황사'.

갤러리 라메르 3층에서 남궁진 문화부장관과 각 종교의 지도자, 출품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음악, 문학 등에 걸쳐 다양한 예술 행사를 펼치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는 10월 14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된다.(02)766-4776

---

'동승'을 주제로 한 토우(土偶) 전시회가 월드컵 기간 동안 열린다.

생활도자기와 토우 작업 등을 주로 해온 허경혜(50)씨는 '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토우전을 오는 11~20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마련한다.

동승의 출가부터 울력과 차담, 공부, 기도 등의 산사생활을 형상화한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08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섭씨 1200℃의 가마에서 구워낸 허씨의 작품들은 경남 산청의 거친흙인 '산청토'를 재료로 동승의 모습과 표정을 해학적으로 질감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릎을 꿇은채로 손들고 벌서고 있는 동승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애처로움을 넘어 천진난만한 모습에 참던 웃음마저 터진다.



◇동승들의 모습을 표현한 토우 작가 허경혜씨의 '동승 토우'.

## '동승' 주제 토우展 '산사이야기'

## 절에서의 일상생활 형상화 108점 선뵈

'토우'란 원래 흙으로 만든 인형을 뜻한다. 하지만 대개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물이나 생활용구, 집 등 모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본떠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전시회에 앞서 이번 작품들을 둘러본 최추자 교수(신라대 미술학과)는 "무엇하나 덧첨하거나 애매한 기교없이 흙 그대로에 작가 고유의 손놀림으로 살아숨쉬는 동승들의 표정을 담아낸 것이 압권"이라고 평했다.

허경혜씨는 "동승들의 이번 바깥 나들이(?)는 지리산 금수암에서 하루 3천배씩 3 · 7일 기도를 한 인연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양산 대성암에 모실 5백나한을 만드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 '동승'에서 동자승 도념이 물을 나르고 있다.

## 9월 개봉 앞둔 영화 '동승'

## 국제영화제서 초청 잇달아

최근 후반 마무리 작업을 완료해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동승'에 국제영화제 초청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영화 '동승'은 7일부터 열리는 상하이 영화제를 비롯해 8월 캐나다 몬트리올 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문,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로카르노 등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또 베니스와 카를로비 바리, 산 세바스찬 등 주요 영화제에 출품 예정이며, 독일과 스페인의 국영방송, 일본 NHK 에서도 판권 구매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김태진 分)과 젊은 스님 '정심'(김민교 分)의 눈에 비춰진 속세의 모습을 조명한 영화. 특히 '동승'은 불도의 공간인 사찰을 비롯해 한국의 자연을 청저히 자연광에 의해 촬영해 영상미가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경중 감독은 "'동승'의 잇달은 국제영화제 초청은 칸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해 우리나라 영화의 진가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여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일부 사찰 시사회에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

축구는 각본없는 드라마다. 이에 반해 영화는 치밀한 각본과 구성을 필요로 하는 감동이 있는 드라마다.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감동과 웃음으로 인생을 얘기하는 축구영화. 월드컵에서 첫 승을 따낸 한국대표팀의 선전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삶은 축제만으로 계속될 수 없다. 월드컵 경기사이,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해 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다.

1981년 존 휴스턴 감독이 만들고 축구황제 펠레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승리의 탈출'은 휴머니즘을 매개로 축구와 영화를 교묘하게 접합한 수작으로 꼽힌다. 2차대전 중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축구 경기도



◇소림무공을 익힌 퇴역자들이 축구팀을 결성해 이전의 내공을 다시 회복한다는 홍콩영화 '소림축구'.

## '승리의 탈출' '더 컵' '소림 축구' 등

## 월드컵중 축구영화 감상 색다른 묘미

중 탈출을 시도하려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998년에 제작된 부탄 영화 '더컵'은 히말라야 오지의 한적한 사원에 불어친 월드컵 열기를 서양 축구 선수들에게 열광한 어린 수도승을 등장시켜 코믹하게 그려냈다. 국내에서도 재소자들이 감형, 형 집행정지 등을 꿈꾸며 축구에 열중한다는 내용의 '교도소 월드컵' 역시 축구를 소재로 다뤘다.

지난달 17일 개봉된 '소림축구' 역시 첨단 특수효과를 동원해 무협과 축구의 재미를 한곳에 모은 홍콩영화다.

---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불교, 즉 부처님(佛) 가르침(敎)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먼저 나를 알면, 세상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을 밖으로만 돌리게 되어있지, 안으로 돌리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화두'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화두 역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뭣꼬?'인 것이다. 따라서 화두는 용맹정진 하는 수좌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살지만 불교를 통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회인에게도 꼭 필요한 인생의 열쇠다.

우리는 그 열쇠를 항상 지니고 있다가, 눈앞에 문이 나타날 때마다 집어넣어 열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깨진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맞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향엄 선사처럼, 혹시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기연이 도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화두가 우리 사회인에게 주는 선물은, 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지 않을 때라도, 자신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상태에서 벗어나 늘 깨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세상 만사 모두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화두는 일깨워준다.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그 속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발견해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를 알아 가고, 성숙시켜 가는 화두의 생활화이다.

### 일상속의 화두

**책을 읽거나 영화볼 때**
**나를 비춰보는 습관**
**나를 알고 성숙시켜 가는**
**화두의 생활**

자신을 돌아볼 때, 일반적으로 처음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이기가 쉽다.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은 이상적인 자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못난 모습이다. 그리고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실망과 불안과 우울함은 깊어만 간다. 나를 찾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또한 괴로운 길이기도 하다. 자아 찾기의 첫걸음은 필경 '존재불만족'과 부닥치게 되어있다. 즉 자신의 무명(無明)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존재의 한없는 어두움과 실존적인 불안감. 또한 이러한 무지 속에서도 태평스럽게 잘도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어이없음과 허탈함.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도 드러난다. 자신에게조차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가면 투성이의 나. 그리고 사회에서 강요된 가치관으로 무장된 갑옷을 입고, 두터운 벽 뒤에 숨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 그 보호막을 벗어나 노천으로 나오기는 괴로운 일이다. 오랜 기간 학습된 의식의 껍데기 뒤에 숨어 안주해온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나를 '표현'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해왔다. 이제는 나를 성찰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표현'하는 공부가 필요할 때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나아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공부는 더욱 익어갈 것이다.

■문학평론가


2001년 12월
YTN 모범업체
선정 방영!!

세계 최대 지장보살 성지

# 중부권 최대의 미타사 가족납골공원

즉시안치 가 능 (토목공사 100%완료)

백룡이 여의주를 안은 백룡희주형(白龍戱珠形) 명당!

뒤로는 가섭산의 오색비단장막이 동에는 좌청룡 서에는 우백호가 엎드려 지켜주고 앞에는 탁트인 임수에 여의주가 뚜렷해 옛부터 알려진 최고의 명당으로 현세는 부귀다자(腐貴多子)하고 내세는 지상보살의 품안에서 영원히 안식 할 수있는 제일의 성지입니다.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매장묘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인 합동제와 상시독경을 올립니다.**
음력 입춘,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백중, 동지날에 스님들이 직접 영혼들을 위해 합동제를 올려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며 상시 독경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영가들의 천도를 빌어드립니다.

**육도(六道)의 배치로 왕생극락을 빌어드립니다.**
납골의 배치를 육도에 맞추어 안치함으로써 왕생극락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명관광지가 소재합니다.**
중부 및 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청주 공항에 인접하여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충주호, 단양팔경, 월악산, 수안보온천 등의 관광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기 본 형



□모 델 : A형 - 영탑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0位
□비닥석 : 1150×1250×150

고 급 형



□모 델 : A형 - 부도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2位
□비닥석 : 1200×1400×180

□불자시행 :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신 청 금 : 10만원 선착순
□신청계좌 : 농협 327-01-137435
□예 금 주 :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미계약시 신청금 전액즉시환불)

분 양 문 의
02)720-7007
02)419-1700
FAX 02)419-6670
Homepage : www.mitasa.co.kr



# 이상적 불교지도자상 제시

불교지도자론 1

김응철 · 유승무 · 김영란 지음



## 현대인들 '수좌형' 보다 '사회참여형' 선호

## 고학력 · 도시인일수록 '봉사하는 스님' 희망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지도자와 추종자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불교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의 수행력만을 중요시해 왔을 뿐 사회 리더로서의 불교 지도자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스님들의 올바른 수행 자체가 곧 지도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행력은 지도력 발휘의 필수조건임에 분명하지만 수행력이 지도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행력이 직 · 간접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비로소 지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설법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첫 번째 결과물인 〈불교지도자론 1〉(김응철 · 유승무 · 김영란 지음, 솔바람)은 그동안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던 불교 지도자론에 대한 연구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지도력을 근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불교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이상적인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은이들은 "〈불교지도자론 1〉은 불교 지도자론 연구의 첫 걸음"이라며 "새로운 리더십 이론을 이뤄내기 위한 지표조사 차원으로,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 지표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부에서는 전통적인 지도력 이론을 바탕으로 불교지도력에 대한 이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불교의 리더십은 어떻게 같고 또 달라야 하는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출가자의 리더십유형을 설정, 그 개념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불교지도자 양상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한다.

2부에는 두 편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설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종교 지도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두 번째 조사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전통적인 '수좌형'에서 '사회참여형' 지도자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학력이 높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스님을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비범한 능력만으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비전에 따라 리더십이 생긴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상에 대한 논의는 결국 불교교단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살피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2권에서는 불교경전에서는 리더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3권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지도자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4권에서는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상은 무엇인가를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값 2만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 일본중세 불교설화



## '가까운 일본…' 일본문화 중층구조 등 구체 서술

## '일본중세…' 平安말기 불교설화 '발심집' 번역

월드컵으로 한 · 일간 문화교류가 활발하다. 불교 출판계에도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살피는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과 일본 중세 불교설화를 모은 〈일본중세 불교설화〉 두 권이 나란히 나왔다.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박용길 옮김, 운주사)은 불교철학과 인도학, 비교사상.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故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가 쓴 '동양인의 사유방법' 시리즈의 제3권 '일본인의 사유방법'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인의 전통과 문화, 일본인의 종교와 사상, 불교와 유교를 비롯한 외래사상의 수용과 변용 과정 등을 분석해 일본문화의 중층구조와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사유방식의 특징을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인륜 중시의 경향, 비합리주의적 경향, 샤머니즘의 문제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책을 통해 지은이는 "불교가 일본에서 비로소 석가모니의 참뜻을 꽃피웠다는 일본 불교인들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엄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비판과 반성 없이는 기성 불교교단의 대중적인 종교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값 1만2천원.

〈일본중세 불교설화〉(압장명 지음, 류희승 옮김, 불광출판사)는 중세 일본의 유명한 은둔 수행자인 압장명이 평안(平安) 말기의 불교설화를 수집 · 편찬한 '발심집(發心集)'을 번역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풍부한 불교 관련 자료와 대장경의 정리와 연구로 세계 불교 연구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풍부한 불교문학 자료가 잘 보존 · 정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발심집'은 일본 중세의 대표적인 불교설화집이다.

'발심집'은 세상의 번뇌에 이끌리는 마음을 경계하고 불교에 정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들로, 승려와 재가신도들이 세상에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는 과정과 영험, 왕생의 설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값 5천원.

## 생명 소중함 책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는 특별한 등 하나가 걸렸다. 바로 카린 슈미트 씨가 건 '동물들을 위한 등'이 그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온 카린은 14년 전 한국에 정착해 서울 독일학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취미는 전국의 조용한 산사를 찾아 그곳에 묵으며 사진을 찍는 것이다.

주말이면 자신이 키우는 토끼 졸리와 함께 조계사를 찾는 카린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일들을 천천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살고 더 크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한국의 절'이라는 카린. 벌써 10년째 조계사를 찾는 그는 작년부터 졸리를 비롯해 자신이 키웠던 동물들을 조계사의 '신도'로 만들었다. 초파일에 동물들의 이름을 적은 등을 밝히게 된 것이다.



책과 삶

서울독일학교 유치원 교사 카린 슈미트

버려진 동물들 가슴아파 조계사에 위로의 등 밝혀

하지만 카린이 한국인들에게 실망한 순간도 많다. 한 순간의 호기심에 쉽게 동물을 사서 기르다가 또 실증나면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주 찾는 분당의 공원에는 버려진 동물들이 가득하다.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카린은 아픈 동물들을 데려다 치료를 하고 새 집을 찾아주었다. 그가 분당의 한 공원에서 데려온 토끼 졸리는 마포에 있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역시 토끼인 은털이는 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가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김현자 씨는 이런 카린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자고 제안했다. 카린의 이야기가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사랑해요〉(인북스)는 김 씨가 카린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정리하고 카린이 찍은 사진을 함께 담은 것이다.

채식주의자로 절에서의 공양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초파일이면 절을 찾아 연등을 만들기도 하는 카린은 이제 7월이면 고향인 스위스로 잠시 돌아간다.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서다.

"곧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물들을 키우고 싶다"는 카린. 서울을 떠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한다. "아름다운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해요."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 · 편자 | 출판사 |
|---|---|---|---|
| 1 | 화(Anger) | 틱 낫 한 | 명진출판사 |
| 2 |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 서 화 동 | 은행나무 |
| 3 | 마음은 없다 | 떼이비드 가드먼 | 탐 구 사 |
| 4 |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 류 시 화 | 김 영 사 |
| 5 | 영가천도 | 우 룡 | 효 림 |
| 6 | 극락은 있다 | 관 정 | 붓다의 마을 |
| 7 |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 전 재 성 | 한국예술문화정진협회 |
| 8 | 찻잔 속에 달이 뜨네 | 지 운 | 도서출판 법공 |
| 9 | 참선교육1 | 현 담 | 도서출판 선 |
| 10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 원 택 | 김 영 사 |

도서 안내:(02)737-0695

- 마음고치 벗고풀어 나비되고 비단짜기 -
참나 온전 깨침
www.hanahan.org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김윤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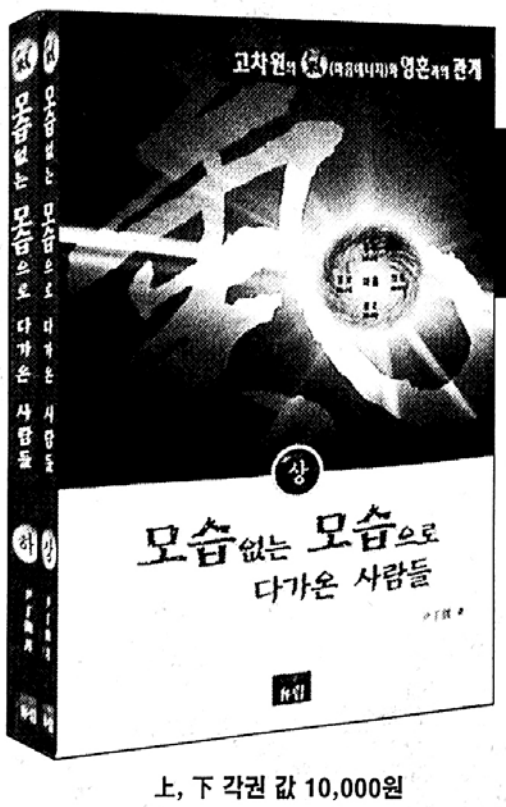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김윤곤 지음, 불교시대사)는 고려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인 고려대장경을 분석한 연구서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의 내용을 연구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에 각인된 보시자와 각수(刻手)의 이름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대장경 조성시기에 살았던 3,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고려대장경 조성명록집〉을 냈던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이 지닌 가치는 단순히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당시 고려 민중의 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라고 말한다.

1편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체제와 조성기구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2편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의 참여형태와 참여계층에 대해 분석한다. 3편은 고려대장경 조성의 사례분석을 싣고 있다.

### 보시자 이름 통해 당시 시대상 파악

지은이는 "나라가 수난에 처했을 때 현실참여의 결과로 조성된 고려대장경은 당시 사원 중심의 불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족정신이 응결된 대작불사였다"며 "민족분단이라는 오늘날 현실에서 고려대장경의 정신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교 중흥을 위해 애쓴 근현대 선각자의 사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값 3만원.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해성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긴 책입니다.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 힘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범종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불상 뒷모습은?*

# 동국대 3차원 사이버 박물관 개관



◇동국대는 최근 소장 유물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이버 박물관을 개관했다. 조각류 전시관 모습.

범종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박물관에 가도 볼 수 없는 궁금증이다. 불상의 뒷모습은 어떤지, 안은 비었는지 꽉 차 있는지 호기심만 더해진다. 그러나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이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4일 박물관 소장 문화재를 3차원 초정밀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이버 박물관을 개관했다. 금동아미타삼존불상, 금동비천상, 청동범종, 청화백자 등 58점의 문화재를 조각류, 공예류, 도자기 · 토기류 전시관에 나눠 전시한다.

국내 최초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의 최대 장점은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보고 싶은 문화재를 여러 각도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우스를 이용해 전후좌우 회전은 기본이고 문화재를 뒤집어볼 수도 있다. 진짜 박물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클릭 하면 설명과 함께 크기, 높이, 부피, 무게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단면을 잘라보거나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좌우회전 기본… 단면 · 뒤집어 볼 수도**
**색상 등 거의 원형… 보존 · 복원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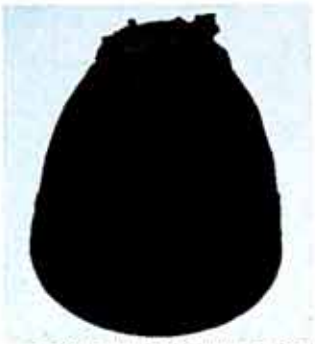
박물관 곳곳을 걸어 다니고, 계단을 오르는 등 직접 박물관을 찾은 것 같은 공간감과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부가 서비스다.

문화재 원형의 형상과 색상을 거의 원형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3차원 초정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사이버 박물관은 2차원 영상 방식이 대부분이다. 3차원으로 보여주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2차원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3차원 효과를 내거나, 캐나다 문명박물관처럼 형상과 색상을 따로 측정한 후 형상에 색상을 입히는 매핑 방식이다. 매핑 방식은 복잡한 유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국대 사이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목조동자상의 경우, 3차원 컬러 레이저 스캐너로 표면 형상과 색상을 동시에 측정해 40미크론(1미크론=1mm의 1/1000) 크기의 점 160만개로 표현하고, 이를 다시 3백만 개의 삼각형으로 연결해 흩리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각각의 점은 1670만 컬러의 색상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원래 현상과 거의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고, 기술을 개발한 (주)엘엔비테크 측은 밝혔다.

때문에 최첨단 사이버 박물관뿐 아니라 문화재의 과학적 관리와 보존 분야에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이러한 3차원 초정밀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의 원형이 파손되거나 변형되었을 때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성된 문화재는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각종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3차원 초정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며 "동국대 박물관뿐 아니라 야외에 흩어져 있는 불교 문화재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관리에도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차원 초정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후좌우 회전은 물론 유물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청동범종의 내부 모습.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파주 혜음사지에 고려行宮터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두차례 발굴

경기도 파주시 용미 4리 혜음사지(惠陰寺址)는 사찰과 임시 궁궐인 행궁(行宮), 숙박시설인 원(院)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의 사찰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해 8월부터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해 온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소장 박경식)는 두 차례 발굴조사 결과, 동쪽 사역에서 국왕의 지방 행차를 위해 세운 임시 궁궐터(행궁)로 추정되는 건물터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이번에 발견된 건물터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좌우대칭 건물구조이고, 일반인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석축과 담장으로 폐쇄한 점 등으로 미뤄 행궁터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김부식의 〈혜음사신창기(惠陰寺新創記)〉에는 고려 예종 15년(1120)~17년(1122) 개경과 남경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찰과 숙박 시설을 겸했던 혜음사를 창건했고, 국왕의 행차에 대비해 별원(別院)인 행궁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신년(戊申年)'이라는 명문 기와가 출토돼 혜음사 창건 6년 후인 1128년 행궁이 축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박경식 연구소장은 "전체 4천여 평 사역 가운데 1천2백여 평밖에 조사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찰과 행궁, 원의 구역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 고려전기 禪 주제 제2차 학술회의

## 선학회, 15일 동국대서

한국선학회(회장 법산 스님)는 15일 동국대 백암 세미나실에서 '고려 전기의 선(禪)'을 주제로 제2차 정기 학술회의를 연다. 선학회는 지난해 한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해 온 선종사를 시대별로 나눠 8년 동안 재조명해 보는 '한국선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해 신라 시대에 이어 두 번째 마당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 최병헌 교수의 기조 강연 '고려 전기 불교사 연구의 문제와 전망'을 시작으로 모두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와 김호귀(불교문화연구원) 씨가 각각 '공종대 불교교단의 통합과 법안종의 도입'과 '조동 사상의 유입과 고려에서의 양상'을 발표하고, 정천구(부산대 강사) 씨와 이기선 불교조형미술연구소장은 '고려 전기의 선과 문학(선승비문을 중심으로)'과 '고려 전기 선종 사원과 그 미술'을 발표한다. 이병희(교원대) 씨는 '선종의 소속 사원과 사원 경제'를, 조명제(일본 고마자와대) 씨는 '고려 전기의 거사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02)2260-3503

# "종교자유 不二의 지혜로"

## 김용표 교수, 국제종교자유협 학술회의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불교 탄압,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불 파괴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해 고통받는 인간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은 과연 없는 것일까?

국제종교자유협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제5차 세계학술회의를 연다. 인권 문제 차원에서 종교 자유를 다룬 이번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김용표(사진) 교수는 12일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에서 본 종교의 자유'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인류사회는 이제 단순한 종교적 관용보다는 모든 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완전한 종교 자유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자유침해는 배타적 교리…감정 때문**
**불교는 타종교와의 이해 · 협력 전통**

김 교수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나 감정에 기인된 것이며 또한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이익 집단화하려는 비종교적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참된 종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할 것과 서구 종교에서 중요시해온 정의와 심판의 논리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적(不二的) 지혜와 동체대비 정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대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불교의 제언을 통해 "불교는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 배타적 진리 주장에 대한 비판, 열려 있는 진리관, 대화를 통한 조화와 평화를 추구한다"며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타종교와의 이해와 협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교리 체계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불교의 이러한 특징이 현대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학술회의에는 유엔 유네스코 인권위원장의 기조 발표에 이어 기독교, 이슬람, 유태교, 힌두교 등 각 종교별 발표와 12개국 NGO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성스러운 전쟁은 없다"

## 김호성 교수, 인도철학회 춘계발표회서

과연 성전(聖戰)이란 있는가? 9·11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아프간 침략,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까지. 이들 분쟁의 직접적 원인을 종교간 대립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문명간 충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이들의 구호 아래에는 종교적 바탕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종교가 세속적 폭력이나 전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그 종교의 성전(聖典) 속에 폭력이나 전쟁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들어 있다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가?



8일 열린 인도철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힌두교와 불교에 나타난 폭력/전쟁의 정당화 문제'를 발표한 김호성 교수(동국대 · 사진)는 '힌두교의 〈바가바드기타〉'에서 말해지는 '정의의 전쟁'론과 불교 〈대승열반경〉의 '금강신품'에서 말해지는

**聖典속 전쟁 정당화 논리 비판 대상**
**聖戰 인정땐 종교의 평화옹호 기능 상실**

'호법'론 속에는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존재한다"며 "종교 안에 존재하는 폭력과 전쟁의 정당화 논리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승열반경〉을 보면 청정한 비구를 수호하기 위해 선남자들은 오계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설한다. 부처님은 전생에 그렇게 정법을 설한 지계(持戒) 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공덕으로 지금은 '금강신(金剛身)'을 얻었다고 말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법의 호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격렬한 전투'라고 하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폭력과 전쟁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물론 〈기타〉와 〈대승열반경〉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 공격적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2차적 · 방어적 폭력과 전쟁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같은 논리가 성전(聖典) 안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하지만 '정의 전쟁'론을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종교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옹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www.mahamall.co.kr

oh~

필승 코리아!
oh~ 佛心 코리아!

마하몰이 한국축구의
16강 진출을 佛心으로
기원합니다.




공지사항
1 비회원 구입-인터넷 마하몰에서 회원가입유무에 상관없이 상품구입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5만원 이상 구매고객) 무이자 할부서비스 안내
1) 국민카드(7월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
2) 삼성카드(10월31일까지) 6개월 무이자 할부
3) LG카드(10월31일까지) 6개월 무이자 할부



사신도 등(燈)은
창덕궁 인정전 임금님
옥좌 뒤 일월오악도
밑에 그려져 있는 임금님을
보좌하던 사신도의 정교한 선을 그대로 재현하여 등에 불을 켜면 때우 신비로운 빛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의 뒷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늬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원목과의 어우러짐 속에 은은한 멋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등 입니다.

사신도 등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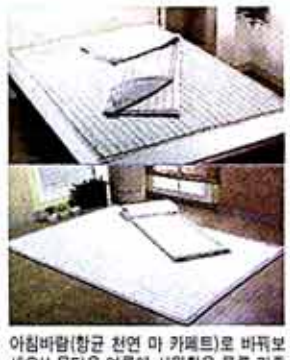
사천왕 등(燈)은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나원리
5층 석탑(국보 제 39호)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거울의 뒷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늬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원목과의 어우러짐 속에 은은한 멋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등 입니다.

사천왕 등 65,000원



조선시대의 스님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삼과 가사를 입고 있어서 오랜 수련을 통한 절제된 덕과 인품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써, 명소에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들께 선물 하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고승브론즈 155,000원



아침바람(항균 천연 마 카펫트)로 바꿔보세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집니다.

아침바람(항균 천연 마 카펫트) 79,900원




불성차는 지리산 삼신유곡의 야생 차밭 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등(鎭)기마솥엣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로서 깊고 은밀한 맛과 향 그리고 신묘한 색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 최고의 명차입니다.

불성차 (우전 9만원/세작 5만원/중작 3만원/대작2만원)



마하몰 특판 상품 - 한방향세트
(한국 축구 월드컵 필승기념 30% 할인판매-6월30일까지)
오분향생기향목욕용 셋트 (80,000원▶56,000원)

순금카드 시리즈
(일반형 15,000원 / 케이스 형 25,000원)
● 소재 : Fine Gold 99.9%
● 규격 : 8Cm x 5.5Cm
● 귀금속 품질보증서 제공




인터넷 마하몰(http://www.mahamall.co.kr)에 오시면 1,600여종의 불교용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것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세요

## 강한 힘 얻고 싶어요

문 작년에 스님께서 주신 답변에 힘입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어찌나 몸이 아프고 사는 게 고달프게 여겨지는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통 지쳐 있으니 마치 검은 먹구름에 뒤덮인 밤하늘에 놓인 기분입니다.

이 수렁에서 헤어날 힘이 필요합니다만 기진맥진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약도 지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찬 에너지가 철철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강한 힘이 가득 차서 내 가족은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고요. 참 어리석지요? 스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감히 청해 봅니다.

답 여러분이 작다 크다 싫다 좋다 하는 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안으로 굴려서 놓고, 또 바깥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만 항상 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억울하다고 하리만치, 즉 말하자면 상품 중품, 하품자리가 한데 합쳐진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도 그렇고, 내.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진출해 나가는 활용은 가짓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그 줄을 잡고 단추만 누를 줄 알아도 내 몸을 잘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병고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물질로만 돼 있는 것 같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 안에 있습니다. 종합원자력발전소라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주적으로도 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저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그 한 줄에 매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이는 약도 있고 살리는 약도 있고, 바로 한 마음 속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 목이 아프다면 '그거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바로 그 단추가 눌러지는 겁니다. 한 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단추만 누르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분신으로서 의사가 되면서, 생명체들이 좀 많습니까? 간이면 간 부위에 공장장이, 즉 말하자면 병원 원장이 돼 가지고 그걸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팔자라 이겁니다. 걱정을 하니까 팔자 운명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걱정을 왜 합니까. 안으로 단추만 누르면 거기서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 걱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아예 자기를 버리고 들어간다면 빨리 들어갈 텐데 모르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버리질 않고 살던 습, 착, 욕심이 꽉 차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쩌나 하면서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아예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고장난 부위를 고친다고 해도, 그 부위에 적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딴 부위에는 그 약이 적합하지 않을 때 부작용이 또 나는 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병이 들어서 죽는다면, 죽는대도 네 탓이요, 산대도 네 탓이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죽음으로써 몸이 벗어지는 겁니다. 한데 합쳐서 한 생명들이 모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된 거지,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형성될 리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부위마다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선 내맡겼을 때 내 껍질은 건당 따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름과 같은 겁니다. 건당 따라다니는 이름과 같은 거죠.

만약에 당장 간이 파괴됐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그 생명들이 살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몸의 부위 부위에, 그 양면에 단추가 있다는 거, 태양의 근거지도 바로 여기요, 우주의 근거지도 여기요, 세계의 근거지도 여기요, 국가의 근거지도 여기요, 뭐 전체가 다 여기입니다. 줄줄이 여깁니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 닥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패기가 있어야 하고 긍지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두 몸 건강하고 건실한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옷 벗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계시다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찢어지고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것보다 깨끗하게 입으려면 바꿔 입지 않습니까? 기름 묻고 찢어진 거를 입고 다니면서 냄새 피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도 건강하게 끌고 다니면서 관하고 사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인간의 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도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걸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분들도 그래도 해 나가면 더디더라도 환경을 조성하여 차츰차츰 그 부위가 살아날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한테 기댈 게 아니고, 또 남의 말에 기댈 게 아니고, 사주팔자에 기댈 게 아니고, 부적이나 역학에 기댈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고등동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지 않게 조그마한 종이 조각, 남의 말, 그런 데다가 보람있는 자기 생명을 붙여서 한만히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얼마만큼 귀중하고 쓸모 있고 개발력 있고 생동력 있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생각에 우주의 근본을 다루면서, 또 한생각에 만물을 다루면서, 한생각에 만물을 건지면서, 한생각에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한생각에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정말로 알고 살면서 소소한 데 매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생동력 있게 나와 남에게 이익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항상 관하면서 사세요.

##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문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를 통해 스님의 높고 깊고 한량없는 말씀을 많이 배워서 주인공 자리에 놓으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여 집도 경매에 들어가 있고 회사도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지만 스님 말씀에 따라 주인공자리에 놓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요



그림 · 최주현

**내 한마음이**
**나 · 가족을 건지고**
**나라 · 국민을 살리면**
**그 공덕 말로 형언 못해**

답 주인 공을 찾는 것도 둘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주인공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들 하시죠?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다리 건너가니까 그런 겁니다. 이름만 주인공이라고 해놨을 뿐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기복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미신이죠.

재차 말합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의 병고를 낫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간다고 딛고 관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고, 잘 이끌어줄 수 없다는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믿는 것이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불가사의한 법도 거기에서 나오게끔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주인공의 집이란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빗장을 쥐고, 바로 거기에 문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불가사의한 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빗장도 이름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요. 주인공이라는 이름은 물을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집이라고 한다면 주인공 안에 일체 부처님, 석가세존으로부터 천백억화신으로부터 일체 보살로부터 저 타국에 있는 보살로부터, 병고도 내 주인공밖에는 없앨 수가 없다는 한생각을 낸다면, 일체 부처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바로 일체 보살들이 한찰나에 와 듭니다. 용도에 따라서 나고 들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병고로 인해서 한 생각을 낸다면 약사보살이 찰나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거를 수없이, 이거를 건지려면 이게 되시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게 되시고, 천차만별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마음 자체가 상대가 없는 마음으로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마음도 내시고 저 마음도 내시니, 가난해서 부른다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변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자식이 부르면 금방 어머니로 변하면서 마음도 금방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듯이, 이 마음을 떠올리면 그대로 약사보살이 나투시고, 한찰나에 나투었다 한찰나에 가시고, 헤아릴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작용을 그대로 믿고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타파해 나가는 묘용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 업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문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가르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주인공에 일임하며 놓고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랜 방황 끝에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강아지를 키워서 큰 개가 되면 팔아서 생계를 꾸려 가는 일입니다. 키운 개가 우리 집을 나서면 죽게 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개도 건지고 저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님은 업을 짓는다고 하시던데 업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방법의 생계수단을 찾아 보려해도 저에게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모습을 개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서 인도환생을 시키기 위해 그 몸을 벗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주상보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니깐 한마음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항상 관해 주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무지하게 때려 죽였대요. 산에 다니면서 땅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수행자를 만났는데 "살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선 돌아가니 어찌 억겁을 지나온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땅꾼이 하는 말이, "수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죽인 사이가 없고, 그 몸이 내 몸이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뱀이 자기라는 겁니다. 수만 마리의 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요, 생명이 자기 생명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만 그 소릴 듣고 수행자가 기겁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홀연히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개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좋죠. 그런데 개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묘법이죠. 영혼이라는 건 백 개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말로 하자면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거는 무심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짐승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자손들을 셋씩, 둘씩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 해도 항상 찌그리고, 뭐 사는 게 모두 그렇다고 그냥 슬픈 생각만 하고 옹졸하게만 생각한다면 옹졸하게 삽니다. 자기 몸이 병들고 옹졸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발랄하고 생동력 있고 불법의 진리는 그렇게 용렬한 법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지혜롭게 산다면 그건 스스로 풍부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서 남에게 팔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뭐 천도를 시켜달라는 둥, 환생을 시켜달라는 둥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이 처리를 하는 거는 당신만이 해줄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극하게 하십시오.

저는 신도님들께 그럽니다. '나의 친구야! 너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왔고 거기서 모든 걸 그대로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렇게 믿고 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 맡겨 놓으면 천도되나요?

문 항상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읽고 들으면서 스님처럼 마음을 쓰고 살려고,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시고 사시나?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행을 할 수 있나? 항상 화두 아닌 화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증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셨는데 무조건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 맡겨 놓으면 다 천도가 되는 것 인지요?

답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어려운 보살이 절에 정성스럽게 다녔는데 그때는 기름을 켰기 때문에 기름 살 돈이 없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기름을 조금조금 얻어서 칠석에도 백중에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자기 주장자가 완벽하게 서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불이 당겨지는 것을 자기는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하! 일을 해주고 얻는 것이 기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있으며, 그대로 한생각에 촛불이 당겨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간절하게 기름을 얻어서 불을 켜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조금 바람만 불어도 꺼지니 이 노릇을 어쩌나' 하고선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해야만이 다 갚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젖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지게꾼이 관을 지고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가십니까, 하니까 "저 뒷마을에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질부사로 사람이 전부 쓰러지니까 집집마다 모두 비고 관군이 나와서 바깥에다 내다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뒷마을까지 퍼져 가니 네 동네 다섯 동네가 다 씨도 안 남겠다고 걱정이 크다고 하면서, 나도 짊어지고 가지만 이거 정말 우리 부모가 아니라면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선 가만히 앉아서 그대

☞ 18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다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17면에서 계속

로 장질부사를 앓는 동네 전체를 놓고선 인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얻어다가 켜는 거는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마음의 촛불을 한 찰나에 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등을 켜고 손을 한데 모으고서는 관하고 앉아있으니까 모두 일체제불의 등이,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의 공등(空燈)이,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등이 그냥 온 누리에 밝았답니다. 온 누리에 밝았으니 그 광력이 아픈 사람들의 동네까지 전부 미쳤어요. 그래서 세균을 그냥 둘이 아니게 하나로 뭉쳐서 그 의식을 다 안고는 깨끗하게 싹 처리를 해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 버리니 이틀 사흘이 지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는커녕 전부 살아나더랍니다.

여러분의 촛대가 완전히 자리잡고 있어야 급하면 급한 대로 한생각에 불을 당길 수가 있는 거지, 촛대가 갖추어 있지도 않는 데다가 어떻게 불을 켜며, 그리고 그 불이라는 것도 없는 건데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불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촛대도 마련을 안하고 불을 켤 자가발전소도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이런다면 아무리 급해도, 팔자운명이라는 게 막 닥쳐와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다 마련을 해놨어야 해결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둘 아닌 도리입니다.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 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 속에서 촛대에 불이 당겨진다는 것과, 현실의 불이 당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죠. 가다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의 씨라는 거는 아무리 헤아릴 수 없이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느냐?' 이러죠. 내가 한다고 하니깐 안 되죠. 여지껏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간장공장에도 내가 있고, 방광공장에도 있고, 식도공장에도 있고, 공장마다 내가 있는데 내가 한다, 이거는 꼭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줘야지 하니깐 안 되죠. 한마음으로 들어져야 되는 건데, 우주 전체가 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고 있으니 그게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빼고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나라는 게 있으면 절대로, 나 혼자 개별적으로 뭐를 하려면 되지가 않는다. 한마음이 듬뿍 들려야 우주간 법계에 한마음으로서, 산천초목도 전체가 한마음이 돼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촛불 하나가, 그 여인의 꺼지지 않는 마음의 인등 하나가 나라를 다 지키고 밝게 켰다는 얘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음이 나를 건지고 가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국민을 건질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고통 헤쳐갈 가르침을…

**문** 스님 저는 종교는 잘 모르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둘 곳 없어서 방황하는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종교를 찾아서 헤맵니다. 현재 저에게는 빚만 지는 씀씀이가 헤픈 남편과 이제 백일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전화가 빗발치는 현재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님들이 말리는 결혼을 해서 더욱 괴롭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옆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 역시 힘든 일이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인데, 저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내 탓이냐고 억울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써 내 탓으로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부딪힐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나는 거 보셨어요? 돌을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고 사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불 모실 때에 오분향을 하죠? 첫째 '계향'의 뜻은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부모의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의 누가 되게 해서도 안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더욱 안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으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정'에다 놓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이게 '계향'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지켜야할 것들도 생겼고 또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봤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바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또는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 뜻을 잘 헤아려 보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놓고 관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편하게 되는 길이며 더불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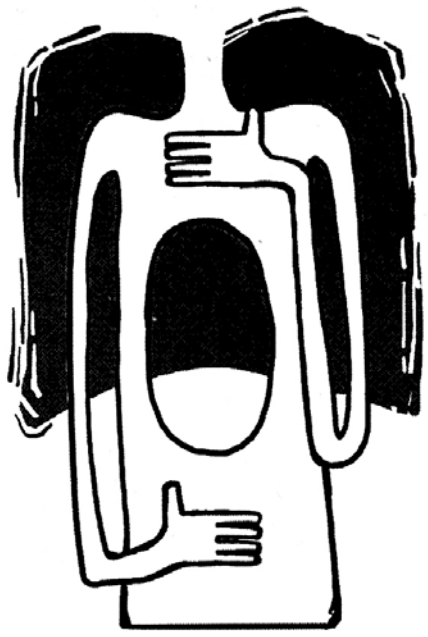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생각에 우주 · 만물 다루며 한마음에 불국토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세상에 없어선 안 될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 스님처럼 보인다고 싫어해

**문** 전생의 무슨 인연 때문인지 남편이 화 잘 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를 편하게 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불교에 귀의한 이후 스님의 법어집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제 딴에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남편은 스님처럼 보인다고 짜증을 내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공부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할까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절에 다니면서 남편도 굶게 하고 자식들도 굶게 한다면야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들은 이탈이 되고 가정이 파괴가 오고 그런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중요하고 법당에 자주는 나가되 끈질기게 그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뭐 백 일만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 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않게 되는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여하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여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래가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부부가 싸우더라도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에서 불화증이 일어나면 '어유, 나한테 그래봐야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보자. 저러다가 큰 코 다치지.'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놓고 '주인공은 둘이 아니야.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돌이겠나.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할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는가.' 하고 관해야 합니다. 애들에게도 그렇고 어른에게도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한다면 그냥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헌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헌 것들을 다 넣는 것이나 같습니다.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이 되니 자동적이죠.

모든 거는 그렇게, 아무리 자기한테 악하게 하고 아무리 죽일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저 상대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탓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나에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구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돼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들이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참회를 하고 돌려놓는다면 다시금 마음을 밝게 가지고 둘이 정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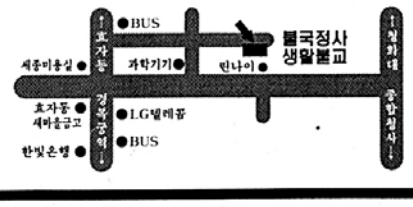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귀 불국정사 생활불교**

여러 불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불자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기회에 인연을 맺어 보십시오.
제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14년전입니다.
전태중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연을 맺은 날부터 3개월이 되면서 저는 마음과 행동이 저도 모르게 바뀌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니라 한제에 민 국민의 질병과 성인병을 물과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이어 저는 한제에 종로구 창성동 122-19호 생활불교 불국정사를 개원하였습니다. 크게는 수행이시는 큰신 스님들을 위하고 또한 불자수행자를 위하고 질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각각 인체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요.
지와 인연이 있는 불자님들과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도 한번쯤 저희 음식을 접수어 보십시오.
저희 불국정사에서는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생활의 지혜와 음식에 관하여 강의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참석 하시어 건강음식에 관하여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제 질병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불국정사에 오셔서 인체에 맞춘 물과 음식으로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은 김치와 밀반찬 등이나 각 가정에서 원하신다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의 지혜를 관음정진중에서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어 한제 질병에 고통받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만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법 명 금강석 (곽정순) 합장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22-19호 3층)
상담전화 02)736-3091 핸 드 폰 011)9731-7989






**특히, 수행하시면서 쉬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엑기스**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간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렸습니다」
- 지운거사 -

※ 택배도 가능(1개월분 이상)

●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택배비 포함)
● 민물장어 6kg + 십전대보탕 (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영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몰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앞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튜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료점 치료법.
급만성 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동식물 치료법.
약물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환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관 절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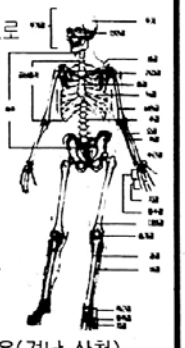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빨리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

**강원도 산속의 사찰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482-3382~4
성운사

---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3)583-7281
7284
011)320-8544
(사무장)

---

**서울 중심의 포교당 운영하실분**
019)352-2725

---

**포교당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내에 있는 태훈사
062)673-6556

---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

(사)한국불교 미륵종
**금 강 사**
(부산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주 지 혜 경
약사회장 정자광심
관음회장 문청정화
신 도 일 동
부산시 사하구 괴정 1동 976번지
☎ 051)293-0137

---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

대표 김 정 현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상업공간, 광장
◇상가, 병원, 학원
◇신축, 개축, 보수
◇조립식, 칸막이, 건물
◇도장공사
TEL : 02)683-4631
FAX : 02)683-4632
H·P : 011)412-0051
**동방인테리어건축**

---

**공양주 보살님, 침모 보살님 모십니다**
공양간 보살님 -
공양간 보조 해주실 분
침모 보살님 - 옷 수선, 세탁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람
063-353-0396
대한불교 조계종 성관사

---

**수려한 산새와 공기좋은 도량에 공덕을 쌓으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성북구, 종로구
나이 : 50세 ~60세사이
주민등록등본 지참
02)379-8544

---

**삼명 수려한 도량입니다 공부, 기도 요양 하실 분 모십니다**
청 강 사
055)932-5706

---

**예불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
경 기 도 군 포
031)429-4919
011)9719-3879

---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천안 보현사
월 보시 80만원 부터 절충가능
041)554-8486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

산세좋고 물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불사하면서 가족처럼 사실분
비구니행자 모십니다.
나이 불문
011)9719-7060

---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도존
불자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

**탈 종 공 고**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2-2번지
● 사찰명 : 혜광사 ● 법 명 : 명광, 혜명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

**사 찰 안 내**

| | | |
|---|---|---|
| ● 위 치 : 논산 | ● 위 치 : 서울 | ● 위 치 : 부산 |
| ● 법 당 : 20평 | ● 법 당 : 27평 | ● 법 당 : 23평 |
| ● 요 사 : 100평 | ● 요 사 : 110평 | ● 요 사 : 50평 |
| ● 부 지 : 900평 | ● 부 지 : 175평 | ● 부 지 : 166평 |
| ● 가 액 : 4억 3천 | ● 가 액 : 9억 | ● 가 액 : 3억 7천 |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큰방 5개, 산신각(5평)
**납골당 100개 항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가액 : 1억 5천(전세)
오래계실스님을 원합니다
011)771-5597
033)345-5597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전철역에서 2분거리
● 보증금 : 200만원 월 23만원
● 시설 : TV, 냉장고, 에어콘 등 (1,100 만원)
011)9052-7928
02)688-2962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땅 : 650평 평당 40만원
● 건물 : 20평
포교당이나 절 지음에 적합
유동인구 多, 전망좋음
02)6245-8710
018)603-8710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 5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017)843-9144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가야산 태고종 금성사
● 주 소 : 부산진구 개금 2동 633-167
● 주 지 : 송산스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태고종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

**사찰 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 IC 10분
● 전원형 최고 명당지 토굴 사찰터 (풍수지리 전문가 환영)
● 대지 603평 조경완비 1억 9천만원
● 대지 314평 조경완비 1억 4천만원
건물 2동
(주인직거래)
018)315-9080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지리산)
● 부지 : 605평, 황토한옥 32평
● 요사 9평, 탑둘레 25m
● 연못, 남향위치, 밭 244평
● 가액 : 1억 3천 (절충가능)
055)963-4965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별도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 결정 가능
011)577-2251

---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

**약 사 암**
원인모르게 병고에 시달리는분
가정에 우환이 많은 분들
상담바람
02)796-8514

---

**사 찰 안 내**

| | |
|---|---|
| ● 위치 : 충남 홍성 소재 | ● 위치 : 서울근교 |
| ● 부지 : 3,000평 | ● 대지 : 850평 |
| ● 법당 : 30평 | ● 법당 : 40평 |
| ● 요사 : 50평 | ● 요사 : 60평 |
| ● 양도가 : 2억 | ● 양도가 : 5억 8천 |
| ● 산새 좋은 정진 도량임 | ● 산새 및 계곡 좋음 |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요지 사찰
● 대지 : 1000평 ● 법당 : 40평
● 용왕당 요사 50평 후원식당 30평 주차장 150평
● 공시시가 평당 150만원
꼭 하실분 전화요망
절충가능
011)811-3600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반성면
● 대지 : 204평 밭 110평
● 건물 법당 용왕 산신 요사 2채
● 가격 1억 3천만원
011)9526-9693

---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권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

**토굴 구하실분**
● 대지 200평
● 법당 14평
● 요사 14평
● 삼성각 5평
● 가액 : 6500만원
011)9302-5632

---

장수건강
**돌침대 星大 할인**
잠자리 바뀌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사계절용)
돌침대는 세멘바닥의 사기(邪氣)와수맥을 막아줍니다.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에서 10분거리 상단 중단 철성 산신용왕 탱화 및 불상 사리 3과
● 시설 및 살림도구 일체
● 대지 : 110평
● 가액 : 3800만원
054)833-8779

---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 부지 : 약 100평
● 건물 2층 2동
● 법당 20평
● 특징 : 범종각 9층석탑 텃밭 전통사찰 법당
● 가액 : 4억
011)9775-1156

---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스키장 근처
● 부지 1300평
● 건물 : 25평 55평 20평 3동
● 산세수려하고 전망이 좋음 납골당도 가능
● 가액 4억
031)533-2420

---

**사찰 안내**
● 위치 : 안성시 일죽면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방 3칸 거실 큼 주방따로 전체 면적 680평 기름보일러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7)324-3892

---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

**사찰 안내**
• 위치 : 함안군 가야읍
• 면적 : 3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5평
(경관이 좋은 관광지에 있는 사찰)
• 양도가 : 3억 5천

**사찰 안내**
• 위치 : 함안군 파수리
• 면접 : 340평
• 법당 : 15평
• 요사 : 49평
(좋은 계곡이 있는 암자)
• 양도가 : 1억 5천

**사찰 안내**
• 위치 : 양산 시내
• 면접 : 1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도시근교의 작은 암자)
• 양도가 : 2억 5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설팅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동
• 법당 : 2 · 3층(약 50평)
• 특징 : 삼존부처님, 문수보살님 그외 여러 부처님 모심(완벽한 법당 내부시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별도 : 6천만원 (현장방문 후 가액조정)
성 불 사
011)398-9807
053)957-9551

---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20평(새건축)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 부지 : 1000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5천 만원
※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 부지 : 1300평중 대 200평(국유지 80,000평 매입가능)
● 건물 : 악 20평 ● 시설 : 전기 전화 완공
● 허가 : 형질변경 필 전용허가 필 건축물대장 필 ● 시가 : 45000만원
● 특징 : 바위밑에 대웅전터지 어느 재상이 먹고 나았다는 석간 약수 또는 200명 양의 식수, 7미터 락차에 폭포수에정지 또는 반석위로 흐르는 서출 동유수 지리학상 수천명이 운집할 만한 자리인지는 직접 관찰하시는 분에게 달려있고 70 고령노장은 수행 대덕을 찾으며 본인이 직접 허실 분만 관찰 하십시요!
※ 공주 - 천안간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10분거리
연락처 : 041)858-1331

---

**사찰 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악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가액절충
016)635-4569
055)962-7401

---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텃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

**암자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㊲

**• 금강무보살 수인 익히기 •**



금강무는 양손의 엄지손가락 단을 굽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쪽 편 상태에서 한쪽 손은 높게 다른 손은 낮게 위치하게 하는 방법의 수인이다.

1. 가슴 앞에서 금강무 수인을 취하고, 왼다리를 꼬아 오른 무릎에 붙인다.

2. '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수축하고, 다리를 서서



**엄지손가락 접고**
**양손 높이 다르게**

히 앞으로 잡아당겨서 옆으로 가져 간다.

3. '뭐'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이완하며 다리를 다시 뻗는다. 이때 손도 위로 올린다.

4. '꼬'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수축하며 이번에는 다리를 잡아당겨서 뒤로 가져간다.

5.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손이 평행이 되도록 한다.



4일 열린 월드컵예선 폴란드와의 경기를 계기로 서울 광화문과 동숭동 대학로 일대의 '거리 응원전'이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4일 열리는 포루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시간은 저녁 8시30분. 가족과 함께도 좋지만 퇴근길 교통 정체를 감안한다면 직장 근처의 거리와 체육관 등에 마련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비좁은 거리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붉은 악마'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며 환호하는 것도 경기장 밖에서 축구를 즐기는 색다른 묘미다.

## 월드컵 야외응원 장소 10곳

## 광화문 · 대학로 名所로

현재 서울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은 경기장 밖 응원 1, 2번지로 불리는 광화문 일대와 강남구 삼성동 밀레니엄 광장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야구장, 한강 여의도 둔치 LG야외무대, 마포구 대흥동 마포문화센터 등 10여곳에 이른다. 여기에 전국 월드컵 플라자인 부산의 부산역광장, 대구의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 인천의 관교동 중앙공원, 울산의 월드컵 경기장주변, 전주의 전주객사 공터, 제주의 탑동광장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다.

# 향일암 · 옥계바다 · 의암호 등 시원한 풍광 즐기세요

## 6월의 기차여행

관광공사 선정

월드컵 축제로 전국이 온통 열광의 도가니인 6월. 기차를 타고 복잡한 도시를 탈출해 보자. 6월의 기차가 머무는 바다 · 강 · 호수에는 여름바다와는 분명 다른 호젓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기차여행지를 소개한다.



◇여수 향일암 관음전 앞으로 펼쳐지는 남해가 참배객들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한다.

### 여수 돌산대교와 향일암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에서는 돌산대교와 향일암을 찬찬히 둘러보자.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과 오동도, 거문도, 백도 등 여수 지역의 관광매력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도시인들에게 분주한 일상의 번거로움을 떨쳐 주는 곳은 따로 있다. 해를 향해 있다는 암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해의 수평선 위에 떠오른 일출이 장관인 금오산 '향일암'.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중간중간 뒤돌아 보면 넓고 시원한 바다가 계속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 특히 관음전 앞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의 풍광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하루 14회 운행. 향일암 (061)644-4742

### 강원 동해 옥계 바다

영동선으로 찾아가는 강원도 옥계바다는 동해바다의 푸르름이 유달리 돋보이는 동해안의 백미(白米)다.

옥계 바다로의 여정 중에 묵호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묵호항에서는 동해바다의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울창한 송림이 바다를 향해 드리워진 망상 해변도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옥계 바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옥계 백사장과 금진항 그리고 일명 '헌화로'인 금진 해안도로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금진항은 아직까지도 한적한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색다른 여행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묵호행 열차 하루 8회 운행. 동해시청 (033)530-2227

### 충남 보령 대천바다

한반도의 서쪽을 내달리는 장항선을 타면 보령 대천바다가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자동차 여행이 손쉬워진 곳이긴 하지만 장항선은 충청도의 산, 평야 그리고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낭만의 기차여행길이다. 장항선은 현충사와 온천으로 유명한 온양온천역, 한용운 스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역,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대천역 등이 있다.

특히 대천역에서 조금만 걸음을 더하면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과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에 갈 수 있다. 이 곳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껍질이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와 머드팩으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대천까지 하루 12번 기차가 다닌다. 보령시청 (041)930-3541

### 강원 춘천 의암호

이름만 들어도 젊은 가슴이 되는 대성리, 청평, 강촌을 지나 경춘선 열차는 춘천으로 향한다.

'호반의 도시', 내수면적 최대를 자랑하고 있기에 춘천을 부를 때 빼놓을 수 없는 별칭이다.

이 곳 춘천에는 새벽녘이면 물안개를 피워 올리는 의암호가 주위의 위도, 중도, 붕어섬 등을 안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중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알려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중도는 주위의 호수경관과 신록이 어우러져 독특한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청량리역에서 무궁화, 통일호가 수시로 운행된다. 춘천시청 (033)250-3545

### 충북 단양 충주호

중앙선이 소백산을 넘기 전에 만나는 곳, 단양에서 충주호는 시작된다. 충주호 곁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청풍문화재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시원한 바람과 한껏 물오른 신록의 푸르름을 느껴보기 위해 한번쯤 유람선에 몸을 실어보자.

단양팔경의 으뜸으로 꼽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은 물론 월악산 국립공원을 헤쳐나가는 물살이 시원스럽기만 하다. 30여분의 뱃길 끝에는 청풍일대의 문화재를 옮겨 놓은 청풍문화재단지가 충주호를 발아래 놓고서 자리해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6월의 싱그러운 녹음을 선물한다. 청량리역에서 하루 6회, 서울역에서 평일 1회, 휴일 2회 기차가 떠난다. 단양군청(043)420-3254, 제천시청(043)640-6503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新 동의보감 (3)



김승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 비만

### 개인적 질병서 사회문제로 대두
### '적게 먹고 많이 소모'가 치료 첩경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만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비만으로 야기되는 질병이 워낙 많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비만은 이제 미용상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은 체질적 특징을 응용한 한방 비만치료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상 체질 중 태음인은 물욕(物慾)이 강해서 잘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 언제나 식욕이 왕성하며, 소화 흡수를 잘해 근육, 골격을 잘 만든다. 반면에 버리는 기능, 즉 배설 · 호흡기능은 떨어져서 노폐물을 잘 내뿜지 못하게 돼 쉽게 살이 찌게 된다. 키는 작더라도 목이 굵어 지고, 몸통이 커지는 등 골고루 살이 찌게 된다. 또한 욕심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태음인 비만 치료의 핵심은 배설 · 호흡기능을 키우고,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갈근(칡), 의이인(율무), 마황 등은 태음인의 비만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며,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대변을 시원하게 배설하는 것이 치료의 요점이다.

소양인의 특징은 직선적인 성품에 있다. 직선적이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체(滯)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기체(氣滯)가 나타나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비만하게 되는 것이다. 신경만 쓰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막히는 증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통증, 대소변 배설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소양인 비만 치료의 요점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한약, 운동, 호흡,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 서면 비교적 자력(自力)으로 살 빼기가 가능한 체질이다.

소음인은 비위의 기운 즉 소화력이 약한 특징이 있으며, 흡수된 영양소를 몸의 각 부분으로 운송하는 기능(脾氣)이 떨어져 서서히 비만하게 된다. 따라서 소음인은 비위의 기운을 키워서 흡수된 영양소를 잘 소통시켜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가벼운 팔다리 운동으로 소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적게 먹고 많이 소모하는 것"은 비만치료의 불문율이며, 자신의 체질에 맞게 생활하는 것은 비만치료의 첩경이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우로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 전수경 전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오분향 예분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 시칠,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틈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 불교 이래서 좋다

이유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장

### "나의 평생 든든한 버팀목"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데에는 조건을 비롯한 그 무엇도 무의미하며 사랑한다는 진실한 마음만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게 있어 불교는 그런 존재이다.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굳이 불교를 좋아하게 된 배경을 말하라고 한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활동. 대학 새내기 시절 학교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대불련 활동은 내게 있어 커다란 선물이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으로 방황하던 내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으며, 연합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런 활동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 몰랐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장점은 더욱 살리려 고민하고 단점은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고민해 보고 작은 힘이라도 실천하려 했다.

요즘에는 대불련 부설 기구인 'KBUF 불교아카데미'에서 위빠사나 강의를 듣고 수행을 직접 해봄으로써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 있다. 항상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 상태를 지닐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보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위빠사나와 같은 수행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었다. 아직 실천은 미약하지만 불교를 통해 이러한 것을 접해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불교가 내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한다. 내게 있어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될 불교를 내게 그저 사랑할 뿐이다.

## 담배를 끊읍시다

### 청소년 흡연 폐해

### 폐암 가능성 높아 … 수명 24년 단축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된다.

미국 의무총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 비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암 사망 중 폐암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전체 암사망의 65%를 차지하는 위암, 간암, 폐암 중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전 10만 명 당 사망률이 5명에서 1992년 24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폐암사망은 특히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높은데, 이는 흡연 후 대체로 30년이 지나면 폐암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인격형성과정에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 흡연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로 부상된 지는 오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 중 3.2%, 고등학교 1학년의 14.3%, 2학년의 38.2%, 3학년의 44.8%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립학교 동아리 '환경운동'

## '송추현장' 방문 대통령께 편지쓰기

그린넷 기자단 불교 소녀단

## "언제든지 가고 싶은 중랑천 만들자"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종립학교 내 동아리들이 환경 운동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명성여자고등학교 '불교소녀단' 단원 25명은 의정부 북한산 관통 서울 외곽도로건설 반대 농성 중인 송추현장을 방문해 철마선원장 수경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쓰기' 등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가한 불교소녀단장 심승희 양(18)은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라며 "그동안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직접 실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일에는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넷 기자단(단장 닥리나 · 고3)' 회원 20여 명이 서울 중랑천 가금교에서 중랑교까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중랑천을 만들시다'란 현수막을 들고 환경운동을 펼쳤다. 2000년 3월 발족한 '그린넷 기자단'은 자연실태 조사, 환경보호를 위한 계몽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랑천 수질조사, 조류탐사, 철원 제2땅굴 및 고석정 조사, 시화호 탐사 등을 다녀왔고, 올해 들어서도 중랑천 사랑실천 대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10월에는 강화도 갯벌 탐사도 떠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내 청소년 봉사단 '품앗이' 회원 50여명은 경기도 팽택시 내 거리에서 휴지 줍기, 매월 환경자원봉사 실천 사례 발표 등의 환경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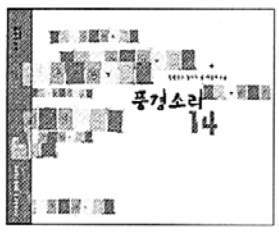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명성여고 '불교소녀단'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북한산 송추 현장을 방문, 환경훼손 실태에 대해 회룡사 정호 스님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 찬불동요 모음집

## '풍경소리 14' 출시




'좋은 벗 풍경소리'의 열네번째 창작 찬불동요 모음집 '풍경소리 14'가 새로 나왔다. 이번에 선보인 노래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전통동요, 창작 찬불가 등 음악장르가 다양해진 것을 물론, 반주음악도 실려 어린이법회나 관련 행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타이틀곡인 '연등제', '부처님의 나라로' 등 축제분위기에 맞는 템포가 빠른 노래를 비롯해 '풍경화', '참선', '반가사유상', '깨달음의 네 가지 소원' 등 순수 창작 찬불동요 총 11곡이 수록돼 있다.

#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최

## '주 5일근무' 대비 프로그램 다양화 등 모색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는 6월 1~2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 33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어린이법회 지도자와 운문사 봉영사 승가대 스님 등 600여명이 참석해 기본과정, 레크리에이션 과정, 아트풍선 전문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대불어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지도자들의 여건 변화가 연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 지도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연수회 참가자 600명 중 약 4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사찰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어린이법회의 대응 방향' 등과 연수회 적정 인원, 연수회 교육과정의 이해도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대불어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6~7백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규모 연수회 대신 연수회 시간을 늘리는 방안, 100명 단위의 소규모 연수회 수시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수회를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수안 사무국장은 "연중 연수회 계획을 미리 발표한 후 주5일제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지도자들이 원하는 연수회에 수시 접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너무 많은 인원과 짧은 연수 시간으로 제한적이었던 연수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 불교동호회 'Teazen'

## 차향 · 전통음악 흐르는 카페

## 차 만들고 유명 재배지 방문도

대금을 배우고 싶거나 전통차의 향기에 취하고 싶은 네티즌이라면 'teazen'에 가보자.

그윽한 차향과 전통음악이 흐르는 'teazen'(http://cafe.daum.net/tea, 114)에서는 다도와 국악의 향연이 항시 벌어진다. 카페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금 부는 스님이 카페 주인 자연스님(통도사 수원포교원). 스님이 이끌어가는 카페라서 조용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도와 국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진 법우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직접 공연장을 찾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월에 개설되었고 회원수는 843명.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녹차나 홍차에서부터 보이차, 우롱차에 대한 설명과 차를 우리는 법, 다도에 이르기까지 스님과 회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는 차를 마십니다' 게시판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직접 보성차밭 등 유명한 차 재배지를 방문, 차를 만들고 시음하기도 한다.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차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7시 수원 어울시민문화원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시간드 마련한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불교동호회 'teazen' 초기화면.

대금 및 가야금, 단소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다면 수원 어울시민문화원에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악공연이 있는 날에는 회원들과 같이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차와 국악을 주제로 한 'teazen' 카페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글을 올리고 싶다면 회원가입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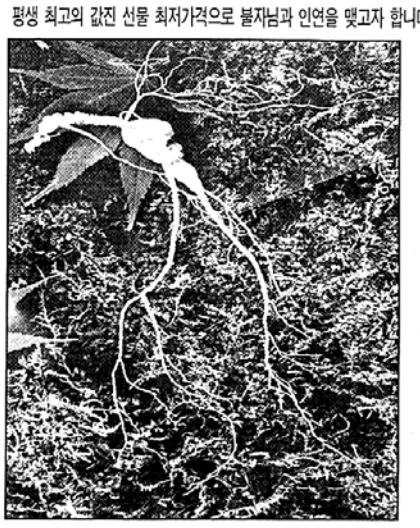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정신도 맑게 하고 다이어트도 되는 다양한 차로 시원한 여름을 나는 것은 어떨까….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라는 거짓 광고를 고발합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주) 한국지연과학 대표
강 윤 구 氏

▣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의 비교

| 구 분 | 가시오가피 | 일반오가피 |
|---|---|---|
| 학 명 | Acanthopanax Senticosus | Acanthopanax |
| 각국의 명칭 | 한 국: 가시오가피<br>러시아: 시베리안 진생<br>중 국: 지오가(씨우지)<br>일 본: 에조우고기 | 한 국: 오가피<br>러시아: 없음<br>중 국: 오가<br>일 본: 우고기 |
| 각국의 정부정책 | 한 국: 보호이생식물<br>러시아,중국: 국가보호수 | 해당사항 없음 |
| 국내종자 가격 | 수입산: 리터당 30만원<br>국내산: 구하기 어려움 | 국내산: 리터당 3만원 |
| 외국 석학들의 논문 및 보고서 | · 러시아 브레크만박사-가시오가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보고<br>· 독일 비그너박사-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가장 뛰어남<br>· 중국 체흔친 박사의 연구보고 외 논문 다수 | 해당사항 없음 |
| 모양새 | 바늘같은 잔가시가 빽빽함 | 장미가시 같은 큰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음 |

| 식 물 명 | 가시오가피 | 일반오가피류 | | | |
|---|---|---|---|---|---|
| | | 지리오가피 | 서울오가피 | 섬오가피 | 당오가피 |
| 엘레우테로사이드 E 함량(mg/g) | 1.92 | 1.10 | 0.69 | 0.35 | 0.24 |

-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을 조롱하는 당신!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에게 묻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의 존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당신의 행위를 증단시키기 위해서 거금 5억원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문도 휴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현재까지 편법광고로 사법부의 관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법의 결정은 휴지입니까?**

지난 몇 년간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오가피 제품을 팔아 승승장구하던 수신오가피가 최근 조작까지를 서슴치 않는 것은 가시오가피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서 입니까? 특히,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면서도 영업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본인 의도하에 조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실험해 놓고 마치 본인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의 발로입니까? 함박재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한 가시오가피입니다. 당신은 오가피 나는 가시오가피이므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하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의 물음에 답하고 묻습니다!

1. 당신은 자기 제품(수신 토종오가피)의 시료는 농축하고 함박재가시오가피 제품 에는 등을 먹여 시료를 조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도표참조) 그런데, **당신의 손을 거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타사의 것은 작아집니까?** 당신은 분명 도깨비 방망이를 지녔습니다.
2. 당신이 말하는 가시오가피의 지표는 아칸토사이드D가 아니라 이소프락시딘입니다. **"이소프락시딘이 없으면 가시오가피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가시오가피에만 있는 성분으 로 다른 식물에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수신오가피 성광수씨는 오가피를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 당신이 권저자이고 수백만부 이상을 뿌린 〈토종오가피의 효능〉이라는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 복용사례, 기타 인용문 중 오가피는 가시오가피입니다.
- ▶ 일본의 에조우코기는 오가피가 아니라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브레크만이 인삼 대타로 연구하여 세계에 그 악리작용을 알린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엘루테로콕쿠스 즉,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독일의 석학 바그너 박사가 한국산이 소련산의 4배, 중국산의 6배의 엘루테로사이드 E가 많다는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율림픽 출전선수들이 음용한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3.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라고 주장하는 수신오가피의 성광수씨 천안 수신면에 위 치한 농장이 당신이 주장하는 최대의 농장입니까? 그 농장의 생산량은 당신이 헌 재에 판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1개월분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농장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 머피의 말

**문의전화 (02) 2272-4900**

## 선각종, 심장병아동돕기 적극 나섰다

# '1사찰 1어린이 결연' 운동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이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선다. 선각종은 5월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사무실에서 최선규 후원회장에게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성금 62만원을 전달하며 심장병 어린이돕기 운동의 스타트를 끊었다.

선각종은 종단소속 각 사찰과 불우 심장병 어린이를 결연시키는 '1사찰 1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전국 186곳 말사에 불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성금함을 따로 마련, 신도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종단 스님들이 직접 거리에서 어린이돕기 탁발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이 최선규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후원회장에게 심장병 어린이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맨왼쪽부터 성금에 동참한 득심사 주지 진불, 수국사 주지 진안스님. 맨 오른쪽은 인천 천불암주지 선주스님.

특히 서울 득심사 주지 진불스님은 달마도 · 길상도 전시회를 열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심장병어린이돕기에 보탤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한국 어린이보호재단에 따르면 매년 6천여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 빈곤과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고 성금 등으로 수술받는 어린이는 극소수인 100여명 안팎. 31일 보호재단 이배근 회장은 "현재 176단체가 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단체이고 불교종단이 후원종단으로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며 "선각종이 미래 한국의 기둥이 될 어린이를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신다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복지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주역이 될 어린이를 돕는 일은 곧 이 사회를 정토로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기에 아픈 어린이, 학대받는 어린이, 밥을 굶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종단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186말사에 성금함…신도들 동참유도
### 매년 6천명, 빈곤·무관심으로 방치

선각종은 이에 앞서 4월 28일에는 총본산인 전남 강진 옴천사에서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수호종단 인증패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정암스님 등 선각종 스님 1백여명은 5월 15일 광주종합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 5 · 18 광주민주항쟁 정신계승 헌혈에 동참,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직지사 · 영주포교당 수행환경 위기

## 인근에 식당등 건축 스님·신도들 공사중지·설계변경 요구

수행환경을 어지럽하는 건축공사가 경북 김천 직지사와 영주포교당 인근에서 잇달아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주지 법성)는 5일 만덕전에서 60개 말사 스님 및 신도 등 1천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지사 산문 앞 건물 신축허가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직지사 산문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 942평중 300여평에 대해 지주가 지난 99년7월 김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식당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세우려 하자 직지사측이 '사찰 정문 앞의 식당허가는 사찰 정서를 해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주측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 행위라고 맞서고 있으며, 김천시는 최근 이 지역이 '직지사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부지 매입 또는 건축허가 철회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영주포교당(주지 법라)도 바로 옆에 4층 규모의 원룸이 건축중이어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건축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주포교당은 지난 4월 포교당 바로 옆에 4층 건물의 원룸 16세대가 건설되자 영주시에 "전법도량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축 시행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영주를 비롯 인근의 안동, 의성, 봉화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중심으로 '전통사찰 보존 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도기스님)를 지난 5월3일 결성하고, 건축허가 취소,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개원한 천태포교당의 관음불상 점안식 모습.

## 천태종 덴마크포교당 개원

### 주지 월장스님, 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종단 최초로 덴마크에 해외포교당을 건립, 본격적인 해외포교에 나선다. 천태종은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현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시에서 천태포교당 개원식및 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용스님은 덴마크 천태포교당 초대 주지로 월장스님을 임명했으며, 천태포교당 개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현지교민 고태정씨를 신도회장으로 임명했다.

월장스님은 이날 "코펜하겐의 포교당을 거점으로 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남쪽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대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포교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불교 日전파 감사 부여에 報恩불상

### '日 도래문화 아는모임' 서


◇일본 시민들이 만든 일광삼존불.

일본 나가노(長野) 시민들이 백제가 불교를 전해준 데 대한 보은으로 과거 백제 성왕(聖王)이 조성해 전래했던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을 그대로 본뜬 금동불상을 조성, 10월 4일 한국 부여 조왕사로 보내온다.

일본 나가노의 '도래문화를 아는 모임'(회장 후쿠시마, 일본 선광사 현증원 주지) 소속 회원 100여명은 불상을 옛 백제의 수도 부여에 옮겨 봉안하기 위한 법회를 9일 나가노현 소재 재일본 한국불교 태고종 총본사인 금강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주관으로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1일 김해 가야랜드에서 열린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및 위령제.

## 중국여객기 사고희생자 합동영결식

### 임인택장관 등 800명 참석, 종교초월 천도재도

1일 김해 삼방동 가야랜드 주차장에서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 및 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유가족과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8백여명의 시민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고인들의 넋을 달랬다.

지난 4월 15일 발생한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49재 막재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9시 30분, 식전행사인 살풀이 춤으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이어 열린 1부 행사는 고인에 대한 묵념, 7발의 조포 발포, 분향 및 헌화, 유가족 대표 조사, 정부 대표와 중국 국제항공공사 간부의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천도의식에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종교를 초월,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항공기사고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권) 주관으로 김해지역의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일), 기독연합회, 천주교연합회 등 3개 종교단체가 적극 힘을 모아 치뤄진 이날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해불교봉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김해불교연합합창단 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봉사회는 행사장 곳곳에서 질서유지, 음료수와 도시락 지급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상주 노릇을 대신했다. 이날 합동영결식 및 위령제는 위령행렬이 행사장을 3회 순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해=천미희 기자

## 해인종 창종 3돌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해인종(종정 혜지)은 5월 3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종 3주년 기념 및 한일 월드컵 16강 기원법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과 천태종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을 비롯 각 종단스님과 신도 3백여명이 동참했다. 혜지스님은 법문을 통해 "창종의 근본 뜻을 되새기며 전 종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법을 널리 펴는데 진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6·25때 팔만대장경 보호 故 김영환장군 공적비 제막식

### 17일 해인사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폭격 명령을 거부하여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존한 공군장교 故김영환 장군(사진)을 기리는 '김영환장군 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 제막식이 17일 오전 11시 해인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과 합천 해인사가 주관하고, 공군본부에서 후원하는 이날 공적비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원로스님, 공군본부 참모총장, 공군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 故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부지면적 118㎡, 높이 2.3m, 기단부높이 17.5㎝ 크기로 해인사 경내에 건립되는 공적비는 팔만대장경 경판을 본뜬 모습의 오석과 황동석으로 만들어진다. 총 978자로 이루어진 비문은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원장)이 짓고, 송천정하건씨가 글씨를 썼다.

비문에는 '민족혼인 고려팔만대장경판을 국난 중에 호국하고 재난에도 호국했네,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 김영환장군이 지켰으니 이 나라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적혀 있다.

김원우기자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아 라 냐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막,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몸빼,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빼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울산 '화요시민법회' 큰 호응

## 7쌍부부 불이회 주최 동참인원 늘어 도심포교場 자리매김

6월 4일, 울산 태화동 중부신협 2층 문화회관을 찾은 이들은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의 법문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날 열린 한국-폴란드 전 월드컵 축구 열기를 무색케 한 이 불심의 현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시민법회로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이 법회를 주최하는 모임은 불이회(不二會, 회장 서종기 · 60). 14명, 그것도 모두 부부인 불이회의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시민들을 위한 법회 준비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 일체의 법회 경비는 물론 당일 법회장 청소, 의자 배치, 마이크 설치, 안내까지 고작 14명뿐인 회원들이 도맡고 있다.

3월 5일 첫 법회를 연 후 넉 달째를 맞은 화요시민법회는 이제 70~80여 명이 참석하는 도심 법회로 자리를 잡았다. 우룡스님, 북경대학 철학박사 월암스님,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 등의 법문이 초심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법회를 한번 찾은 이들의 입소문으로 동참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회는 4일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법회를 열었다.

그동안 가게 운영 때문에 먼 절에는 갈 엄두를 못냈다는 안미선(45. 경주시)씨는 "가까운 곳에서 시민법회가 열리니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다"며 "불이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법문해(49)보살과 문외자(41)씨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가르침으로 일주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소중한 법회"라며 일주일 내내 법회를 기다리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은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고민 끝에 시민법회를 열게 된 불이회로서는 더할 수 없는 보람이고 기쁨이다.

정진에도 포교에도 척척 뜻이 맞는 일곱 쌍의 부부. 이들이 열고 있는 법회를 인연으로 불법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2년 전 '내 가족부터 화합해서 공부하자'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이어오던 불이회가 이제 울산을 불국토로 만드는 심부름꾼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불교신도회장을 지낸 서회장과 학성선원 신도회장을 역임한 박용구 거사를 비롯해 회원들의 바람은 이제 하나다. "울산에서 시작된 시민법회가 전국으로 확산돼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

그들의 서원과 보살행으로 일궈진 화요시민법회는 이제 불이회의 또 다른 정진의 장이자 포교, 보시의 장이며 시민들에게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접하는 법석이 되고 있다.

울산=천미희 기자

# 단체통합…지리산생명연대 출범

## 상임대표 도법스님, 공동위장 양재성목사·서주원씨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과 생명평화 운동 등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가 통합됐다.

두 단체는 5월25일 남원 실상사에서 통합창립총회를 열고 '지리산생명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두 단체 관계자들은 상임대표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추대하는 한편,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양재성 목사(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 사무총장)와 서주원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생명연대'는 각각의 사업을 통합해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공동체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리산생명연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지역과 종교, 이념을 초월한 대안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 환경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해나갈 방침이다.

임효정 지리산 생명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두 단체간의 통합은 지리산 권역 생태환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북한산 도로' 민간합동기구 설립

## 불교환경연대 성명, 우회노선 건설 검토하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할 민관합동 공동대책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교환경연대는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16개 고속도로, 30개 댐이 건설되면 우리나라의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북한산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 공동대책기구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 기본교육실시 사찰 전국분포지도 제작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적으로 기본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실시 사찰 전국지도'를 제작한다.

포교원은 지난해 신도기본교육령이 발효된 이후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을 이달 27일까지 취합해 7월 5일경에 전국지도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 실행지침서를 전국 사찰에 발송하는 한편 신도교육 현황 양식서를 포교원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 장기이식 국가관리후 급감

## 지난해 3건 불과, 승인 절차 복잡해 기피

지난 2000년 2월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뇌사자 장기이식을 전담하면서 장기이식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장기기증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이식 건수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자료에 따르면 각막 · 신장 · 심장 · 간장 이식 사례의 경우 97년 15건, 98년 24건, 99년 21건에서 KONOS가 발족한 2000년에는 5건, 2001년에는 3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 5월까지의 이식 건수도 단 2건에 불과했다. KONOS는 뇌사자 장기이식이 99년 162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감소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유는 과거 병원과 생명나눔 측이 협의아래 이뤄지던 장기이식이 KONOS의 승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기증자와 기증자를 발굴한 단체가 큰 불편을 겪게 되면서 기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 기증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뇌사자의 기증 장기는 KONOS에서 관리해 이곳에서 순서대기 중인 환자에게 돌아갔다.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이사는 "서류상의 기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실제 기증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만 장기기증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원주 관음사는 6일 초대형 108염주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 남북통일기원 초대형 108염주 이운

## 치악산 관음사 8월11일 봉안법회

남북통일의 서원을 담은 초대형 108염주(한알 지름 40cm, 총무게 5톤) 이운법회가 6일 원주 관음사(주지 정오)에서 봉행됐다.<본지 367호 22면 기사참조>

석호(관음사 조실), 무애(일본 통국사 주지), 정륜(일본 기후깽 호라도 보은각 주지), 백운(태고종 강원종무원장) 스님, 염주 제작자 임관지(한국명 임종구) 거사 등 200여 명이 모인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송, 인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정오스님은 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통일염주의 봉안을 통해 흩어져 있는 민족의 마음이 염주와 같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형 통일염주는 총 세벌이 제작돼 지난해 일본 등국사에 한 벌이 봉안됐고, 두 벌은 관음사로 이운돼 한 벌은 관음사에, 나머지 한 벌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할 계획이다. 관음사 봉안법회는 8월 11일 열리고 이날 북한으로의 이운 계획이 발표된다.

원주=남동우 기자

# "조계사, 각황·태고사 역사성 승계

# 단위사찰보다 종단대표로 봐야"

## 김광식씨 포럼서 주장

조계사가 '한국불교사 속의 조계사'를 주제로 4일 경내 소설법전에서 올해 두 번째 '조계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옥철 안그라픽스 대표, 노승대 북촌문화센터 소장 등 포럼 전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는 "조계사라는 명칭은 1910년 창건된 각황사가 태고사로, 태고사에서 조계사로 변화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계사가 갖는 역사성은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와 태고사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각황사는 불교대중화의 최일선에 있었고, 태고사는 불교계 총본사였다"며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조계사는 일개 단위 사찰로서의 성격보다는 정치성, 종단성, 한국불교 상징성, 조계종단 대표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계사 자체 내의 움직임과 흐름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 가정폭력 전문상담 여불련, 교육생 모집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제3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자원봉사회망자와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00시간동안 이루어진다.

여수령 기자

# 경주방문 외국인 대상 달빛 신라역사 기행

## 차·떡 먹으며 국악감상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 발맞춰 경주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신라의 달밤'을 맛보게 하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경상북도 관광협회는 신라문화원 주관으로 오는 22일 오후 7시 경주시내 황룡사지 등 일원에서 '월드컵과 함께 하는 달빛 신라역사기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월드컵대회 기간에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코스는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안압지와 분황사, 황룡사지 등으로 황룡사지에서는 차와 떡을 나눠먹으며 피리연주 등 국악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며 한국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을 무료로 참가시킨다. (054)774-1950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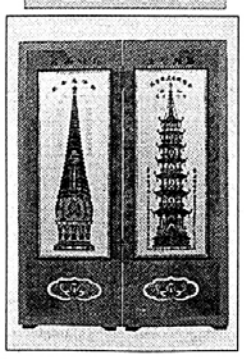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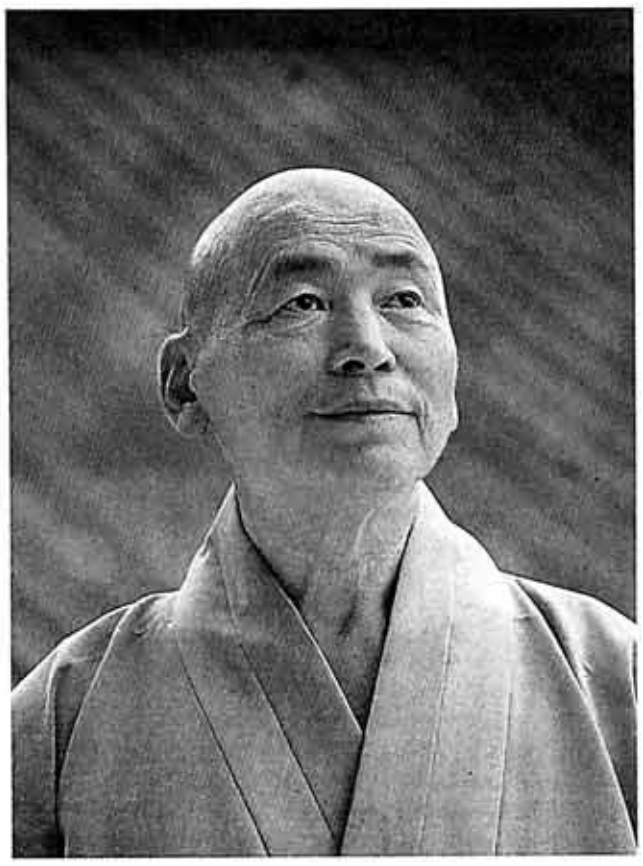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만생명 살리는 관음보살 현신 도량

## 그 절에 가면 — 변산 내소사



봉래산의 얼굴 혜산스님

### 한 도량서 40년…내소사의 '한 부분'

은사이신 해안 스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 도량 만들기에 온 정성을 다하는 혜산 스님. 그 원력의 정점에 지난해에 마무리한 '봉래선원'이 있다.

1963년에 이곳으로 출가했으니 어언 40년이다. 수행자가 한 도량에서 이정도 세월이면 시간의 길고 짧음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스님은 내소사의 한 부분이다.

조금씩 하늘로 향하는 도량이 절정을 이룬 곳. 그곳에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이 있습니다. 빛바랜 단청을 나뭇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단청으로는 그 당당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소사 대웅보전의 8짝 꽃살문은 누구에게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연꽃과 국화 등의 꽃 무늬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듯 새겨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비가 내려 앉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살피면,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꽃잎을 세로 만들어 붙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박물관에 가두어진 문화재와 달리 비 맞고 눈 맞으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불교 문화재만의 미덕입니다.

대웅보전의 내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장의 꽃무늬나 보 머리의 용 조각도 고개를 한참이나 올려 세우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상 뒤편의 벽면으로 살짝이 걸음을 옮기면 현존하는 것 중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소사를 품에 안은 봉래산 관음봉과 절묘한 짝을 이룬 듯합니다.

내소사(來蘇寺)의 본디 이름은 소래사(蘇來寺)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곳에 시주를 했다고 해서 내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전하는데, 사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만 생명이 이곳에 오면 다 소생하라는 절이 내소사입니다. 관음보살의 현신 도량인 것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 633년 창건 …古刹분위기 고스란히 이어와
### 대웅전 8짝 꽃살문 금방이라도 나비 내려 앉을 듯

가장자리' 에도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물의 외형을 끝지우는 것이 그 하나고, 안팎이 여일하여 '속'과 분리 불가능한 '가장자리'가 다른 하나일 것입니다.

서해 절경을 다 불러모은 듯한 곳, 변산반도. 안과 밖의 어우러짐이, 판소리 가락과 고수의 궁합 좋은 장단만큼이나 멋들어진 땅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다채로움도 영락없이 판소리 가락을 닮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점해고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가 싶으면 어느새 너른 들판을 펼쳐 놓고, 굽이돌 때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갯벌에 실증이라도 날라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빛 모랫벌을 쑥 내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변산은 바다를 낀 외변산과 산주를 깊은 내변산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바다와 산의 조화를 강조한 발상인 듯 싶습니다.

서해의 보석 같은 땅, 변산반도. 그 꼭지점이라 할 채석강에서 내변산의 깊고 그윽한 곳으로 다가가면 거기에 '내소사'가 있습니다.

내소사의 사실상 일주문은 '전나무 숲길'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둥(一柱)이고, 그 나무들이 만들어낸 숲은 커다란 문(門)입니다. 열고 닫을 일이 없는 문입니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 늙은 단풍나무가 하늘 아래에 또 하나의 하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엄이 서린 나무들입니다. 모진 풍상 다 견뎌낸 인고의 세월이 만들어낸 달관을 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전각들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꽃살문이 이름 높다고 해서 성큼 그곳으로 치달을 일은 아닙니다. 잠시, 천년을 살아온 느티나무 곁에서 내소사의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633년(백제 무왕 34), 혜구 두타(惠丘 頭陀)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니 1400년에 가까운 고찰입니다. 이후, 1633년(인조 11)에 청민(淸旻) 스님이 중건하였다 합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관해(觀海), 만허(萬虛), 해안(海眼), 혜산(慧山) 스님으로 이어 오면서 오늘에 이릅니다. 특히 지금은 회주이신 혜산 스님이 1983년 주지를 맡고부터 20년 동안 진행해온 불사는, 석축 하나 쌓는 일에도 세심한 배려와 최고의 정성으로 고찰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려 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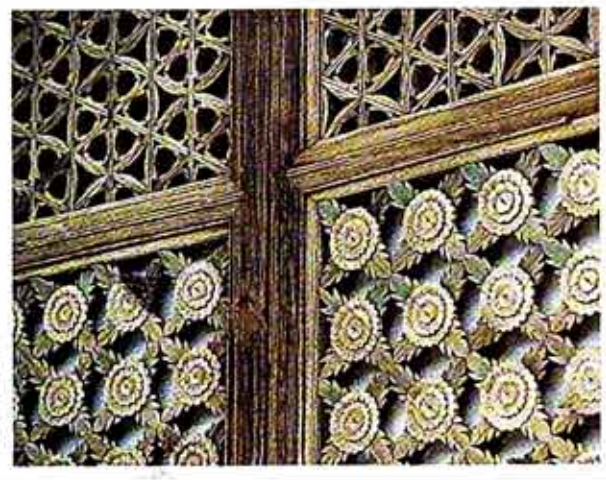
나이가 300살이라는 보리수를 스쳐 지나면 종각입니다. 고려 후기에 조성된 동종(보물 제277호)이 거기에 있습니다. 높이가 1.3m에 불과한 종이지만 용뉴의 정교함과 당초와 연화문, 구름 위에 모신 삼존상은 숭고미의 절정을 보여 줍니다. 내소사의 창아한 분위기가 이 종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종각에서 대웅전 쪽으로 몇 걸음 옮기면 봉래루가 눈앞에 솟아 오릅니다. 장식이 거의 없는 담백한 구조미가 절집의 미덕을 잘 보여 줍니다. 24개의 기둥 높이가 제각각인데,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주춧돌의 높이로 구조적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봉래루를 지나 또 한번 키를 올리면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오른쪽 한 켠에 설선당과 요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25호)가 ㅁ자 구조로 합쳐져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거의 없는 청빈의 아름다움을 반짝이는 건물입니다.



◇용의 머리를 조각한 보머리. 여의주 대신 잉어를 물고 있다.



◇대웅보전의 꽃살문. 이것만으로도 내소사는 소중한 절이다.



◇군더더기 없는 누각, 빛바랜 단청의 대웅보전이 우람한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2002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19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이고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며,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수련회는 일상의 분주한 일 때문에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해 줍니다. 하루 세끼 공양하는 일이니 걸음걸이 하나, 심지어 해우소에서 배설하는 일까지 소중한 수행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격한 일인지를 깨닫고 흥청망청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에게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심 있는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 코스로 유명하며, 이러한 4박 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을,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련주제 :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현장이다"

■여름 수련회 일정

'2002 여름수련법회 일정 (6월 25일~8월 10일)'

| 기 간 | 연 령 | 대 상 자 | 인 원 |
|---|---|---|---|
| 1차 6월25일(화) ~ 6월29일(토) | 20 ~ 60세 이하 | 일 반 인 | 130명 |
| 2차 7월 2일(화) ~ 7월 6일(토) | " | " | 130명 |
| 3차 7월 9일(화) ~ 7월13일(토) | " | " | 130명 |
| 4차 7월16일(화) ~ 7월20일(토) | " | " | 130명 |
| 5차 7월23일(화) ~ 7월27일(토) | " | " | 130명 |
| 6차 7월30일(화) ~ 8월 1일(목) | 14 ~ 19세이하 | 중·고등부 | 150명 |
| 7차 8월 6일(화) ~ 8월10일(토) | 20 ~ 60세이하 | 일 반 인 | 130명 |

■신청방법 : 1)접수기간 : 2002년 5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2)접수처 : 법보종찰 해인사 포교국
3)신청서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와 참가하고자 하는 차수를 적어 홈페이지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통보 및 접수 : 1)수련회 참가비 : 일반부 8만원, 중·고등부 6만원
2)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수련생으로 확정되면 개별통보하며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농 협 843174-51-006770 (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455 (예금주 : 해인사)
·접수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일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경우는 예외

■수련회장소 : 해인사 보경당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운동화, 쌀 1되와 상·하 승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접수안내 : 055-932-7430, 932-5822 팩스 055-932-6448 ■인터넷 접수 : www.haein-sa.org

※해인사 수련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수련회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참가자는 매 수련회 당일 오전 7시에 서울 강남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합천고속 관광버스가 출발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055-931-1390 핸드폰 017-587-1390 장해룡 기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 인 사 주지 세 민 합장